



정치·행정

제1장 정치

제2장 행정

제3장 사법·치안·향토방위



제장 정치

강신욱 집필

제1절 지방의회 제도

제1절

1. 지방자치제도의 변천

1948년 7월 17일 건국헌법에 의해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돼 8월 15일 공포됐으나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으로 시행 할 수 없다가 1952년 4월 25일 최초로 시·읍·면의회 의원선거와 5월 10일에는 도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므로 민주적 지방의회 제도가 실현됐다.

당시 시·읍·면의회는 임기는 4년에 시·읍·면장의 선출권과 불신임 의결권이 있었으며, 의원수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했다. 이에 시·읍·면장은 의회해산권이 있어 상호 견제토록 했다.

다만 ‘대통령은 천재지변과 그 외의 비상사태에 의해 선거실시가 어렵게 됐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전부 혹은 일부의 선거를 연기 혹은 정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개정했다.

지방자치법의 제2차 개정(1956년 2월 13일) 내용은 시·읍·면장과 동·리의 장은 주민 직선제로 하고, 의회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불신임권을 폐지하고, 지방의회 의원과 시·읍·면장의 임기 4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의결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거부권을 신설해 1956년 8월 8일 제2대 지방선거가 실시했다.

지방자치법의 제4차 개정(1958년 12월 26일) 내용은 시·읍·면장은 임명제로 하며 시·읍·면장의 의회 해산권과 지방의회의 시·읍·면장에 대한 불신임권이 부활되고 의원의 임기 3년을 4년으로 해 1960년 12월 19일 제3대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12월 29일 자치단체의장 선거가 실시됐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의 포고령 제4호에 의거 지방의회는 해산됐다. 따라서 읍·면자치를 군자치로 변경되고 모든 권한을 군수가 승계했다.

1972년 12월 27일 제4공화국 헌법 부칙 제10조에 ‘지방의회를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현은 통일 이후에나 기대할 수 밖에 없다.

1987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직할시, 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포괄적인 수권방식으로 바꾸고 의원 정수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되 의원의 임기는 4년 명예직으로 정했다. 회기 중의 일비(日費)와 여비(旅費) 지급은 의결사항을 열거주의에 의하되 의결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권과 출석답변 요구권을 부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했다.

1989년 12월 30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1991년 3월 26일 기초자치단체 의원선거와 6월 20일 광역의회의원 선거, 이어서 1995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선거가 이루어져 지방자치제도가 실현됐다.

2. 1952년 지방선거

1) 제1대 증평읍·도안면 의회 의원선거

최초로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1952년 정부가 임시수도 부산에 피란중인 때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직선제 개헌안을 폐지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해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었으나 치안이 불안하고 미수복지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제외한 17개 시, 72개 읍, 1,308개 면에서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 의원선거와 5월 10일 도의회 의원선거의 직접선거가 처음 실시됐다.

증평지역은 증평읍(1949년 8월 13일 읍 승격) 15명, 도안면 11명을 선출하는 읍·면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됐고, 괴산군내 14개 읍·면에서는 모두 170명이 선출됐다.

●● 제1대 증평읍·도안면의회 의원¹⁾

증평읍(15명)					도안면(11명)			
직책	성명	연령	정당	비고	성명	연령	정당	비고
의장	박래원	58	자유당		연쾌희		자유당	사퇴자
부의장	이광우	34	자유당		연병률	38	자유당	

1) 全國地方議員名鑑編纂會, 『全國地方議員名鑑』, 南光文化社, 1953.; 「市·邑·面議會議員名單」, 『曾坪邑臺帳』, 1959.; 忠清北道議會, 『忠清北道議會史(1~3代)』, 2000.

증평읍(15명)					도안면(11명)			
직책	성명	연령	정당	비고	성명	연령	정당	비고
의원	김남선	45	민주국민당		연규영	44	자유당	
	김영칠	39	자유당		김형수	45	자유당	
	박중석	37	대한청년단		연영희	35	자유당	
	김기문	40	대한청년단		한순기	51	무	
	김기석	55	민주국민당		김용상	41	자유당	
	이향로	34	대한청년단		연제민	38	자유당	
	윤병훈	35	무		연병익	49	무	
	이무남	44	대한청년단		김용식	54	무	
	김태경	34	자유당		김재봉	44	자유당	
	연순희	49	자유당		연규섭	37	자유당	보궐선거당선자
	장현규	35	자유당					
	신현창	30	대한청년단					
	김백경	37	자유당					

증평읍의회와 도안면의회는 증평읍장에 김재화, 도안면장에 연규호를 의회 간접선거로 각각 선출했다.

2) 제1대 충청북도의회의원선거

1952년 5월 10일 1대 충청북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충청도내 전체 의원정수 28명 선출에 최종 61명이 등록해 2.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당별 당선자는 자유당이 18명(64%)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무소속 7명, 국민회 2명, 대한청년단 1명이었다.

괴산군에서는 남부선거구에 김서웅(자유당)·임봉빈(무소속), 중부선거구에 이석규(자유당)·박원식(무소속), 북부선거구에 김영태(자유당)·이규설(무소속) 등 3개 선거구에서 6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개표 결과 모두 자유당 출신이 당선됐다.

●● 제1대 충청북도의회의원 2)

성명	연령	직업	약력	정당	득표수
김영태	46	농업	면장	자유당	12,159
김서웅	51	농업	공무원	자유당	9,754
이석규	40	농업	회사원	자유당	8,686

2) 全國地方議員名鑑編纂會, 『全國地方議員名鑑』, 南光文化社, 1953.; 忠清北道議會, 『忠清北道議會史(1~3代)』, 2000.

3. 1956년 지방선거

1) 제2대 증평읍·도안면 의회의원선거



제2대 증평읍의회의원

제1대 지방의회가 운영된 4년 동안의 문제점은 1956년 2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시행착오와 부작용 요소를 제거했다.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읍·면장 불신임의결권을 폐지하고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의원정수를 축소 조정하는 한편 의회의 회기일수도 제한했다.

제2대 지방의원 선거는 1956년 8월 8일 시·읍·면의회 의원선거 실시에 이어 8월 13일에는 첫 지방선거에서 제외됐던 서울, 경기, 강원이 포함된 서울시·도의회 의원선거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읍·면의회 의원선거는 당시 괴산군내 14개 읍·면 52개 선거구에서는 의원정수 축소에 따라 초대보다 10명이 줄어든 160명이 선출됐고, 증평읍에서는 13명, 도안면에서는 11명이 뽑혔다.

선거 결과 증평읍에서는 자유당 12명, 민주당 1명이 선출됐고, 도안면에서는 11명 모두 자유당이 석권했다. 또 증평읍에서는 전체 당선자 13명 가운데 9명이 재선 의원이었고, 도안면에서는 11명 중 5명이 재선됐다.

1957년 12월 20일 증평읍장 출마를 위해 자진사퇴한 김영칠 의원에 대한

1958년 1월 30일 보궐선거에서 이운용이 당선되고, 1958년 10월 30일 연순희 의원의 사망에 의한 1958년 12월 26일 보궐선거에서 연규식이 당선됐다.

1958년 12월 26일 4차 지방자치법 개정 때 의원 임기가 다시 4년으로 환원됨으로써 2대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1960년 8월까지 연장됐다.



제2대 도안면의회의원

● ● 제2대 증평읍·도안면의회 의원³⁾

직책	증평읍(13명)				도안면(11명)			
	성명	연령	정당	비고	성명	연령	정당	비고
의장	김백경	41	자유당	재선	연규영	48	자유당	재선
부의장	이광우	38	자유당	재선				
의원	김억조	59	민주당	재선	연병률	42	자유당	재선
	송정섭	40	자유당		연창훈	45	자유당	
	박종석	42	자유당	재선	연병칠	51	자유당	
	김남선	49	자유당	재선	연제민	42	자유당	재선
	김영칠	46	자유당	재선 보선당선자	김용상	45	자유당	재선
	이종태	33	자유당		한순기	55	자유당	재선
	김사봉	45	자유당		한인석	35	자유당	
	이향로	38	자유당	재선	이강수	37	자유당	
	주재설	29	자유당		김재봉	40	자유당	
	연순희	53	자유당	사퇴자	연규탁	33	자유당	
	신현창	34	자유당	재선				
	이운용			보선당선자				
	연규식			보선당선자				

2) 제2대 증평읍·도안면장 선거

1956년 8월 8일 처음으로 주민에 의한 증평읍장·도안면장 직접선거를 실시한 결과 증평읍장에 봉원동, 도안면장에 연규호가 당선됐다.

3) 제2대 충청북도의회의원선거

1956년 8월 13일 제2대 충청북도의회의원선거가 충청도내 30개 선거구에서 실시돼 30명 선출에 최종 86명이 출마했다.

괴산군에서는 1선거구에 김진성(자유당)·이현복(무소속), 2선거구에 김영태(자유당)·김종술(자유당)·박대열(무소속)·안이진(무소속)·이규설(무소속), 3선거구에 김서웅(자유당)·연병석(민주당)·정순길(무소속)·윤치훈(무소속) 등 3개 선거구에 11명이 출마해 3.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모두 자유당 출신이 당선됐다.

● ● 제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⁴⁾

선거구	성명	연령	직업	주소지	정당	비고
1	김진성	47	상업	괴산면	자유당	초선
2	김영태	51	양조업	상모면	자유당	재선
3	김서웅	56	농업	괴산면	자유당	재선

3) 李寬鎭·李永斗 編, 『地方議員名鑑』, 中央通信社, 1956; 『忠北新報』 1956. 8. 15.; 忠清北道議會, 『忠清北道議會史(1~3代)』, 2000.; 道安面誌發刊委員會·忠北學研究所, 『道安面誌』, 2001. 증평읍의원 중 김영칠이 읍장선거 출마로 사퇴해 이운용이 1958년 1월 30일, 도안면의원 중 연순희의 사망으로 연규식이 1958년 11월 24일 각각 보궐선거로 당선됐다.



증평읍장
(봉원동)



도안면장
(연규호)

4) 李寬鎭·李永斗 編, 『地方議員名鑑』, 中央通信社, 1956; 『忠北新報』 1956. 8. 15.; 忠清北道議會, 『忠清北道議會史(1~3代)』, 2000.

4. 1960년 지방선거

제3대 지방의회는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이후 2공화국이 발족된 뒤에 구성됐다. 1960년 11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시·도는 12월 12일에,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는 12월 19일에 실시됐다. 당시의 사회분위기는 민주화의 열기가 팽배해 동·이장에 이르기까지 직선제로 바뀌게 됐다.

1960년 12월 12일 도의회의원과 서울시의회의원선거, 12월 19일 시·읍·면의회의원선거, 12월 26일 시·읍·면장선거를 잇따라 실시했다. 이어 12월 29일에는 처음으로 도지사·서울시장선거를 치렀다.

1) 제3대 증평읍·도안면 의회의원선거



제3대 증평읍의회의원과 증평읍장

괴산군에서의 읍·면의회의원선거는 의원정수 160명에 298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정당별로는 민주당 56명, 신민당 1명, 무소속 241명이 출마했다.

선거 결과 민주당 29명(18.1%), 무소속 131명(81.9%)이 당선됐다.

증평읍과 도안면에서는 당선자 24명 가운데 재선 이상 당선자가 2명에 불과했다.

●● 제3대 증평읍·도안면의회의원 5)

직책	증평읍(13명)				도안면(11명)			
	성명	연령	정당	비고	성명	연령	정당	비고
의장	김억조	63	민주당	3선	연규덕	44	무	
의원	김도연	38	무		연기준	33	무	
	지영권	52	민주당		연맹희	42	무	
	이치우	37	무		연찬희	38	무	
	연정은	37	민주당		연종택	30	무	
	곽달복	52	민주당		김진성	30	무	
	이호종	44	무		최용주	56	무	
	이순종	36	민주당		김용찬	43	무	
	이기복	30	무		이강수	41	무	재선
	최수영	26	민주당		한정국	33	민주당	
	박태섭	26	무		박갑출	43	무	
	이원복	32	무					
	이형로	48	무					

5) 忠淸北道議會, 『忠淸北道議會史(1~3代)』, 2000.; 道安面誌發刊委員會·忠北學研究所, 『道安面誌』, 2001. 증평읍의원 중 김억조는 1대 의원인 김기석과 동일인물로, 유일한 3선 의원이었다.

2) 제3대 증평읍장 · 도안면장선거

12월 26일의 읍 · 면장선거에서는 증평읍장에 증평읍의회 재선의원 출신인 김영철이 당선되고, 도안면장에 연규호가 재선됐다.⁶⁾

3) 제3대 충청북도의회의원선거

3대 충청북도의회의원선거는 충북도내 인구 119만2,071명 중 선거인수가 62만8,370명이었고, 이중 72.8%인 45만7,66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괴산군에서는 1선거구 70%, 2선거구 6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증평지역 출신으로는 이규홍이 처음 도의회의원에 당선됐다. 2선거구에서 당선된 이규홍은 1만1,157표를 얻어 7,677표를 득표한 차점자 윤치훈을 눌렀다.



제3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 제3대 충청북도의회의원⁷⁾

선거구	성명	연령	주소	정당	득표수	비고
1	박원식	53	불정면	무소속	9,599	초선
2	이규홍	51	증평읍	민주당	11,157	초선

7) 『忠北新報』 1960. 12. 14 ; 忠淸北道議會, 『忠淸北道議會史(1~3代)』, 2000.

4) 충청북도지사 선거

처음으로 주민 직선으로 실시된 충청북도지사 선거는 김정 · 조대연 · 김관묵 · 민종식 · 이규석 등 5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충북도내 전체 선거인수 63만2,051명 중 28만1,368명이 투표해 44.5%의 투표율을 보였고, 유효투표수는 27만3,952표였다.

선거 결과 민주당의 조대연이 12만5,825표를 얻어 차점자인 신민당 이규석을 제치고 초대 민선 도지사에 당선됐다.⁸⁾

그러나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정부에 의해 참의원 · 민의원과 함께 지방의회가 해산됐고, 9월 1일자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707호)이 공포돼 지방행정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자치제도가 봉쇄됐다.

8) 『忠北新報』 1960. 12. 31.

5. 지방의회의 부활(1991년)

1961년 폐지된 지방자치제는 그 이후 집권세력들이 여러 조건을 내세워 그 실시를 유보하거나 연기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991년 3월과 6월 시 ·

군·자치구의 기초의회의원선거와 서울특별시·도의 광역의회의원선거를 각각 실시하면서 지방자치제는 30년 만에 부활됐다.

2공화국시대의 지방의회는 서울특별시·도와 시·읍·면으로 구분됐으나 3공화국에서는 시·군이 자치단체가 되고 읍·면은 하부행정기관이 됐으며, 6공화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직할시·도와 시·군·자치구로 하는 2계층으로 하는 지방의회를 두게 됐다. 1991년 3월 26일 시·군 자치구의회의원선거와 6월 20일 시·도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해 시·군 자치구의회는 4월 15일, 시·도의회는 7월 8일에 역사적인 지방자치 개원식을 갖게 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990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기도 했으나, 또 다시 1995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따라서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와 중앙정부에서 임명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과도기적 지방자치를 하게 됐다.

부활된 지방자치제도는 자치단체의 자주권과 자율권이 크게 신장되고 주민의 자치행정에 참여기회가 확대됐다.

그러나 중평군지역인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주민들은 괴산군의회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지방의회제도의 큰 모순을 낳게 됐다.

1991년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권은 20세 이상,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이다. 또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이 배제돼 1950~60년대 지방선거와는 일

부 다른 선거방식을 채택했고, 1990년 12월 31일 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법률 4311호)에 의해 임기 4년으로 해 1991년 3월 26일 기초지방의회의원선



1991년 괴산군의회의원
증평읍 후보자선전벽보

거, 6월 20일 광역지방의회의원선거를 각각 실시했다.

1) 제1대 괴산군의회의원선거

기초지방의회의원선거는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선거구는 읍·면·동 단위로 설정, 전국 3,562곳, 충북 158곳, 괴산군 13곳이었고, 의원정수는 인구수 등에 따라 읍·면·동별로 1~4명씩 모두 4,304명이 확정돼 전국 298개 시·군·구의 의원정수는 각각 7~50명이었다.

괴산군은 13개 읍·면 선거구 중에 인구 2만이 넘는 증평읍 2명을 비롯해 1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데 36명이 출마해 평균 2.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때의 선거에서는 소수면이 단독출마로 무투표 선거구였다.⁹⁾

중평읍선거구에서는 박형규·이남태·이강선·박치화(이하 기호순) 후보가 출마, 이 가운데 박형규·이강선 후보가 당선됐다. 전체 선거인수 1만7,634명 중 57.6%인 1만166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이중 97.4%인 9,900표가 유효투표수였다.

도안면선거구에서는 연찬·연구승 후보가 경합을 벌여 몇 차례 재개표를 실시한 결과 연찬 후보가 1표차로 앞서 당선됐다. 선거인수 2,653명 중 74.7%인 1,982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이중 97.9%인 1,941표가 유효투표수였다.¹⁰⁾

- 중평읍선거구에서는 박형규(2,838표·28.7%)와 이강선(2,770표·28.0%)이 당선됐고 박치화는 2,741표(27.7%), 이남태는 1,551표(15.6%)를 득표했다.
- 도안면선거구에서는 연찬(971표)이 당선됐고, 연구승은 970표를 득표해 1표차로 낙선했다.

2) 제4대 충청북도의회의원선거

제4대 충청북도의회의원선거는 충북도내 38개 선거구에서 123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실시됐고, 의원정수는 선거구별로 1명씩 모두 38명이었다.

괴산군에서는 3개 선거구로 9명의 후보가 출마해 3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평읍과 도안면은 3선거구로 김봉삼(민주자유당)·이규설(민주당)·황일성(무소속) 3명이 출마했다. 전체 선거인수 2만142명 중 69.1%인 1만3,922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이중 98.1%인 1만3,658표가 유효투표수였다.

- 제4대 충청북도의회의원 당선자는 김봉삼(5,005표·36.6%)이고, 이규설은 4,643표(34.0%), 황일성은 4,010표(29.4%)의 지지를 얻었다.¹¹⁾

6. 1995년 지방선거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선거는 기초·광역의회의원선거와 기초·광역자치단체장선거 등 4대 선거가 동시에 치러져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불렸다. 이는 지방선거가 각각 치러질 경우 예상되는 국력낭비와 잦은 선거에 따른 사회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제1대 괴산군의회의원

9) 강신욱, 「역대 지방선거」, 『중평·괴산 군·현대사』, 푸른나라, 2001. 괴산군내 개표 결과 도안면의 연찬 후보가 최고령자(70세)로, 청천면의 김사진 후보가 최연소(43세)로 각각 당선됐고, 연풍면 이해명 후보가 최고득표율(66.3%)로, 괴산을 이상규가 최다득표(3,001표) 당선자로 기록됐다.

10) 忠淸北道選舉管理委員會, 『區·市·郡議會議員選舉總覽』, 1991.



제4대 충청북도의회의원
(김 봉 삼)

11) 忠淸北道選舉管理委員會, 『區·市·郡議會議員選舉總覽』, 1991.



괴산군수
(김 환 목)

12) 강신욱, 「역대 지방선거」, 『중평·괴산군·현대사』, 푸른나라, 2001.

13) 忠清北道選舉管理委員會, 『第1回 全國同時地方選舉總攬』, 1991.

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이 하나의 단일법으로 통합됐고, 이때의 지방선거로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의 임기는 한시적으로 3년이었다.

1) 괴산군수선거

초대 민선 괴산군수선거는 당시 괴산군수인 김한식(민주자유당·괴산읍)을 비롯해 김환묵(민주당·괴산읍)·안이신(무소속·괴산읍)·황일성(무소속·증평읍) 등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선거는 여·야의 정당대결과 함께 지역대립의 복합양상으로 나타났고, 증평출장소의 시 승격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다.¹²⁾

전체 선거인수 5만9,085명 가운데 4만6,514명이 투표해 78.7%의 투표율을 보였고, 유효투표수는 4만4,851표(96.4%)였다.

증평읍과 도안면은 선거인수(부재자수 제외·이하 같음) 2만1,468명 중 74.9%인 1만6,087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 1만5,644표(97.2%) 중에 황일성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¹³⁾

- 제1대 민선괴산군수 당선자는 김환묵(14,790표·33.0%)이고, 김한식은 13,624표(30.4%), 황일성은 10,764표(24.0%), 안이신은 5,673표(12.6%)를 득표했다.
- 증평읍·도안면 후보자별 득표는 황일성(8,050표·51.5%), 김환묵(3,259표·20.8%), 김한식(2,787표·17.8%), 안이신(1,548표·9.9%) 순이다. (※부재자표 제외)

2) 제2대 괴산군의회의원선거

제2대 괴산군의회의원선거는 13개 읍·면선거구에서 모두 36명이 출마해 2.6 대 1의 평균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체 선거인수 5만9,085명 중 4만6,524명이 투표해 78.7%의 투표율과 유효투표수는 4만4,305표(95.2%)였다.

2명을 선출하는 증평읍선거구는 봉영근·차경호·김재유·이강선·이남태·김재성 등 6명의 후보가 출마해 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거인수 1만9,473명 중 74.5%인 1만4,498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1만3,910표(95.9%)였다.

또 1명을 선출하는 도안면선거구는 연영호·한현태·연경흠 등 3명의 후보



제2대 괴산군의회의원

가 출마했다. 선거인수 2,674명 중 84.3%인 2,255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2,155표(95.6%)였다.

- 증평읍 당선자는 이강선(3,615표 · 26.0%, 재선)과 봉영근(3,047표 · 21.9%)이고, 차경호 2,314표(16.6%), 김재성 2,206표(15.9%), 김재유 1,367표(9.8%), 이남태 1,361표(9.8%)를 득표했다.
- 도안면 당선자는 연경흠(873표 · 40.5%)이고, 한현태는 843표(39.1%), 연영호는 439표(20.4%)를 득표했다.¹⁴⁾

3) 제5대 충청북도의회의원선거

5대 충청북도의회의원선거는 충북도내 36개 선거구에서 102명의 후보가 출마해 2.8 대 1의 평균경쟁률을 기록했다. 의원정수는 비례대표 4명을 포함해 40명이었다.

괴산군에서는 3개 선거구로 나누어 민주자유당 3명, 민주당 3명, 자유민주연합 1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9명이 출마해 3 대 1의 평균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체 선거인수 5만9,085명 중 4만6,521명이 투표해 78.7%의 투표율을 보였고, 유효투표수는 4만4,078표(94.7%)였다.

제3선거구인 증평읍과 도안면은 박형규(민자당) · 이규설(민주당) · 연창옥(자민련) · 유명호(무소속) 등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선거인수 2만2,147명 중 75.6%인 1만6,752명이 투표해 유효투표수는 1만6,057표(95.9%)이었다.¹⁵⁾

- 증평 · 도안지역(3선거구) 당선자는 유명호(5,416표 · 33.7%)이고, 이규설 4,202표(26.2%), 연창옥 3,689표(23.0%), 박형규는 2,750표(17.1%)를 득표했다.

4) 충청북도지사선거

충청북도지사선거는 당시 도지사인 김덕영 후보(민주자유당)를 비롯해 이용희(민주당) · 주병덕(자유민주연합) · 양성연(무소속) · 윤석조(무소속) · 조남성(무소속) 등 6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전체 선거인수 97만2,170명 중 70만6,480명이 투표해 72.7%의 투표율을 보였다.

증평읍과 도안면은 선거인수(부재자수 제외 · 이하 같음) 2만1,468명 중 1만6,091명이 투표해 75.0%의 투표율을 보였고, 유효투표수는 1만5,630표(97.1%)였다.

- 충청북도지사 당선자는 주병덕(250,105표 · 36.4%)이고, 이용희 168,209표(24.5%), 김덕영 159,911표(23.3%), 조남성 54,748표(8.0%), 윤석조 27,880표(4.1%), 양성연은 25,603표(3.7%)를 득표했다.

14) 忠淸北道選舉管理委員會, 『第1回 全國同時地方選舉總攬』, 1991.



제5대 충청북도의회의원
(유명 호)

15) 忠淸北道選舉管理委員會, 『第1回 全國同時地方選舉總攬』, 1991.



충청북도지사
(주 병 덕)

16) 忠清北道選舉管理委員會, 『第1回 全國同時地方選舉總覽』, 1991.

- 증평읍·도안면 후보자별 득표는 주병덕 7,952표(50.9%), 이용희 2,926표(18.7%), 김덕영 2,404표(5.4%), 양성연 913표(5.8%), 조남성 807표(5.2%), 윤석조 628표(4.0%)이다. (※부재자표 제외)¹⁶⁾

7. 1998년 지방선거

1998년 6월 4일 실시된 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기초·광역의회의원의 의원정수와 선거구수가 감소했다.

기초의원의 경우 종전에는 인구 2만명을 넘는 읍·면·동은 2만명을 넘는 2만명까지마다 1명을 더했으나, 이 같은 추가기준이 삭제돼 그동안 2명을 선출했던 증평읍의 의원정수가 1명으로 줄었다.

또 광역의원도 시·군 자치구 또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3개 선거구(3명)에서 2개 선거구(2명)로 선거구수와 의원정수가 줄어 괴산군은 3개 선거구와 3명에서 각각 2개 선거구와 2명으로 감소했다.

1) 괴산군수선거

괴산군수선거는 당시 괴산군수인 김환묵(자유민주연합·괴산읍)과 증평지역 출신 유명호(새정치국민회의·증평읍) 등 두 후보의 맞대결로 펼쳐졌다. 이때의 선거는 여·야 정당대결보다는 지역구도가 뚜렷이 나타났다.¹⁷⁾

전체 선거인수 5만8,160명 중 4만814명이 투표해 70.2%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유효투표수는 3만9,697표(97.3%)였다.

증평읍과 도안면은 선거인수(부재자수 제외·이하 같음) 2만1,980명 중 67.0%인 1만4,722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1만3,901표(94.4%)였다. 이들 지역에서는 유명호 후보가 최다 득표자가 됐다.

- 괴산군수 당선자는 김환묵(23,126표·58.3%)이고, 유명호는 16,571표(41.7%)를 득표했다.
- 증평읍·도안면 후보자별 득표는 유명호 9,887표(71.1%), 김환묵 4,014표(28.9%)이다. (※부재자표 제외)¹⁸⁾

2) 제3대 괴산군의회의원선거

제3대 괴산군의회의원선거는 13개 읍·면선거구에서 모두 26명이 출마해 2대 1의 평균경쟁률을 보였다. 연풍면·칠성면·문광면·소수면 등 4개 지역은 단독출마로 무투표 선거구였다.

17) 강신욱, 「역대 지방선거」, 『증평·괴산군·현대사』, 푸른나라, 2001.

18) 忠清北道, 『第2回 全國同時地方選舉結果』, 1998.

전체 선거인수 4만8,803명(4개 무투표선거구 제외) 중 3만4,354명이 투표해 70.6%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유효투표수는 3만3,323표(97.0%)였다.

중평읍선거구는 봉영근·윤해명·엄대섭·엄병석 등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선거인수 2만92명 중 63.6%인 1만2,773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1만2,435표(97.4%)였다.

도안면선거구는 연길희·연경흠 등 두 후보가 맞대결을 벌였다. 선거인수 2,505명 중 79.8%인 1,998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1,935표(96.8%)였다.



제3대 괴산군의회의원

- 중평읍 당선자는 엄병석(3,752표 · 30.2%)이고, 엄대섭 3,531표(28.4%), 봉영근 2,576표(20.7%), 윤해명 2,576표(20.7%)를 득표했다.
- 도안면 당선자는 연길희(1,016표 · 52.5%)이고, 연경흠 919표(47.5%)를 득표했다.¹⁹⁾

3) 제6대 충청북도의회의원선거

제6대 충청북도의회의원선거는 충청도내 24개 선거구에서 64명의 후보가 출마해 2.7 대 1의 평균경쟁률을 보였다. 의원정수는 비례대표 3명을 포함해 27명이었다.

괴산군에서는 괴산군과 중평출장소(중평읍·도안면)의 2개 선거구로 나뉘어 실시됐고, 새정치국민회의 2명, 자유민주연합 1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5명이 출마해 평균경쟁률이 2.5 대 1이었다.

전체 선거인수 5만8,160명 중 4만813명이 투표해 70.2%의 투표율을 보였고, 유효투표수는 3만8,521표(94.4%)였다.

2선거구인 중평읍과 도안면은 이규정(새정치국민회의)·한현태(자유민주연합)·김화삼(무소속) 등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선거인수 2만2,597명 중 65.4%인 1만4,770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1만4,325표(96.9%)였다.

- 중평읍·도안면(괴산 2선거구) 당선자는 한현태(6,828표 · 47.7%)이고 이규정 5,585표(39.0%), 김화삼 1,912표(13.3%)를 득표했다.²⁰⁾

4) 충청북도지사선거

충청북도지사선거는 당시 도지사인 주병덕 후보(한나라당)와 이원중 후보

19) 忠淸北道, 『第2回 全國同時地方選舉結果』, 1998.



제6대 충청북도의회의원
(한 현 태)

20) 忠淸北道, 『第2回 全國同時地方選舉結果』, 1998.



충청북도지사
(이원중)

21) 忠淸北道, 『第2回 全國同時地方選舉結果』, 1998.

22) 강신욱, 「역대 지방선거」, 『중평·괴산군·현대사』, 푸른나라, 2001; 『동양일보』 1998. 6. 26, 2000. 4. 22. 김환묵 군수의 군수직 상실에 따라 실시된 재선거는 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95조(재선거) 6항의 규정에 따른다. 김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1998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 내 경로당 등에 95만 원 가량의 음식물과 술을 제공한 혐의로 청주지검에 불구속 기소돼 2000년 4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23) 괴산군 선거관리위원회, 「괴산군수 재선거 읍·면별 득표현황」, 2000.

(자유민주연합)의 맞대결로 펼쳐졌다. 선거인수 102만5,022명 중 62만4,298명이 투표해 61.0%의 투표율에 유효득표수 60만8,992표이었다.

증평읍과 도안면은 선거인수(부재자수 제외·이하 같음) 2만1,980명 중 1만4,190명이 투표해 64.6%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유효투표수는 1만3,841표(97.5%)였다.

- 충청북도지사 당선자는 이원중(451,533표·74.1%)이고, 주병덕은 157,459표(25.9%)를 득표했다.
- 증평읍·도안면 후보자별 득표는 이원중 8,104표(58.6%), 주병덕 5,737표(41.4%)이다. (※부재자표 제외)²¹⁾

8. 2000년 괴산군수 재선거

2000년 6월 8일의 괴산군수 재선거는 당시 김환묵 군수가 같은 해 4월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 내에 군수직을 상실함으로써 실시됐다.²²⁾

이상규(민주당·괴산읍)·김문배(자유민주연합·괴산읍)·유명호(무소속·증평읍) 등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전체 선거인수 5만7,633명 중 3만2,898명이 투표해 57.1%의 투표율을 보였고, 유효투표수는 3만2,353표(98.3%)였다.

증평읍과 도안면은 선거인수(부재자수 제외·이하 같음) 2만2,399명 중 45.3%인 1만152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1만61표(99.1%)였다. 이들 지역에서는 유명호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 괴산군수 재선거 당선자는 김문배(13,393표·41.4%)이고, 이상규 10,429표(32.2%), 유명호 8,531표(26.4%)를 득표했다.
- 증평읍·도안면 후보자별 득표는 유명호 6,786표(67.5%), 이상규 1,662표(16.5%), 김문배 1,613표(16.0%)이다. (※부재자표 제외)²³⁾

9. 2002년 지방선거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그해 12월에 실시된 16대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6·13지방선거 결과 한나라당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11명을 배출하고,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4명, 자유민주연합이 1명으로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뒀다.

충청북도에서도 한나라당은 도지사를 비롯해 도의원 27명 가운데 21명, 시장·군수 11명 가운데 5명을 당선시켰다. 그러나 이 지방선거 결과는 16대 대선에 그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1) 괴산군수선거

괴산군수선거는 2000년 재선거로 당선된 김문배 당시 군수가 단독 출마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단독 출마하더라도 반드시 찬·반 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투표가 실시됐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91조에 따르면 단독출마한 자치단체장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전체 선거인수 5만6,147명 중 3만6,190명이 투표해 64.5%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유효투표수는 3만1,900표(88.1%)였다. 즉 김문배 후보는 투표자 총수의 88.1%의 지지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증평읍과 도안면은 선거인수(부재자수 제외·이하 같음) 2만1,638명 중 51.6%인 1만1,170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9,123표(81.7%)였다. 김문배 후보는 이들 지역에서 투표자 총수의 81.7%의 지지를 얻었다.

2) 제4대 괴산군의회의원선거

4대 괴산군의회의원선거는 13개 읍·면선거구에서 모두 34명이 출마해 2.6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때의 선거에서는 무투표 선거구는 없었다.

전체 선거인수 5만6,147명 중 3만6,192명이 투표해 64.5%의 투표율을 보였고, 유효투표수는 3만5,085표(96.9%)였다.

증평읍선거구는 엄병석·엄대섭 등 2명의 후보가 출마해 선거인수 1만9,770명 중 50.0%인 9,888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9,491표(96.0%)였다.

도안면선거구는 연길희·연만흠 등 2명의 후보가 출마해 선거인수 2,458명 중 74.8%인 1,838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1,798표(97.8%)였다.

- 증평읍 당선자는 엄대섭(4,804표·50.6%)이고, 엄병석은 4,687표(49.4%)를 득표했다.
- 도안면 당선자는 연만흠(1,047표·58.2%)이고, 연길희는 751표(41.8%)를 득표했다.²⁴⁾



괴산군수
(김문배)



제4대 괴산군의회의원

24) 忠清北道選舉管理委員會, 『第3回 全國同時地方選舉總攬』, 2002.



제7대 충청북도회의의원
(최재옥)

25) 忠清北道選舉管理委員會, 『第3回 全國同時地方選舉總覽』, 2002.



충청북도지사
(이원중)

26) 忠清北道選舉管理委員會, 『第3回 全國同時地方選舉總覽』, 2002.

3) 제3대 충청북도의회의원선거

충청북도의회의원선거는 충북도내 24개 선거구에서 62명의 후보가 출마해 2.6 대 1의 평균경쟁률을 보였다. 의원정수는 비례대표 3명을 포함해 27명이었다.

괴산군에서는 괴산군과 증평출장소(증평읍·도안면)의 2개 선거구로 나눠 실시됐고, 한나라당 2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4명이 출마해 평균경쟁률이 2 대 1이었다.

전체 선거인수 5만6,147명 중 3만6,195명이 투표해 64.5%의 투표율을 보였고, 유효투표수는 3만4,403표(95.1%)였다.

2선거구인 증평읍과 도안면은 최재옥(한나라당)·한현태(무소속) 등 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선거인수 2만2,228명 중 52.8%인 1만1,728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1만1,343표(96.7%)였다.

- 증평읍·도안면(2선거구) 당선자는 최재옥(6,290표·54.5%)이고, 한현태는 5,053표(44.5%)를 득표했다.²⁵⁾

4) 충청북도지사선거

충청북도지사선거는 당시 도지사인 이원중 후보(한나라당)와 구천서(자유민주연합)·장한량(무소속) 후보 등 3명이 출마했다. 선거인수 107만6,451명 중 60만550명이 투표해 55.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증평읍과 도안면은 선거인수(부재자수 제외·이하 같음) 2만1,638명 중 1만1,168명이 투표해 51.6%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유효투표수는 1만844표(97.1%)였다.

- 충청북도지사 당선자는 이원중(343,546표·58.6%)이고, 구천서 196,253표(33.5%), 장한량은 4만6,459표(7.9%)를 득표했다.
- 증평읍·도안면 후보자별 득표는 이원중 6,229표(57.5%), 구천서 3,821표(35.2%), 장한량 794표(7.3%)이다. (부재자표 제외)²⁶⁾

10. 초대 증평군수와 증평군의회의원 선거

2003년 8월 30일 증평군이 설치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정을 수행할 군수 선출과 군의회 구성이다. 2002년 6월 13일 기초의원선거에서 당선된 괴산군의회의원 엄대섭(증평읍)·연만흠(도안면)은 2003년 8월 30일 증평군이 설

치됨에 따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8조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의회 의원으로 신분이 자동 승계됐다.

증평군의회 구성 인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의원정수가 7인이므로, 신분이 승계된 현역 의원 2명을 제외한 부족한 수 5명에 대한 증원선거를 실시하도록 됐다. 따라서 증평읍과 도안면에서 증원선출할 수 있는 의원 수는 충청북도조례에 의거, 증평읍선거구에서 4인, 도안면선거구에서 1인이 됐다.

역사적인 초대 민선 증평군수선거와 증평군의회의원 증원선거는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 부칙 4조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일인 2003년 10월 30일 실시됐다.

증평군수선거와 증평군의회의원 증원선거 후보자 등록은 10월 14~15일 이틀간 실시됐고, 등록 결과 증평군수선거는 4명, 증평군의회의원 증원선거는 증평읍선거구에서 23명, 도안면선거구에서 2명이 출마했다.

선거인수는 증평읍 2만623명, 도안면 2,531명 등 2만3,154명(남자 1만1,614명, 여자 1만1,540명)으로, 인구 대비 72.9%였다.

투표는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증평읍 7곳과 도안면 1곳 등 8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고, 개표는 이날 오후 6시 투표 마감 후 증평군청 2층 회의실에서 군수선거와 군의회의원 선거 순으로 진행됐다.²⁷⁾

1) 초대증평군수선거

초대 증평군수선거는 충청북도의회의원 출신 유명호(한나라당), 괴산군청 건설과장을 지낸 연제원(새천년민주당), 증평농협조합장을 지낸 김봉희(자유민주연합), 경찰관 출신 연규천(무소속) 등 4명이 등록 경합을 벌였다.

전체 선거인수 2만3,154명 가운데 1만5,136명이 투표해 65.4%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유효투표수는 1만4,873표(98.3%)였다.

- 초대 증평군수 당선자는 유명호(5,564표 · 37.4%)이고, 김봉희는 4,421표(29.7%), 연제원은 3,230표(21.7%), 연규천은 1,658표(11.2%)를 득표했다.²⁸⁾

2) 초대 증평군의회의원 증원선거

증평군의회의원선거는 의원정수 7인 중 괴산군의회에서 승계된 2인(엄대섭 · 연만흠) 제외한 5인을 선출하게 됐고, 선거구별 의원정수 산정에 따라 증평읍에서 4명, 도안면에서 1명을 각각 선출했다.



초대 증평군수 후보

■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 부칙 4조(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대한 특례)-증평군 설치로 인한 지방의회의원 및 증평군수의 선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35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 등과 동시에 실시한다.

27) 강신욱, 『증평, 자치시대를 맞기까지』, 푸른나라, 2004.



초대 증평군수
(유명 호)

28)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조서」.



초대 증평군의회의원
증원선거 후보자 선전벽보

29)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
효투표조서」.

30)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
효투표조서」.



초대 의회의장
(연 만 흠)



전반기 의회부의장
(박 인 석)



후반기 의회부의장
(김 재 룡)

(1) 증평읍선거구

선거인수 2만623명 중 1만3,428명이 투표해 65.1%의 투표율에 유효투표수는 1만3,134표(97.8%)였다. 개표 결과 후보자 23명 중 김선탁·김재룡·홍성열·박인석 등 4명의 후보가 당선됐다.

- 증평읍에서는 초대 군의원으로서 김선탁(1,236표) 김재룡(996표) 홍성열(899표) 박인석(821표)등 4명이 당선됐고, 이어 지영섭(691표) 이준호(644표) 이부희(643표) 엄병석(640표) 윤해명(625표) 채수일(573표) 주재의(546표) 연제관(544표) 최건성(503표) 연대흠(501표) 이남태(498표) 임태정(495표) 신형걸(471표) 연규영(404표) 이종영(359표) 박병건(330표) 마용록(254표) 전경열(242표) 신해영(219표) 순이다.²⁹⁾

(2) 도안면선거구

선거인수 2,531명 중 1,711명이 투표해 67.6%의 투표율에 유효투표수는 1,660표(97.0%)였다.

- 도안면에서 초대 군의원 당선자는 연규송(981표·59.1%)이고, 박준선은 679표(40.9%)를 득표했다.³⁰⁾

11. 증평군의회

1) 개원

증평군의회는 문화회관을 임시 개조해 1층에 의장실과 의회사무과, 2층에 특별위원회실, 전문의원실, 의원휴게실, 3층에 본회의장을 배치했다.

개원에 앞서 2003년 11월 7일(금) 오전 11시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에 연만흠 의원, 부의장에 박인석 의원이 선출됐고 오후 2시 1회 증평군의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개원식을 했다. 식은 연만흠 의장의 의원 선서, 개원사, 유명호 군수 축사, 이원종 충청북도지사 축하메시지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2) 연혁

- 2003. 8. 30 : 증평군 설치에 따라 괴산군 의회에서 의원 2명(증평읍1, 도안면1) 증평군 의회로 등록변경.
- 2003. 10. 30 : 증평군의회의원 증원선거 의원 5명(증평읍4, 도안면1) 선출.
- 2003. 11. 7 오전 : 초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의장 연만흠, 부의장 박인석).
- 2003. 11. 7 오후 : 증평군의회 개원.
- 2005. 11. 5 : 초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의장 연만흠, 부의장 김재룡).



제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3) 의회의 기능과 역할

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예산안·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에 대한 처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의 의결, 집행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3가지 역할(주민대표 기능), 〈자치입법 기능〉, 〈행정감사 기능〉을 수행했다.

● 집 회(회의)

회의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을 정해 활동하는 것으로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임시회와 정례회는 연간 80일 범위 안에서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개최한다.

●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조례는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 또는 의원이 제출·발의할 수 있으며, 제출·발의된 조례안은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 예산의 심의·의결과 결산검사

군민이 내는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한 해 동안의 군정 살림을 운영하는 것으로써, 군수가 편성, 의회에 제출해 군 의회에서 심의·의결하며, 결산은 예산집행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로서 회계연도가 끝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군정질문·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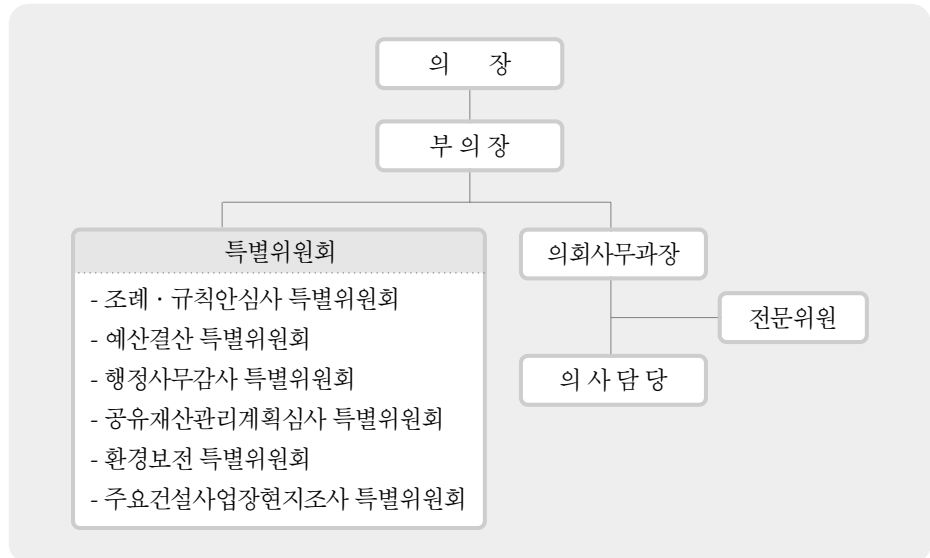
의회는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군정 전반에 걸친 추진상황에 대해 해마다 정례회의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특정 사안의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의회의원
〈홍성열〉의회의원
〈김선탁〉의회의원
〈엄대섭〉의회의원
〈연규송〉

● 청원의 처리

군민이 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며, 의회는 이를 심사한 후 군수가 처리할 사항이면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고, 군수는 이송된 청원에 대해 의회에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다.

4) 조직



5) 의원 및 직원현황

● 증평군의회의원 명단

직책	성명	연령	지역	득표수	직업
의장	연만흠(延晩欽)	1953.11.1	도안면	1,047표(58.2%)	축산업
부의장	전반기 박인석(朴仁錫)	1964.5.18	증평읍	821표(6.3%)	건축사
	후반기 김재룡(金在龍)	1960.2.22	증평읍	996표(7.5%)	회사원
의원	김선탍(金善鐸)	1957.4.22	증평읍	1,236표(9.4%)	건설업
	엄대섭(嚴大燮)	1962.6.03	증평읍	4,804표(50.6%)	자영업
	홍성열(洪性烈)	1954.7.26	증평읍	899표(6.8%)	회사원
	연규송(延圭松)	1955.9.15	도안면	981표(59.1%)	농업

■ 연만흠, 엄대섭의원은
2002년 6월 13일 괴산군의
회의원 선거시 득표수임.

● 지역구, 연령별

구분	지역구			연령별		직업별				
	계	증평읍	도안면	40대	30대	농·축산업	건설업	자영업	회사원	건축사
인원	7	5	2	4	3	2	1	1	2	1

● ● 의회 사무과 직원

구분	계	행정5급 (사무과장)	행정·토목5급 (전문위원)	행정 6급	행정 7급	행정 8급	기능직	비고
인원	11	1	1	1	2	1	5	상용인부 1명

6) 의회운영 및 특별위원회 구성

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는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0일, 2차 정례회는 12월 1일에 집회한다. 1차와 2차를 합해 35일 이내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의 집회공고는 집회일 5일전에 하며,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 그날이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소집하며,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한 총회의 일수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위원회는 조례·규칙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가사특별위원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를 구성해 총 217개의 의안을 처리했다.



증평군의회 의사 진행

7) 회기운영

1회 임시회는 2003년 11월 7일부터 2003년 11월 8일까지, 2회 임시회는 2003년 11월 12일부터 동년 11월 24일까지, 3회 정례회는 동년 12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4회 임시회는 2004년 2월 10일부터 동년 2월 16일까지, 5회 임시회는 4월 1일, 6회 임시회는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7회 임시회는 4월 17일, 8회 임시회는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회 정례회는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10회 임시회는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11회 임시회는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2회 임시회는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3회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14회 임시회는 2005년 1월 29일부터 동년 2월 5일까지, 15회 임시회는 4월 13일부터 동년 4월 20일까지, 16회 임시회는 2005년 5월 25일부터 동년 6월 8일까지 각각 개최했다.

제2절

제2절 국회의원선거



국회 로고

UN 한국위원단은 1948년 5월 10일 이내에 가능지역인 남한에서 총선거(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역사적인 제헌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됐다.

제헌국회의원선거는 미군정 당국이 선거의 준비와 집행을 담당하므로 선거에 적용된 국회의원선거법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선거법을 제정할 때까지 잠정적인 군정법령이다.

1. 초대(제헌) 국회의원선거



옛 국회의사당(부민관·현 서울시의회)

제1, 2대 국회의원
(연병호)

국회의원 선거권 나이는 국민으로서 만 21세 이상이고, 피선거권 나이는 만 25세 이상이다. 또 제헌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였다.

제헌국회의 의석수는 200석이었고, 선거 당시(이하 같음) 무소속이 85석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석, 한국민주당 29석, 대동청년단 12석, 조선민족청년단 6석,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2석, 대한노동총연맹 1석, 기타 10석이였다.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제헌국회의원선거는 좌익계와 남북협상파가 불참했으나 전체 선거인수 813만2,517명 가운데 선거인명부에 자진 등록한 유권자가 784만871명이고, 95.5%인 748만7,649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유효투표수는 721만6,942표(96.4%)였다. 이때 제주도는 치안관계로 선거가 1년간 연기돼 이듬해 5월 10일 실시됐다.³¹⁾

괴산군은 충북도내 전체 12개 선거구 가운데 8선거구에 속하고, 충북경찰청장을 지낸 입법의원의원(立法議院議員) 김영규(무소속·괴산면), 대한민국임시정부 선전부장을 지낸 연병호(무소속·도안면), 금융조합이사 차균택(대동청년단·불정면), 의사 정승화(대한독립촉성국민회·증평면) 등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이 가운데 김영규 후보가 사망하고, 차균택 후보가 사퇴해 선거는 연병호·정승화 등 두 후보의 맞대결로 펼쳐졌다.

- 괴산군의 제헌국회의원 당선자는 연병호(40,319표·77.5%)이고 정승화는 11,676표(22.5%)를 득표했다.³²⁾

31) 中央選舉管理委員會, 『大韓民國選舉史』, 1973.

32) 中央選舉管理委員會, 『歷代國會議員選舉狀況』;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관리」; 槐山郡誌編纂委員會, 『槐山郡誌』, 1990.

2. 제2대 국회의원선거

2년간의 임기로 선출된 제헌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2대 국회의원선거는 1950년 5월 30일 실시됐다. 전체 의석수 210석 가운데 무소속이 126석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고, 민주국민당과 대한국민당이 각각 24석, 국민회 14석, 대한청년단 10석, 대한노동총연맹과 일민구락부가 각각 3석, 사회당 2석, 민족자주연맹 1석, 기타 3석이었다.

괴산군은 충북도내 12개 선거구 가운데 8선거구에 속했고, 무려 18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제헌국회의원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연병호(대한국민당·도안면)를 비롯해 사법서사 최병승(58·무소속·괴산면), 제헌국회의원선거에 이어 두 번째 도전하는 의사 정승화(무소속·증평읍), 회사원 김의연(무소속·서울시 동대문구), 정치운동 경력을 지닌 경석조(무소속·청주시), 신문기자 출신 교원 김진구(대한국민당·서울시 성동구), 사회사업가 이규학(무소속·서울시 중구), 면장을 지낸 회사원 김희문(무소속·서울시 성동구), 교원을 지낸 신성철(무소속·괴산면), 농업인 김태웅(무소속·괴산면), 회사원 조종호(대한청년단·서울시 성동구), 변호사 주세창(무소속·서울시 용산구), 저술업 김장희(천도교·서울시 동대문구), 농업인 박원식(대한청년단·불정면), 연초경작 조합기사 출신 이하도(무소속·증평읍), 농업에 종사했던 심상렬(사회당·상모면), 금융이사 윤시영(무소속·서울시 성동구), 한의사 김문배(무소속·서울시 마포구) 등 역대 국회의원선거 중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했다. 유효투표수는 4만9,872표였다.

- 2대 국회의원 괴산군 당선자는 연병호(7,989표·재선)이고 후보자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경석조(7,178표) 김의연(5,385표) 주세창(3,637표) 정승화(3,531표) 박원식(3,258표) 윤시영(2,936표) 김희문(2,696표) 김문배(1,849표) 조종호(1,740표) 이하도(1,735표) 최병승(1,671표) 심상렬(1,634표) 김장희(1,607표) 이규학(1,272표) 신성철(1,190표) 김진구(564표).³³⁾

33) 中央選舉管理委員會, 『歷代國會議員選舉狀況』;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관리」; 槐山郡誌編纂委員會, 『槐山郡誌』, 1990.

3. 제3대 국회의원선거

3대 국회의원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여당인 자유당과 원내 1야당인 민주국민당이 각각 공천후보자를 추천한 입후보자 공천제가 처음 실시돼 정당정치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1952년 7월 7일의 1차 개정헌법에 따라 국회는 민의원(民議院)과 참의원(參



제3, 5, 6, 7대 국회의원
(안동준)

34) 中央選舉管理委員會, 『歷代國會議員選舉狀況』;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관리」; 槐山郡誌編纂委員會, 『槐山郡誌』, 1990.

議院)의 양원으로 구성하게 됐으나 전시중인 관계로 참의원은 구성되지 않은 채 1954년 5월 20일 3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됐다.

선거 결과 전체 의석수 203석 가운데 여당인 자유당이 과반수인 114석을 차지했고, 무소속 68석, 민주국민당 15석, 국민회와 대한국민당 각각 3석이었다.

충북도내 12개 선거구 가운데 8선거구인 괴산군은 재선의원 연병호(무소속·도안면)를 비롯해 육군대령 출신 안동준(자유당·감물면), 판사 출신 변호사 김사만(무소속·부산시 초량동), 2대 선거에 이어 재도전한 불정면의회 의원 출신 박원식(자유당·불정면) 등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유효투표수는 5만2,740표였다.

선거 결과 35세의 안동준 후보가 3선에 도전한 연병호 후보 등을 제치고 국회에 입성했다.

- 3대 국회의원 괴산군 당선자는 안동준(30,451표·57.7%)이고 후보자별 득표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병호(10,250표·19.5%) 김사만(9,144표·17.3%) 박원식(2,895표·5.5%)³⁴⁾

4. 제4대 국회의원선거

1958년 5월 2일 실시된 4대 국회의원선거는 1960년 6월 15일 3차 개정헌법 부칙 4조의 규정에 의해 임기가 기존 4년에서 2년 1월 28일로 줄었다.

선거 결과 전체 의석수 233석 가운데 여당인 자유당이 과반수인 126석을 차지했고, 민주당 79석, 무소속 27석, 통일당 1석이었다.

여당은 농촌과 소도시에서 강세를 보였고, 야당인 민주당은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우세를 보였다. 5·2총선은 자유당과 민주당의 양대 정당 구도가 뚜렷해지는 등 군소정당과 무소속의 진출이 크게 줄었다.

충북도내 13개 선거구 가운데 9선거구인 괴산군은 3대 의원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던 안동준(종로구·서울시 종로구)과 농림부·내무부 차관 등을 지낸 김원태(종로구·서울시 종로구)가 자유당 공천을 놓고 경합을 벌였으나, 자유당은 공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괴산을 자유당 무공천지구로 정해 둘이 자유당 당적을 갖고 입후보하고, 다른 정당은 후보자를 내지 않아 둘이 맞대결을 펼쳤다. 유효투표수는 5만9,745표였다.

- 4대 국회의원 괴산군 당선자는 김원태(33,411표·55.9%)이고, 안동준은 26,334표(44.1%)를 득표했다.³⁵⁾



제4, 8대 국회의원
(김원태)

35) 中央選舉管理委員會, 『歷代國會議員選舉狀況』;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관리」; 槐山郡誌編纂委員會, 『槐山郡誌』, 1990.

5. 제5대 국회의원선거

1) 본선거

5대 국회의원선거는 1960년 3월 15일 실시한 정·부통령선거가 부정선거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4·19혁명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2공화국의 과도정부는 1960년 7월 29일 민의원의원(民議院議員)선거와 참의원의원(參議院議員)선거를 처음으로 함께 실시했다. 또 선거권의 나이를 21세에서 20세로 낮추었다.

민의원의원선거 결과 전체 의석수 233석 가운데 민주당이 과반수인 175석을 차지했고, 무소속 49석, 사회대중당 4석, 자유당 2석, 한국사회당 1석, 통일당 1석, 기타 1석이었다.

참의원의원선거는 전체 의석수 58석 가운데 민주당 31석, 무소속 20석, 자유당 4석, 사회대중당 1석, 한국사회당 1석, 기타 1석이었다.

민의원선거에서 충청도내 13개 선거구 가운데 9선거구인 괴산군은 3대 민의원을 지낸 안동준(무소속·서울시 동대문구)을 비롯해 광복군주미변사처위원을 지낸 심상렬(무소속·서울시 종로구), 민주당창당발기인으로 참여한 이화중(무소속·충평읍), 삼화실업(주) 사장 김기탁(무소속·서울시 종로구), 변호사 김사만(민주당·서울시 용산구), 4대 민의원 김원태(무소속·서울시 종로구) 등 6명이 입후보했다. 개표 도중 김사만 후보가 후보를 사퇴해 최종 5명이 됐고, 개표 중 투표함의 파괴·소각 등의 불상사가 발생해 일부 지역의 재선거를 실시한 결과 안동준 후보가 유효투표수 4만8,635표의 48.0%를 얻어 당선됐다. 또 참의원선거에서는 충북에서 모두 4명이 당선됐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 5대 국회의원 괴산군 당선자는 안동준(23,332표·48.0%)이고, 후보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김원태(10,244표·21.1%) 김기탁(10,013표·20.6%) 이화중(2,846표·5.8%) 심상렬(2,200표·4.5%)³⁶⁾

2) 보궐선거

안동준 당선자가 국회공민권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에 의한 의원 자격상실로 당선무효가 돼 1961년 5월 13일 보궐선거가 실시됐다.

보궐선거에는 이현복(신민당), 안길준(무소속), 김사만(민주당), 고계명(민

36) 中央選舉管理委員會, 『歷代國會議員選舉狀況』;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관리」; 槐山郡誌編纂委員會, 『槐山郡誌』, 1990.

제5대 국회의원
〈김 사 만〉

37)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관리』;
槐山郡誌編纂委員會,『槐
山郡誌』, 1990.; 『조선일
보』1961. 5. 13.

제6대 국회의원
〈안 동 준〉

주당) 등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선거 결과 변호사인 김사만이 당선됐으나, 5월 16일 군사군사혁명이 일어나 군사혁명위원회의 포고령 4호에 의해 국회가 해산되는 헌정 중단사태로 국회에 입성하지도 못하는 불운을 겪었다.

- 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괴산군 당선자는 김사만(23,100표 · 47.3%)이고, 후보자 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안길준(12,101표 · 24.8%) 이현복(7,745표 · 15.8%) 고계명(5,943표 · 12.1%)³⁷⁾

6. 제6대 국회의원선거

5대 국회는 1961년 5월 16일 군사군사혁명에 의해 임기개시 9개월여만에 해산됐다. 당시 군사혁명정부는 1963년에 민정 이양을 위해 내각책임제의 권력구조를 대통령 중심제로 하고, 정당정치를 구현하는 헌법개정안을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시키고 같은 해 12월 26일 개정헌법을 공포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개정헌법 부칙 2조의 규정에 의해 1963년 10월 15일 5대 대통령선거를, 그해 11월 26일 국회의원선거를 각각 실시했다. 이에 앞서 1월 16일 국회의원선거법(법률 1256호)이 제정·공포됐다.

6대 국회의원선거는 우리나라 선거사상 처음으로 선거구를 지역구와 전국구(비례대표)의 2종으로 하고, 1인 1표로 지역구와 전국구 후보자를 동시에 선택했다. 또 후보자 추천방식을 무소속 입후보가 허용되지 않고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는 정당추천제로 했다.

선거 결과 지역구 131석과 전국구 44석 등 전체 의석수 175석 가운데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62.8%인 110석(전국구 22석 포함·이하 같음)을 차지했고, 민정당 41석(14석), 민주당 13석(5석), 자유민주당 9석(3석), 국민의당 2석이 었다.

충북의 경우 5대 선거까지의 각 시·군 단위별 선거구가 6대 선거부터는 충주·중원, 보은·옥천, 진천·음성, 제천·단양이 같은 지역구로 묶여 13개 선거구에서 8개 선거구로 축소됐으나, 괴산군은 여전히 한 선거구로 남아 충북의 5선거구가 됐다.

후보자 등록 결과 5대 선거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도 국회 해산으로 의정단상에 서지 못했던 김사만(자유민주당·서울시 동대문구), 전국금융노조한국상업은행 시금고과분회장을 지낸 연양희(국민의당·서울시 서대문구), 협동신문 사장을 지낸 김덕성(보수당·서울시 용산구), 5대 선거에 낙선한 심상렬(민정당·서울시 종로구), 3대와 5대 의원을 지낸 안동준(민주공화당·서울

시 성동구) 등 5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전체 선거인수 7만2,607명 중 5만6,779명이 투표해 78.2%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유효투표수는 96.5%인 5만4,770표였다. 개표 결과 전국구 정당별 득표를 제외한 후보자 5명의 전체 득표수는 4만7,946표였고, 안동준 후보가 당선돼 3선 의원이 됐다.

중평읍과 도안면은 선거인수 1만4,744명 중 72.7%인 1만721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1만284표(95.9%)였다.

- 6대 국회의원 괴산군 당선자는 안동준(20,384표 · 42.5%)이고 후보자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김사만(19,717표 · 41.1%) 심상렬(3,948표 · 8.2%) 연양희(3,221표 · 6.7%) 김덕성(676표 · 1.4%)³⁸⁾

38) 中央選舉管理委員會, 『歷代國會議員選舉狀況』;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관리」; 槐山郡誌編纂委員會, 『槐山郡誌』, 1990.

7. 제7대 국회의원선거

7대 국회의원선거는 1967년 6월 8일 실시됐다.

민주공화당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 7대 총선을 앞두고 국내 · 외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해 5월 3일 실시된 6대 대선의 압승을 거둔 여세를 몰아 국민소득 증가와 주택 100만호 신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반면에 신민당은 민주주의 확립, 독재 · 부패 추방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선거 결과 지역구 131석과 전국구 44석 등 전체 의석수 175석 가운데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73.7%인 129석(전국구 27석 포함 · 이하 같음)을 차지, 6대 선거 때보다 19석이 늘었고, 신민당 45석(17석), 대중당 1석이었다.

충북도내 8개 선거구 가운데 5선거구인 괴산군은 3선 의원인 안동준(민주공화당 · 서울시 종로구), 네 번째 출마한 김사만(신민당 · 서울시 동대문구), 민중당 5지구당 상임위원장을 지낸 김상문(한국독립당 · 연풍면) 등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전체 선거인수 7만3,728명 중 6만6,043명이 투표해 89.5%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유효투표수는 96.9%인 6만4,003표였다. 개표 결과 전국구 정당별 득표를 제외한 후보자 3명의 전체 득표수는 5만8,478표였고, 안동준 후보가 당선돼 4선 의원이 됐다.

중평읍과 도안면은 선거인수 1만4,213명 중 85.9%인 1만2,204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1만1,885표(97.4%)였다.

- 7대 국회의원 괴산군 당선자는 안동준(35,226표 · 60.3%)이고, 후보자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김사만(21,539표 · 36.8%) 김상문(1,713표 · 2.9%)³⁹⁾



제3, 5, 6, 7대 국회의원
(안동준)

39) 中央選舉管理委員會, 『歷代國會議員選舉狀況』;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관리」; 槐山郡誌編纂委員會, 『槐山郡誌』, 1990.

8. 제8대 국회의원선거

제8대 국회의원선거는 1971년 5월 25일 실시됐다.

민주공화당은 그해 4월 27일 대통령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여세를 몰아 총선 체제로 바꾸고, 신민당은 대선 패배를 교훈삼아 대선 결과가 좋지 않은 일부 지역구에 대한 공천자를 교체했다.

선거 결과 지역구 153석과 전국구 51석 등 전체 의석수 204석 가운데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55.4%인 113석(전국구 27석 포함·이하 같음)을 차지, 7대 선거 때보다 의석수가 줄었고, 전체 의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8.3%포인트나 낮아졌다. 이 밖에 신민당이 89석(24석), 국민당과 민중당이 각각 1석을 차지, 민주공화당과 신민당의 양당 체제가 구축되고, 군소정당은 거의 소멸됐다. 8대 국회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1년 3개월여 만에 해산됐다.

충북도내 8개 선거구 가운데 5선거구인 괴산군은 4대 의원과 무임소장관을 지낸 김원태(민주공화당·괴산면), 신민당 충북 5지구 당위원장 김태욱(신민당·문광면), 국민당 충북 5지구 당위원장 채영만(국민당·채영만) 등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전체 선거인수 6만8,765명 중 5만6,955명이 투표해 82.8%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유효투표수는 98.1%인 5만5,862표였다. 개표 결과 대중당(536표), 민중당(648표), 통일사회당(931표) 등 전국구 정당별 득표(2,115표)를 제외한 후보자 3명의 전체 득표수는 5만3,747표였고, 김원태 후보가 당선됐다.

증평읍과 도안면은 선거인수 1만4,701명 중 75.0%인 1만1,020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1만858표(98.5%)였다.

- 8대 국회의원 괴산군 당선자는 김원태(37,294표·69.4%)이고, 김태욱은 11,712표(21.8%), 채영만은 4,741표(8.8%)를 득표했다.⁴⁰⁾

9. 제9대 국회의원선거

이른바 ‘유신헌법’으로 불린 7차 개정헌법이 1972년 10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그해 10월 17일 이후 중단됐던 정치활동이 재개됐다.

1973년 2월 27일 실시된 9대 국회의원선거는 선거법이 일부 개정돼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었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직능대표, 이른바 유신헌법회의위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또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은 6년,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한 의원은 3년으로 임기가 달랐다.

40) 中央選舉管理委員會, 『歷代國會議員選舉狀況』;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관리」; 槐山郡誌編纂委員會, 『槐山郡誌』, 1990.

선거 결과 전체 의석수 219석 가운데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73석을 차지했고, 신민당 52석, 무소속 19석, 민주통일당 2석, 유신정우회 73석이었다.

선거구 개정에 따라 충북은 8개 선거구에서 4개 선거구로 축소됐고, 괴산군은 진천군·음성군과 함께 충북 4선거구가 됐다.

괴산군에서 4·8대 의원과 무임소장관을 지낸 김원태(민주공화당·서울시 서대문구), 진천군에서 2·3·5·6대 의원을 지낸 변호사 이충환(신민당·서울시 성북구), (사)4·19회 상근부회장 오성섭(민주통일당·음성군 맹동면), 괴산군에서 3·5·6·7대 의원을 지낸 안동준(무소속·서울시 영등포구) 등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전체 선거인수 15만9,702명(괴산군 6만8,636명, 진천군 3만7,305명, 음성군 5만3,761명) 중 12만3,317명이 투표해 77.2%의 투표율을 기했고, 이 가운데 유효투표수는 98.2%인 12만1,071표였다. 개표 결과 이충환·김원태 후보가 1·2위로 당선됐다.

괴산군은 선거인수 6만8,636명 중 81.7%인 5만6,075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5만4,865표(97.8%)였다. 또 증평읍과 도안면은 선거인수 1만4,867명 중 71.8%인 1만670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1만530표(98.7%)였다.

- 9대국회의원 괴산군·진천군·음성군 당선자는 이충환(47,760표·39.5%)과 김원태(40,932표·33.8%)이고, 안동준은 24,093표(19.9%), 오성섭은 8,286표(6.8%)를 득표했다.
- 괴산군 후보자별 득표는 김원태 21,621표(39.4%), 안동준 15,684표(28.6%), 이충환 14,655표(26.7%), 오성섭 2,905표(5.3%) 순이다.
- 증평읍·도안면 후보자별 득표는 김원태 3,980표(37.8%), 이충환 3,761표(35.7%), 안동준 2,132표(20.3%), 오성섭 657표(6.2%)이다.⁴¹⁾

10. 제1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국회의원선거는 1978년 12월 12일 실시됐다.

10대 총선은 무소속 후보가 전례없이 많이 출마했고, 정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 간에 정책적인 쟁점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다. 선거법의 엄격한 규제로 선거운동이 음성화하는 경향을 띠고, 금권과 타락의 시비가 있었다.

선거 결과 전체 의석수 231석 가운데 여당인 민주공화당 68석, 신민당 61석, 무소속 22석, 민주통일당 3석, 유신정우회 77석으로, 여당이 1야당인 신민당을 근소한 의석수로 이겼으나, 득표율은 신민당이 32.8%로 31.7%에 그친 민주공화당보다 높아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여당의 득표율을 앞지르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9대 국회의원
(이충환)

41)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관리」; 槐山郡誌編纂委員會, 『槐山郡誌』, 1990; 中央選舉管理委員會, 『大韓民國選舉史』第2輯, 1974.



제10대 국회의원
(오용운)

9대에 이어 괴산군·진천군·음성군이 충북의 4선거구에 속했다.

육군 소장으로 예편해 철도청장과 충청북도지사를 지낸 오용운(민주공화당·증평읍), 5선 의원인 이충환(신민당·서울시 도봉구), 8대 선거에서 낙선한 채영만(민주통일당·증평읍), 4선 의원인 안동준(무소속·서울시 관악구) 등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전체 선거인수 16만1,473명(괴산군 6만9,299명, 진천군 3만7,758명, 음성군 5만4,416명) 중 13만5,794명이 투표해 84.1%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유효투표수는 98.2%인 13만3,332표였다. 개표 결과 오용운 후보가 첫 도전에 성공했고, 이충환 후보가 6선 의원이 됐다.

괴산군은 선거인수 6만9,299명 중 85.8%인 5만9,454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5만8,459표(98.3%)였다. 또 증평읍과 도안면은 선거인수 1만6,615명 중 77.4%인 1만2,853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1만2,691표(98.7%)였다.

- 제10대 국회의원 괴산군·진천군·음성군 당선자는 오용운(57,103표·42.8%)과 이충환(40,058표·30.0%)이고, 안동준은 24,361표(18.3%), 채영만은 11,810표(8.9%)를 득표했다
- 괴산군 후보자별 득표는 오용운 22,272표(38.1%), 안동준 15,277표(26.1%), 이충환 14,283표(24.4%), 채영만 6,627표(11.4%)이다.
- 증평읍·도안면 후보자별 득표는 오용운 5,621표(44.3%), 이충환 3,676표(29.0%), 안동준 1,992표(15.7%), 채영만 1,402표(11.0%)이다.⁴²⁾

42)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관리」; 槐山郡誌編纂委員會, 『槐山郡誌』, 1990.; 中央選舉管理委員會, 『大韓民國選舉史』第3輯, 1980.

11. 제11대 국회의원선거

1979년 10·26사태와 12·12사태, 1980년 5·18광주민중화운동의 혼란 속에서 10월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에 따라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해 전두환 후보가 12대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어 1981년 3월 25일 1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됐다.

제11대 총선은 국회의원선거 개정에 따라 선거구가 92개 지역구로 나뉘고, 유효회의원 대신 정당별 득표에 따른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바뀌어 전국구 의원 92명이 선출됐다.

선거 결과 전국구 92석을 포함해 전체 의석수 276석 가운데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151석(전국구 61석 포함·이하 같음)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고, 민주한국당 82석(24석), 한국국민당 25석(7석), 무소속 10석, 민권당·신정당·민주사회당 각각 2석, 민주농민당·안민당 각각 1석이었다.

11대 대선은 그동안 보편적으로 간주돼 왔던 야촌여도(輿村野都) 현상이 크게 퇴조했다.

충북 4선거구에 속한 괴산군·진천군·음성군에서는 청소년교화연합회 사무총장 김래동(원일민립당·서울시 관악구), 신민당 지구당부위원장을 지낸 김형순(민권당·음성군), 약사회장 김완태(한국국민당·음성군), 학교법인 삼우재단 이사장 허탁(민주한국당·음성군),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한 유신정우회 소속으로 10대 국회에 진출한 안갑준(민주정의당·증평읍), 원양개발공사(주) 이사인 공인회계사 김년태(무소속·감물면) 등 6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전체 선거인수 15만8,123명(괴산군 6만5,960명, 진천군 3만7,429명, 음성군 5만4,734명) 중 13만6,843명이 투표해 86.5%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유효투표수는 98.7%인 13만5,074표였다. 선거 결과 안갑준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고, 김완태 후보가 국회에 첫 입성하게 됐다.

또 충청북도지사를 지낸 김종호씨가 전국구 의원으로 처음 국회의원 뺑지를 달았다.

괴산군은 선거인수 6만5,960명 중 93.6%인 6만1,761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6만932표(98.7%)였다. 또 증평읍과 도안면은 선거인수 1만7,266명 중 82.5%인 1만4,247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1만4,074표(98.8%)였다.

- 11대 국회의원 괴산군·진천군·음성군 당선자는 안갑준(43,994표·32.6%)과 김완태(37,845표·28.0%)이고, 후보자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김년태(23,829표·17.6%) 허탁(18,943표·14.0%) 김래동(5,523표·4.1%) 김형순(4,940표·3.7%)
- 괴산군 후보자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안갑준(23,519표·38.6%) 김년태(17,450표·28.6%) 김완태(9,275표·15.2%) 허탁(5,786표·9.5%) 김래동(2,485표·4.1%) 김형순(2,417표·4.0%)
- 증평읍·도안면 후보자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안갑준(5,229표·37.1%) 김년태(2,770표·19.7%) 김완태(2,661표·18.9%) 허탁(1,571표·11.2%) 김래동(1,030표·7.3%) 김형순(813표·5.8%)⁴³⁾

12. 제12대 국회의원선거

12대 국회의원선거는 반독재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1985년 2월 12일 실시됐다. 이 선거에서는 정쟁법에 묶여 있던 구정치인들이 선거전에 일부 해금돼 정치활동을 재개, 신·구 세력이 경합을 벌였다. 더구나 야당과 재야세력은 합심해 민주화를 주장하는 등 자유분방한 유세로 선거 열기는 더욱 뜨거웠다.

12대 총선은 11대 선거 때와 같은 선출 방식으로 실시됐고, 역시 비례대표 92명을 포함해 276명의 의원이 선출됐다.



제11대 국회의원
(안갑준)



제11, 12대 국회의원
(김완태)

43)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관리」; 槐山郡誌編纂委員會, 『槐山郡誌』, 1990.; 中央選舉管理委員會, 『大韓民國選舉史』第2輯, 1974.



제12대 국회의원
(김종호)

선거 결과 후보 공천을 낸 9개 정당 가운데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148석(전국구 61석 포함·이하 같음)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또 신한민주당 67석(17석), 민주한국당 35석(9석), 한국국민당 20석(5석), 신정사회당·신민주당 각각 1석, 무소속 4석이었고, 민권당·자유민족당·근로농민당은 단 1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충북 4선거구에 속한 괴산군·진천군·음성군에서는 11대 의원을 지낸 김완태(한국국민당·음성군), 1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던 김종호(민주정의당·증평읍), (사)4·19회 상임부회장을 지내고, 9대 총선에 출마했던 오성섭(민주한국당·음성군), 제일산업공사 회장인 서광렬(신한민주당·서울시 강남구) 등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전체 선거인수 15만9,761명(괴산군 6만6,687명, 진천군 3만7,846명, 음성군 5만5,228명) 중 14만5,432명이 투표해 91.0%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유효투표수는 98.3%인 14만2,937표였다. 개표 결과 김종호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67.0%로 전국 최고 득표율로 당선되고, 김완태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괴산군은 선거인수 6만6,687명 중 99.9%인 6만6,617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6만5,590표(98.5%)였다. 또 증평읍과 도안면은 선거인수 1만8,923명 중 88.5%인 1만6,745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1만6,490표(98.5%)였다.

- 12대 국회의원 괴산군·진천군·음성군 당선자는 김종호(95,781표·67.0%)와 김완태(35,320표·24.7%)이고, 오성섭은 7,169표(5.0%), 서광렬은 4,667표(3.3%)를 득표했다.
- 괴산군 후보자별 득표는 김종호 50,254표(76.6%), 김완태 10,511표(16.0%), 오성섭 서광렬 1,911표(2.9%)이다.
- 증평읍·도안면 후보자별 득표는 김종호 12,044표(73.0%), 김완태 2,664표(16.2%), 오성섭 1,154표(7.0%), 서광렬 628표(3.8%)이다.⁴⁴⁾

44)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관리」; 槐山郡誌編纂委員會, 『槐山郡誌』, 1990.; 中央選舉管理委員會, 『제12대 국회의원선거총람』第2輯, 1985.



제13대 국회의원
(김종호)

13. 제13대 국회의원선거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13대 국회의원선거는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으로 그 동안의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선거구는 전국 224개로 늘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75석으로 줄었다. 전체 의석수는 12대 276석(전국구 92석 포함)에서 299석(전국구 75석)으로 늘었다.

충청북도도 기존 4개 선거구에서 9개 선거구로 늘어났고, 괴산군은 단일 선거구가 됐다.

선거 결과 민주정의당이 125석(전국구 38석 포함·이하 같음)을 차지했고, 평화민주당 70석(16석), 통일민주당 59석(13석), 신민주공화당 35석(8석), 무

소속 9석, 한겨레민주당 1석으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데 실패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됐다.

괴산군선거구에서는 재선 의원인 김종호(민주정의당·증평읍)와 전국대총학생회장 출신의 고경수(신민주공화당·연풍면) 등 두 후보가 맞대결을 펼쳤다.

전체 선거인수 6만3,366명 중 5만6,197명이 투표해 88.7%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이 가운데 유효투표수는 98.4%인 5만5,281표였다. 개표 결과 김종호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68.4%를 얻어 3선 의원이 됐다.

증평읍과 도안면은 선거인수 1만9,349명 중 84.4%인 1만6,321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1만6,060표(98.4%)였다.

- 13대 국회의원 괴산군 당선자는 김종호(37,830표·68.4%)이고, 고경수는 17,451표(31.6%)를 득표했다.⁴⁵⁾

45)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관리」; 槐山郡誌編纂委員會, 『槐山郡誌』, 1990.

14. 제14대 국회의원선거

1992년 3월 24일 실시된 14대 국회의원선거는 전체 의석수가 13대 때와 같은 299석이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는 75석에서 62석으로 줄었다.

선거 결과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3당 합당으로 탄생한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149석(전국구 33석 포함·이하 같음)으로 과반 의석에 1석이 모자랐고, 평화민주당과 신민주연합당이 통합한 민주당 97석(22석), 통일국민당 31석(7석), 무소속 21석, 신정치개혁당 1석이었다.

괴산군에서는 3선 의원인 김종호(민주자유당·증평읍), 증권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김동관(민주당·괴산읍), 13대에 이어 재도전에 나선 고경수(통일국민당·연풍면) 등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전체 선거인수 5만8,979명 중 4만7,626명이 투표해 80.8%의 투표율로 이 중 유효투표수는 98.3%인 4만6,820표였다. 개표 결과 김종호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63.9%를 얻어 4선 의원에 등극했다.

증평읍과 도안면은 선거인수 1만8,719명 중 81.7%인 1만5,294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1만5,107표(98.8%)였다.

- 14대 국회의원 괴산군 당선자는 김종호(29,897표·63.9%)이고, 김동관 14,861표(31.7%), 고경수 2,062표(4.4%)이다.
- 증평읍·도안면 후보자별 득표는 김종호 9,714표(64.3%), 김동관 4,592표(30.4%), 고경수 801표(5.3%)이다.⁴⁶⁾



제14대 국회의원
(김종호)

4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15.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제15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전벽보

1996년 4월 11일 실시된 15대 국회의원선거는 처음으로 선거일이 법정화 됐다. 이 때부터 국회의원 선거가 4월 둘째주 목요일에 실시됐다.

전체 의석수는 13·14대와 같은 299석이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는 46석으로 줄었다.

선거 결과 신한국당 139석(전국구 18석 포함·이하 같음), 새정치국민회의 79석(13석), 자유민주연합 50석(9석), 무소속 16석, 통합민주당 15석(6석)으로, 여당인 신한국당의 의석수가 전체 의석수의 46.5%

에 그쳐 13·14대에 이어 또다시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여소야대의 정국이 이어졌다.

괴산군에서는 4선 의원인 김종호(신한국당·증평읍), 세 번째 출마하는 고경수(새정치국민회의·연풍면), 11대 선거에 출마했던 김년태(통합민주당·감물면), 한보철강 사장을 지내고 두 번째 도전하는 김동관(자유민주연합·괴산읍), 1995년 초대 민선 괴산군수선거에 출마했던 황일성(무소속·증평읍) 등 5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였다.

전체 선거인수 5만9,081명 중 4만4,196명이 투표해 74.8%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유효투표수는 95.4%인 4만2,150표였다. 개표 결과 김종호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53.6%를 얻어 5선 의원에 당선됐다.

증평읍과 도안면은 선거인수 2만1,922명 중 71.4%인 1만5,655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1만5,161표(96.8%)였다.

- 15대 국회의원 괴산군 당선자는 김종호(22,584표·53.6%)이고, 후보자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김동관(11,421표·27.1%) 황일성(4,097표·9.7%) 김년태(2,103표·5.0%) 고경수(1,945표·4.6%) 순이다.
- 증평읍·도안면 후보자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김종호(7,106표·46.9%) 김동관(4,124표·27.2%) 황일성(2,666표·17.6%) 고경수(752표·4.9%) 김년태(513표·3.4%) 순이다.⁴⁷⁾

4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16. 제16대 국회의원선거

2000년 4월 13일 실시된 16대 국회의원선거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 상·하한선을 9만~35만명으로 결정함에 따라 충북도내에서는 괴산선거구가 진천·음성선거구와 통합, 충북도내 의석수는 8석에서 7석으로 줄었다.

16대 총선에서는 현행법상 후보자 등을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민단체 등의 선거운동이 허용됐고, 후보자 전과기록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면 공개되는 등 선거운동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선거 결과 전국구 46석을 포함해 전체 의석수 273석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이 115석, 한나라당 133석, 자유민주연합 17석, 민국당 2석, 한국신당 1석, 무소속 5석으로, 13대 선거 때부터의 여소야대 정국이 계속됐다.

괴산군과 진천군, 음성군이 한 선거구로 통합됨에 따라 괴산의 김종호 의원(5선)과 진천·음성의 정우택 의원(초선) 간의 자유민주연합 공천이 최대 관심사가 됐다. 자민련 중앙당에서 정우택 의원을 공천함으로써 김종호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 6선에 등극해 부의장에 선출됐다.

괴산군·진천군·음성군선거구에서는 변호사인 이충범(한나라당·음성군), 육군대장 출신 김진선(민주당·괴산읍), 현 의원인 정우택(자유민주연합·진천군), 약사인 장병수(민국당·음성군) 등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전체 선거인수 16만2,917명 중 10만2,474명이 투표해 62.9%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유효투표수는 98.5%인 10만934표였다. 개표 결과 정우택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36.2%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괴산군은 선거인수 5만7,749명 중 65.0%인 3만7,558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3만6,930표(98.3%)였다. 또 증평읍과 도안면은 선거인수 2만2,196명 중 57.2%인 1만2,691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1만2,532표(98.7%)였다.

- 16대 국회의원 괴산군·진천군·음성군 당선자는 정우택(36,505표·36.2%)이고, 후보자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김진선(35,168표·34.8%) 이충범(26,771표·26.5%) 장병수(2,490표·2.5%)
- 괴산군 후보자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김진선(20,785표·56.3%) 정우택(9,390표·25.4%) 이충범(5,818표·15.8%) 장병수(937표·2.5%)
- 증평읍·도안면 후보자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김진선(5,876표·46.9%) 정우택(3,698표·29.5%) 이충범(2,643표·21.1%) 장병수(315표·2.5%)⁴⁸⁾

17. 제17대 국회의원선거

17대 국회의원선거는 2004년 3월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등 탄핵정국의 후폭풍 속에 4월 15일 실시됐다.

17대 총선에서는 정치개혁법이 국회를 통과,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최고액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도



제16대 국회의원
(정 우 택)

4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탄핵소추안 현재 선고판결
모습 (헌법재판소 내)



제17대 국회의원
(김 종 루)

4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높은 단속이 펼쳐졌다. 또 합동연설회 등 집회방식의 선거운동과 지구당의 폐지 등으로 깨끗한 선거풍토가 조성됐다.

선거 결과 전국구 56석을 포함해 전체 의석수 299석 가운데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52석(전국구 23석 포함·이하 같음), 한나라당 121석(21석), 민주노동당 10석(8석), 새천년민주당 9석(4석), 자유민주연합 4석, 국민통합21 1석, 무소속 2석으로,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고,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이

약진했다.

또 충청북도에서는 여당인 열린우리당 후보가 8개 지역구 전체를 석권하고, 전국구 당선자 1명을 배출하는 등 여당이 초강세를 보였다.

증평군이 2003년 8월 30일 괴산군에서 분리됨에 따라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의 4개 군이 한 선거구가 됐다.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선거구에서는 재선 의원인 정우택(자유민주연합·진천군), 서울지하철공사 이사인 오성섭(한나라당·음성군), 변호사인 김종률(열린우리당·음성군) 등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전체 선거인수 16만2,803명 중 9만1,460명이 투표해 56.2%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유효투표수는 98.0%인 8만9,616표였다. 개표 결과 김종률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47.6%를 얻어 국회에 첫 입성했다.

증평군은 선거인수 2만2,786명 중 54.4%인 1만2,399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1만2,205표(98.4%)였다. 또 괴산군은 선거인수 3만2,772명 중 59.4%인 1만9,475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1만8,952표(97.3%)였다.

- 17대 국회의원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당선자는 김종률(42,617표·47.6%)이고, 정우택은 36,543표(40.8%), 오성섭은 10,456표(11.7%)를 득표했다.
- 증평군 후보자별 득표는 정우택 6,325표(51.8%), 김종률 4,925표(40.4%), 오성섭 955표(7.8%) 순이다
- 괴산군 후보자별 득표는 김종률 9,585표(50.6%), 정우택 6,345표(33.5%), 오성섭 3,022표(15.9%) 순이다.⁴⁹⁾

제3절 대통령선거

제3절

1. 제1대 대통령선거

제헌국회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확정· 공포됨에 따라 헌법 53조에 의거, 1948년 7월 20일 초대 대통령선거를 실시했다.

선거는 국회 재석의원 198명 가운데 재석의원 196명이 무기명으로 투표했고, 그 결과 유효투표수 195표 중 이승만 180표, 김구 13표, 안재홍 2표를 각각 얻어 전체 유효투표수의 92.3%를 획득한 이승만 후보가 당선됐다.

2. 제2대 대통령선거

초대 대통령선거가 국회 간접선거에 의해 실시됐으나, 2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국회는 반 이승만 세력이 득세하면서 국회 간접선거를 통한 이승만 정권의 재집권이 불투명했다.

한국전쟁중인 1952년 국회와 정부가 정면 대결하는 ‘정치파동’이 일어나고, 정부안과 야당안을 발췌해 절충한 이른바 ‘발췌개헌’인 정·부통령선거법이 그 해 7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2대 대선은 1952년 8월 5일 국민 직접선거로 치러졌다.

후보는 대통령 이승만(자유당)을 비롯해 이시영(무소속), 조봉암(무소속), 신흥우(무소속) 등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전체 선거인수 825만9,428명 가운데 727만5,883명이 투표해 88.1%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유효투표수는 96.5%인 702만684표였다.

괴산군은 선거인수 6만274명 중 91.1%인 5만4,913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5만3,835표(98.0%)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장면

- 2대 대통령 당선자는 이승만(5,238,769표 · 74.6%)이고, 후보자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조봉암(797,504표 · 11.4%) 이시영(764,715표 · 10.9%) 신흥우(219,696표 · 3.1%)
- 괴산군 후보자별 득표는 이승만 49,542표(92.0%), 조봉암 1,733표(3.2%), 이시영 1,669표(3.1%), 신흥우 891표(1.7%)이다.⁵⁰⁾

50)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선거관리」, 槐山郡誌編纂委員會, 『槐山郡誌』, 1990.

3. 제3대 대통령선거

정부는 1954년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제출하고, 이른바 ‘4사5입 개헌’으로 국회를 통과해 이승만 정권의 영구집권의 길을 열었다.

3대 대선은 1956년 5월 15일 실시되고, 이승만(자유당), 조봉암(무소속), 신익희(민주당) 등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선거가 중반에 접어든 5월 5일 신익희 후보가 호남지방 유세 도중 사망하고, 이승만 후보가 당선됐다.

전체 선거인수 960만6,870명 가운데 906만7,063명이 투표해 94.4%의 투표율을 보였고, 유효투표수는 79.5%인 721만245표였다.

괴산군은 선거인수 6만2,540명 중 95.7%인 5만9,867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5만182표(83.8%)였다.

- 3대 대통령 당선자는 이승만(5,046,437표 · 70.0%)이고, 조봉암(2,163,808표)은 30.0%를 득표했다.
- 괴산군 후보자별 득표는 이승만 43,253표(86.2%), 조봉암 6,929표(13.8%)이다.⁵¹⁾

4. 제4대 대통령선거

1) 직접선거

자유당은 1958년 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으나, 민주당의 약진으로 개헌선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4대 대통령선거에 자유당은 이승만을, 민주당은 조병옥을, 노동당은 군소정당 일부를 흡수해 민족주의민주사회당으로 개칭하고 전진한을 후보로 각각 지명했다.

선거운동이 무르익으면서 자유당은 모든 집회가 사전 신고·허가제로 돼 있는 점을 악용해 야당의 선거운동을 교묘히 방해하고, 도중 민주당 대통령후보인 조병옥이 미국에서 돌연 사망하자 선거전의 양상은 크게 바뀌었다.

선거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각종 부정선거로 혼란스러워지자 민주당은 선거일 오후, 3·15선거가 불법·무효임을 선언하고 민주당 소속 참관인을 전원 철수시켰다.

선거결과는 자유당 이승만 후보의 단독출마로, 963만3,376표를 얻어 당선됐다.

괴산군은 선거인수 7만1,485명 중 96.5%인 6만8,983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6만1,257표(88.8%)였다.

51)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선거관리」, 槐山郡誌編纂委員會, 『槐山郡誌』, 1990.

2) 재선거(간접선거)

이승만의 영구집권의 길은 열렸으나, 국민의 분노로 이승만의 4선을 낙관할 수 없자 자유당은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4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른바 ‘3·15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이는 학생과 국민의 극렬한 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마침내 이승만 정권을 타도하려는 4·19혁명이 일어나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국회는 6월 15일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헌법안을 통과시켜 그 날로 공포·시행했다. 이 개헌은 개정의 형식을 취했지만, 광범해 실질적으로 헌법의 제정과 같은 것으로 ‘2공화국 헌법’이라 했다.

헌법의 규정에 따라 그해 8월 12일 4대 대통령 선거 재선거가 12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양원 합동회의에서 실시됐다. 민의원 의원정수 233명 가운데 국회의원선거가 끝나지 않은 충북 괴산 등 13개 선거구 13명을 제외한 220명과 참의원 의원정수 58명 가운데 13개 선거구와 기타 2개 선거구 15명을 제외한 43명 등 재적의원 263명 중 259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유효투표수 253표 가운데 82.2%인 209표를 얻은 윤보선 후보가 당선돼 다음날 대통령에 취임, 2공화국 시대를 열었다.

- 4대 대통령 당선자(간접선거)는 윤보선(208표)이고, 후보자별 득표는 김창숙(29표) 변영태(3표) 백낙준(3표) 허정(2표) 김도연(2표) 김병로(1표) 박순천(1표) 라용균(1표) 이철승(1표) 유옥우(1표) 김시현(1표)이다.⁵²⁾

52)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선거관리」; 槐山郡誌編纂委員會, 『槐山郡誌』, 1990.

5. 제5대 대통령선거

4·19혁명으로 탄생한 2공화국의 국무총리에 인준된 장면은 내각을 구성하고, 국회는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과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부정축재 처리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후 구파가 분당을 선언하고 신민당을 발족하는 등 정쟁의 소용돌이와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내몰렸고, 결국 1961년 5월 16일 군사군사혁명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민정은 중단되고, 군사정부에 의한 국민투표로 권력구조가 다시 대통령중심제로 환원됐다.

5대 대선은 1963년 10월 15일 실시됐고,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던 박정희는 앞서 8월 30일 현



4·19 혁명

역 육군대장에서 예비역으로 전역한 뒤 민주공화당에 입당해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다. 또 윤보선(민정당), 장이석(신흥당), 오재영(추풍회), 변영태(정민회) 등 모두 5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전체 선거인수 1,298만5,015명 가운데 1,103만6,175명이 투표해 85.0%이 투표율을 보였고, 유효투표수는 91.5%인 1,008만1,198표였다.

괴산군은 선거인수 7만257명 중 83.4%인 5만8,592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5만1,810표(88.4%)였다.

- 5대 대통령 당선자는 박정희(4,702,640표 · 46.6%)이고, 후보자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윤보선(4,546,614표 · 45.1%) · 오재영(40만8,664표 · 4.1%) · 변영태(224,443표 · 2.2%) · 장이석(198,837표 · 2.0%)
- 괴산군 후보자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윤보선(25,797표 · 49.8%) · 박정희(19,607표 · 37.9%) · 오재영(2,909표 · 5.6%) · 변영태(1,881표 · 3.6%) · 장이석(1,616표 · 3.1%)⁵³⁾

53)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선거관리」, 槐山郡誌編纂委員會, 『槐山郡誌』, 1990.

6. 제6대 대통령선거



5 · 16 군사 혁명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은 4년 동안 정비 · 관리해 온 조직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한 정책대결 태세를 갖추고, 신민당은 정부의 부정 · 부패를 폭로함과 동시에 공명선거를 구호로 평화적 정권교체에 주력했다.

1967년 5월 3일 실시된 6대 대선은 이세진(정의당), 전진한(한국독립당), 윤보선(신민당), 김준연(민중당), 박정희(민주공화당), 오재영(통한당) 등 6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전체 선거인수 1,393만5,093명 가운데 1,164만5,215명이 투표해 83.6%의 투표율을 보였고, 유효투표수는 95.0%인 1,105만8,721표였다.

괴산군은 선거인수 7만3,434명 중 89.3%인 6만5,548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6만2,202표(94.9%)였다.

- 6대 대통령 당선자는 박정희(5,688,666표 · 51.4%)이고 후보자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윤보선(4,526,541표 · 40.9%) 오재영(264,533표 · 2.4%) 김준연(248,369표 · 2.3%) 전진한(232,179표 · 2.1%) 이세진(98,433표 · 0.9%)
- 괴산군 후보자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박정희(29,607표 · 47.6%) 윤보선(26,282표 · 42.2%) 전진한(2,353표 · 3.8%) 오재영(1,654표 · 2.7%) 김준연(1,526표 · 2.4%) 이세진(780표 · 1.3%)이다.⁵⁴⁾

54)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선거관리」, 槐山郡誌編纂委員會, 『槐山郡誌』, 1990.

7. 제7대 대통령선거

민주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을 후보로 추대하고, 신민당은 김영삼·김대중·이철승 등 3명이 대통령후보 지명전에서 경합을 벌인 끝에 이른바 당내 비주류인 김대중이 2차에 걸친 투표 끝에 유진산 당수 등 주류가 지지한 김영삼을 누르고 40대 기수로 등장했다.

1971년 4월 27일 실시된 7대 대선은 3월 30일 후보 등록까지 7명이 출마했으나, 도중에 2명이 사퇴해 박정희(민주공화당), 김대중(신민당), 박기출(국민당), 이종윤(자민당), 전복기(정의당) 등 5명이 경합을 벌였다.

전체 선거인수 1,555만2,236명 가운데 1,241만7,824명이 투표해 79.8%의 투표율을 보였고, 유효투표수는 96.0%인 1,192만3,218표였다.

괴산군은 선거인수 6만9,444명 가운데 5만9,952명이 투표해 86.3%의 투표율로 유효투표수는 95.6%인 5만7,339표였다.

- 7대 대통령 당선자는 박정희(6,342,828표 · 53.2%)이고, 후보자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김대중(5,395,900표 · 45.3%) 전복기(122,914표 · 1.0%) 박기출(43,753표 · 0.4%) 이종윤(17,823표 · 0.1%).
- 괴산군 후보자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박정희(35,879표 · 62.6%) 김대중(20,426표 · 35.6%) 전복기(686표 · 1.2%) 박기출(224표 · 0.4%) 이종윤(124표 · 0.2%).
- 증평읍·도안면 후보자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박정희(8,000표 · 56.9%) 김대중(5,840표 · 41.5%) 전복기(152표 · 1.1%) 박기출(40표 · 0.3%) 이종윤(30표 · 0.2%).⁵⁵⁾

55)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선거관리」; 槐山郡誌編纂委員會, 『槐山郡誌』, 1990.

8. 제8대 대통령선거(간접)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국무회의는 10월 27일 이른바 유신헌법을 의결·공고했다.

이에 따라 8대 대선은 전국에서 선출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2,359명의 무기명 비밀투표의 간접선거로 1972년 12월 2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실시돼 박정희 후보가 무효 2표를 제외한 2,357표를 획득, 4선에 당선됐다.

9. 제9대 대통령선거(간접)

9대 대선도 1978년 7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선거로 실시돼 단일후보인 박정희 후보가 대의원 2,581명 중 2,579명이 참가한 가운데 무효 1표를 제외한 2,578표를 얻어 5선에 당선됐다.

10. 제10대 대통령선거(간접)

박정희 유신정권은 야당과 재야세력의 반유신운동을 불러 일으켰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살해됨으로써 유신체제의 4공화국은 막을 내렸다.

대통령의 서거로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정부는 과도체제로 개편됐다. 이어 12월 9일 대통령선거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실시돼 재적의원 2,560명 가운데 2,465명의 찬성을 얻은 최규하 단일후보가 1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고(故)박정희 대통령 영구차
행렬

그러나 12월 12일 육군참모총장 정승화의 구속과 함께 김영삼·김대중·김종필의 이른바 3김의 정쟁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1980년 5월 17일 계엄령이 선포되고, 이튿날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해 혼란이 심화됐다.

이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자문보좌기관으로 설치해 전두환 위원이 상임위원장에 임명되고, 최규하 대통령은 8월 16일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11. 제11대 대통령선거(간접)

최규하 대통령의 사임으로 1980년 8월 27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대통령선거를 위한 통일주체국민회의 7차 회의가 열리고,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단일후보로 나서 재적의원 2,535명 중 2,525명이 참가한 가운데 무기명·비밀투표 실시 결과 2,524표(무효 1표)를 얻어 1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12. 제12대 대통령선거(간접)

1980년 10월 22일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하게 됐다.

1981년 2월 11일 대통령선거인 5,278명을 선출하는 선거에 이어 전두환(민

주정의당), 유치송(민주한국당), 김종철(한국국민당), 김의택(민권당) 등 4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1981년 2월 25일 12대 대선이 간접선거로 실시됐다. 선거인 총수 5,278명 중 실격된 1명을 제외한 재직선거인 5,277명 중 5,271명이 전국 각지의 분산투표구에서 선거에 참가해 유효투표수 5,270표 가운데 전두환 후보가 4,755표(90.2%)를 얻어 당선됐다.

- 제12대 대통령 당선자는 전두환(4,755표 · 90.2%)이고 유치송은 404표(7.7%), 김종철은 85표(1.6%), 김의택은 26표(0.5%)를 득표했다.
- 괴산군선거구 후보자별 득표는 전두환 55표(91.7%), 유치송 5표(8.3%)이다.⁵⁶⁾

56)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선거관리」; 槐山郡誌編纂委員會, 『槐山郡誌』, 1990.

13. 제13대 대통령선거

1987년 6·29선언에 이은 국민투표로 헌법이 개정돼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시행되고, 그해 12월 16일 13대 대선이 실시됐다.

통일민주당은 대통령후보 지명 과정에서 김영삼 총재와 김대중 고문의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채 김대중이 평화민주당을 창당해 대선에 출마했다. 김종필은 옛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해 후보로 나섰고, 신정일(한주의통일한국당), 김선적(일체민주당), 홍숙자(사회민주당), 백기완(무소속)이 출마했으나, 선거 도중 김선적·홍숙자·백기완 등 3명의 후보가 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위해 사퇴해 최종후보는 5명으로 압축됐다.

전체 선거인수 2,587만3,624명 가운데 2,306만6,419명이 투표해 89.2%의 투표율을 보였고, 유효투표수는 98.0%인 2,260만3,411표였다.

괴산군은 선거인수 6만3,930명 가운데 5만7,886명이 투표해 90.5%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유효투표수는 96.9%인 5만6,091표였다.

중평읍과 도안면은 선거인수 1만9,234명 중 84.8%인 1만6,305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1만5,872표(97.3%)였다.

- 13대 대통령 당선자는 노태우(8,282,738표 · 36.6%)이고, 후보자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김영삼(6,337,581표 · 28.0%) 김대중(6,113,375표 · 27.1%) 김종필(1,823,067표 · 8.1%) 신정일(46,650표 · 0.2%).
- 괴산군 후보자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노태우(38,488표 · 50.8%) 김영삼(14,675표 · 26.2%) 김종필(6,950표 · 12.4%) 김대중(5,678표 · 10.1%) 신정일(300표 · 0.5%).



6·29 선언

57)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선거관리」, 槐山郡誌編纂委員會, 『槐山郡誌』, 1990.

- 증평읍·도안면 후보자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노태우(7,305표·46.0%) 김영삼(4,476표·28.2%) 김종필(2,108표·13.3%) 김대중(1,921표·12.1%) 신정일(62표·0.4%).⁵⁷⁾

14. 제14대 대통령선거

1992년 12월 18일 실시된 14대 대통령선거는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을 비롯해 김대중(민주당), 정주영(통일국민당), 박찬중(신정당), 이병호(정의당), 김옥선(무소속), 백기완(무소속) 등 7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였다.

전체 선거인수 2,867만6,547명 가운데 2,409만5,170명이 투표해 84.0%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유효투표수는 98.7%인 2,377만5,409표였다.

괴산군은 선거인수 5만6,930명 가운데 4만8,610명이 투표해 85.4%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유효투표수는 97.7%인 4만7,497표였다.

증평읍과 도안면은 선거인수 2만408명 중 81.1%인 1만6,553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1만6,283표(98.4%)였다.

- 14대 대통령 당선자는 김영삼(9,977,332표·41.9%)이고, 후보자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김대중(8,041,284표·33.8%) 정주영(3,880,067표·16.3%) 박찬중(1,516,047표·6.4%) 백기완(238,648표·1.0%) 김옥선(86,292표·0.4%) 이병호(35,739표·0.2%).
- 괴산군 후보자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김영삼(20,371표·42.9%) 김대중(13,428표·28.3%) 정주영(9,373표·19.7%) 박찬중(3,138표·6.6%) 백기완(534표·1.1%) 이병호(327표·0.7%) 김옥선(326표·0.7%).
- 증평읍·도안면 후보자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김영삼(6,831표·41.9%) 김대중(4,365표·26.8%) 정주영(3,444표·21.1%) 박찬중(1,265표·7.8%) 백기완(173표·1.1%) 김옥선(109표·0.7%) 이병호(96표·0.6%).⁵⁸⁾

58)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내부자료

15. 제15대 대통령선거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15대 대통령선거는 대선 사상 처음으로 선거일이 법정화됨에 따라 12월 셋째주 금요일에 실시했다.

후보등록 결과 이회창(한나라당), 김대중(새정치국민회의), 이인제(국민신당), 권영길(국민승리21), 허경영(공화당), 김한식(바른정치연합), 신정일(한

국당) 등 7명이 출마했다.

15대 대선은 14대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하다가 1995년 9월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해 1야당 총재로 정치에 복귀한 김대중과 여당 후보로 나선 이회창 두 후보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이들의 경쟁 속에서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불복하고 출마한 이인제 후보가 변수로 작용하고, 권영길 후보의 출마는 노동단체가 정치세력으로 부상하는 특징을 엿볼 수 있었다.

전체 선거인수 3,229만416명 가운데 2,604만2,633명이 투표해 80.7%의 투표율을 보였고, 유효투표수는 98.5%인 2,564만2,438표였다.

괴산군은 선거인수 5만8,355명 가운데 4만6,421명이 투표해 79.6%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유효투표수는 97.3%인 4만5,188표였다.

증평읍과 도안면은 선거인수 2만1,960명 중 79.2%인 1만7,385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1만7,046표(98.1%)였다.

- 제15대 대통령 당선자는 김대중(10,326,275표 · 40.3%)이고, 후보자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이회창(9,935,718표 · 38.8%) 이인제(4,925,591표 · 19.2%) 권영길(306,026표 · 1.2%) 신정일(61,056표 · 0.2%) 김한식(48,717표 · 0.2%) 허경영(39,055표 · 0.1%).
- 괴산군 후보자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김대중(18,083표 · 40.0%) 이인제(13,205표 · 29.2%) 이회창(12,686표 · 28.1%) 권영길(445표 · 1.0%) 신정일(319표 · 0.7%) 허경영(229표 · 0.5%) 김한식(221표 · 0.5%).
- 증평읍 · 도안면 후보자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김대중(6,931표 · 40.6%) 이인제(4,870표 · 28.6%) 이회창(4,860표 · 28.5%) 권영길(190표 · 1.1%) 신정일(71표 · 0.4%) 허경영(62표 · 0.4%) 김한식(62표 · 0.4%).⁵⁹⁾

5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16. 제16대 대통령선거

2002년 12월 19일 실시된 16대 대통령선거는 15대 대선에 이어 재도전에 나선 이회창(한나라당)을 비롯해 노무현(새천년민주당), 이한동(하나로국민연합), 권영길(민주노동당), 김영규(사회당), 김길수(국태민안호국당) 등 6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였다.

16대 대선은 지지자에 대한 세대 간 대결 양상이 두드러졌고, 영 · 호남의 지역주의는 여전했다.

전체 선거인수 3,499만1,529명 가운데 2,478만4,963명이 투표해 70.8%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유효투표수는 99.1%인 2,456만1,916표였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진보정당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영길 후보는 괴산군과 증평읍 · 도안면에서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지지와
반대

(60)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내부자료

국평균 득표율 3.9%보다 높은 5.7%와 5.1%를 각각 얻었다.

괴산군은 선거인수 5만5,760명 가운데 3만8,588명이 투표해 69.2%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유효투표수는 98.1%인 3만7,864표였다.

증평읍과 도안면은 선거인수 2만1,505명 중 64.7%인 1만3,906명이 투표했고, 유효투표수는 1만3,759표(98.9%)였다.

- 16대 대통령 당선자는 노무현(12,014,277표 · 48.9%)이고, 후보자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이회창(11,443,297표 · 46.6%) 권영길(957,148표 · 3.9%) 이한동(74,027표 · 0.3%) 김길수(51,104표 · 0.2%) 김영규(22,063표 · 0.1%).
- 괴산군 후보자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노무현(20,026표 · 52.9%) 이회창(15,131표 · 39.9%) 권영길(2,148표 · 5.7%) 김길수(258표 · 0.7%) 이한동(233표 · 0.6%) 김영규(68표 · 0.2%).
- 증평읍·도안면 후보자별 득표는 다음과 같다. 노무현(7,483표 · 54.4%) 이회창(5,431표 · 39.5%) 권영길(709표 · 5.1%) 김길수(67표 · 0.5%) 이한동(57표 · 0.4%) 김영규(11표 · 0.1%).⁽⁶⁰⁾

제4절

제4절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과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1.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이른바 ‘유신헌법’이 1972년 10월 27일 공포·시행되고,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구성을 위한 초대 대의원선거가 12월 15일 실시됐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유신헌법 3장에 근거해 조국의 평

화적 통일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대의원 기구로서 중요한 통일정책 심의·결정, 국가원수인 대통령 선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 선출, 국회가 발의·의결한 개헌안을 의결·확정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정부는 11월 25일 유신헌법 규정에 따라 대의원선거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 법에 따라 선거구는 구·시·읍·면 등 행정구역 단위로 하고, 전국 선거구는 1,630곳, 대의원 정수는 2,359명이었다. 이들 대의원은 1973년 2월 27일 실시된 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73명의 유신헌법회의 의원(직능대표)을 선출했다.

괴산군은 13개 읍·면 선거구에서 인구 2만이 넘는 중평읍 2명 등 14명의 대의원이 선출됐다.

중평읍 선거구에는 최원기·전예근·연대희·김태경·강성우 등 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가 선거 직전 최원기·김태경 후보가 사퇴했고, 선거 결과 연대희·전예근 후보가 각각 5,565표와 1,271표를 얻어 당선됐다.

또 도안면 선거구에는 연찬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⁶¹⁾

(61)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선거관리」, 槐山郡誌編纂委員會, 『槐山郡誌』, 1990.

2.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는 1978년 5월 18일 실시됐다.

전국 대의원 정수는 초대 때보다 늘어난 2,583명이고, 5,577명이 후보 등록했으나 도중에 사퇴와 결격사유로 최종 입후보자수는 5,417명이었다. 선거구도 전국 1,665곳으로 초대보다 35곳이 늘었다. 괴산군의 경우 13개 읍·면 선거구에서 14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데 27명이 출마했다.

중평읍 선거구에는 유명호·김태경·김봉삼 등 3명의 후보가 출마해 이 가운데 유명호·김봉삼 후보가 각각 3,921표와 3,685표를 얻어 당선됐다.

도안면 선거구는 연찬 후보가 초대에 이어 재선에 성공했다.⁽⁶²⁾

(62)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선거관리」, 槐山郡誌編纂委員會, 『槐山郡誌』, 1990.

3.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1980년 10월 22일 실시된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헌법에 따라 12대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선거인단선거가 1981년 2월 11일 실시됐고, 전국에서 5,278명의 선거인이 선출됐다.

대통령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선거인단 선거구와 선거인 정수는 구·시·읍·면을 기본단위로 하고, 인구 2만을 넘는 선거구는 초과인구 1만명마다 1

63)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
원 선거관리」; 槐山郡誌
編纂委員會,『槐山郡誌』,
1990.

명의 선거인이 추가돼 괴산군은 13개 선거구에서 48명이 출마한 가운데 27명(중평읍 3명)의 선거인단이 선출됐다.

중평읍 선거구는 김태경·이재우·주재동·김기철·하상철·황일성 등 6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도안면 선거구는 이재준·연장흙·연찬 등 3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중평읍 선거구는 선거인수 1만4,433명 가운데 1만1,987명이 투표해 83.1%의 투표율로 유효투표수는 1만1,805표(98.5%)였다.

도안면 선거구는 선거인수 3,017명 가운데 2,743명이 투표해 90.9%의 투표율로 유효투표수는 2,701표(98.5%)였다.

선거 결과 중평읍 선거구는 김태경(3,833표)·하상철(3,006표)·황일성(2,212표) 후보가 당선됐고, 도안면 선거구는 이재준(1,230표)·연찬(1,035표) 후보가 선출됐다.⁶³⁾

제5절

제5절 정당 및 선거관리위원회

1. 중평군 정당

2004년 4월 15일 실시된 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시·군·구의 정당 지구당이 폐지된 것은 정당구조에 일대 변화였다.

지방 정치활동은 광복 이후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각 정당의 지구당 체제로 운영됐다. 지구당은 대체로 지역구 국회의원 중심으로 편성되다보니 선거를 전후해 지구당 등록과 소멸이 반복됐으며, 중평군은 2003년 8월 30일 설치되기 전까지 괴산군에 속했다.

64)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괴산군 정당 등록상황」.

●● 역대 정당(괴산군에 등록된 정당)의 지구당⁶⁴⁾

등록 년도	정 당 명	책임자	등록 년도	정 당 명	책임자
1948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괴산군지구당	정승화	1960	민주당 괴산군지구당	김사만
	대동청년당 괴산군지구당	차균택		신민당 괴산군지구당	이현복
1950	대한청년회 괴산군지구당	조종호	1963	민주공화당 충북5지구당	안동준
	대한국민당 괴산군지구당	연병호		민정당 충북5지구당	심상열
	사회당 괴산군지구당	심상열		국민의당 충북5지구당	김사만
	천도교 괴산군지구당	김장희	1969	신민당 충북5지구당	심상열
1954	자유당 괴산군지구당	안동준	1970	국민당 충북5지구당	채영만
		김원태	1973	민주통일당 충북5지구당	오성섭

등록 년도	정 당 명	책임자	등록 년도	정 당 명	책임자
1981	민주정의당 충북4지구당	안갑준	1989	통일민주당 괴산군지구당	김동관
	민주한국당 충북4지구당	허 탁	1991	공명민주당 괴산군지구당	연순복
	원일민립당 충북4지구당	김래동	1992	공명민주당 괴산군지구당	고경수
	민권당 충북4지구당	김향순		대한정의당 괴산군지구당	김학수
	한국국민당 충북4지구당	김완태		통일국민당 괴산군지구당	이후용
	민주농민당 충북4지구당	조성주		새한국당 괴산군지구당	고경수
1985	신한민주당 충북4지구당	서광열	1995	자유민주연합 괴산군지구당	이후용
	통일민주당 충북4지구당	이장득	1996	통합민주당 괴산군지구당	김년태
1987	통일민주당 충북4지구당	김완태		새정치국민회의 괴산군지구당	고경수
	일체민주당 충북4지구당	조규연		민주당 괴산군지구당	김년태
	평화민주당 충북4지구당	허 탁	1997	민주국민연합 괴산군지구당	이순종
	신민주공화당 충북4지구당	고경수		한나라당 괴산군지구당	김종호
1988	한국사회당 충북4지구당	김기영		국민신당 괴산군지구당	홍순기
	사회민주당 충북4지구당	유기완			

2.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다. 그러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병립하는 국가기관이며, 그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 이후 여러 차례 변천을 거듭해 오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62년 12월 26일에는 개정 공포된 3공화국 헌법 107조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로소 헌법기관으로 규정되고 그 조직과 직무범위를 법률에 위임해 1963년 1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 공포됐다. 그해 1월 19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됐다.

1963년 2월 7일 지역선거구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 당시 괴산군에 속해 있던 증평군은 충청북도 5지역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이 됐다.

1973년 1월 20일 충청북도 5지역 선거구(괴산군)와 7지역 선거구(음성군·진천군)가 통합해 4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됐다.

1987년 11월 7일에는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2000년 2월 16일 국회의원선거구 조정으로 괴산군 선거구가 진천군·음성군 선거구와 통합, 진천군·괴산군·음성군 선거구가 됐다. 이후 2003년 5월 29일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그해 8월 30일 증평군이 공식 설치됨에 따라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이날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됐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증평군선거관리위원장에 오충진 청주지방법원 판사 등 7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직원은 사무과장 등 5명으로 구성했다.

앞서 2003년 7월 10일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준비단이 충청북도증평출장소 별관 2층 임시 사무실에서 발족, 위원회 신설에 따른 제반업무를 시작했다.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03년 9월 8일 증평읍 신동리 120 옛 증평출장소 증천지소 건물에서 현판식과 함께 개청식을 가졌고, 이튿날에는 회의실에서 그해 10월 30일 실시하는 초대 증평군수선거와 증평군의회의원증원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운동원을 대상으로 첫 선거법 설명회를 가졌다.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03년 10월 14~15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 후 10월 30일 첫 지방선거 투·개표 업무를 마치고, 이튿날 초대군수와 군의회의원 당선자들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⁶⁵⁾

65) 강신욱, 『증평, 자치시대를 맞기까지』, 푸른나라, 2004.



제2장 행정

연창흠 집필

제1절 증평군의 행정 변천

제1절

1. 개요

국가는 시원적으로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주체다. 국가의 행정작용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의 행정조직을 통해 행해진다. 그러나 국가의 행정권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위임 혹은 기관위임 돼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자치단체에는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와 기초자치단체(시, 군)가 있다. 증평군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영토의 일부인 일정 지역을 구성단위로 해, 주민을 통치하는 포괄적 행정권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권의 법적 성질은 국가로부터 전래된 권한으로 국가로부터 일정한 행정적 감독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의결기관(시, 도, 군의회 등)과 집행기관(시장, 도지사, 군수 등)이 있어,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충청북도에 해당되고, 충청북도의 하위 행정단위인 증평군은 일정 정도의 자치권을 가진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된다.

2. 행정구역의 변천

증평군은 본래 고구려(장수왕 63년:475)의 금물노군(今勿奴郡)에 속한 **도서**

현(道西縣 일명 道益, 道薩城) 지역과 신라(경덕왕 16년:757)의 괴양군(槐壤郡)에 속한 청연현(淸淵縣)의 지역이다. 도서현은 경덕왕 16년(757)에 한주(漢州)의 흑양군(黑壤郡)으로 예속시키면서 도서현(都西縣)으로 개명(改名)하고, 다시 도서현은 고려 태조 23년(940)에 도안현(道安縣)으로, 청연현(淸淵縣)은 청당현(淸塘縣)으로 개명했다. 고려 현종(顯宗) 9년(1018)에 두 현을 청주목(淸州牧)으로 이속하면서 청당현에 감무(監務)를 두어 도안현을 겸임하게 했다.

조선 태종 5년(1405) 도안현과 청당현이 통합돼 청안현이 되므로 증평군은 청안현의 근서면(近西面), 남면(南面), 북면(北面)의 일원(一圓)이다.

1) 조선 8도 행정구역 : 태종13년(1413)

충청도의 행정구역은 4개의 목(牧)과 11개의 군(郡), 39개의 현(縣)이 있었다. 공주목(公州牧)과 홍주목(洪州牧)은 현재의 충청남도에 해당하고, 청주목(淸州牧)과 충주목(忠州牧)은 현재 충청북도의 행정구역에 속한다. 충주목에는 단양군(丹陽郡), 청풍군(淸風郡), 괴산군(槐山郡)과 음성현(陰城縣), 제천현(堤川縣), 영춘현(永春縣), 연풍현(延豐縣)이 있다.

청주목에는 3개 군, 9개 현으로 천안군(天安郡), 옥천군(沃川郡), 보은군(報恩郡)과 문의현(文義縣), 청안현(淸安縣), 직산현(稷山縣), 황간현(黃澗縣), 회인현(懷仁縣), 청산현(靑山縣), 목천현(木川縣), 영동현(永同縣), 진천현(鎭川縣)이 있다.

증평군은 청주목에 속하는 청안현의 행정단위 일부지역이다.

2) 대한 13도 행정구역 : 고종 33년(1896)

충청북도 18군에는 1등 군수(郡守)에 충주, 청주가 있었고, 3등 군수에는 옥천, 진천, 4등 군수에는 청풍, 직산, 보은, 단양, 제천, 회인, 청안, 영춘, 영동, 황간, 청산, 연풍, 음성, 문의가 있었다.

증평군은 4등 군수가 있는 청안군의 행정단위 지역 중 근서면, 남면, 북면 일원(一圓)이다.

3) 행정리(법정리) 변천

● 『戶口總數(호구총수)』정조(正祖) 13년(1789)

- 청안현 : 6개면 193개리로 호수(戶數)는 2,681호이고, 인구는 남자가 4,071명, 여자 5,250명으로 10,221명이 있다.

읍내면(현 청안면 소재지), 동면(현 부흥리 지역), 서면(현 초평면 지역)과 증평군 지역인 근서면(近西面), 남면(南面), 북면(北面)이다.

- 북면(北面) : 현 도안면 지역으로 호수는 501호, 인구는 2216명(남자 1003

명, 여자 1213명)이다.

대자랑리(大自郎里), 백암리(白巖里), 대지곡리(大枝谷里), 노고곡상리(老顧谷上里), 노고곡하리(老顧谷下里), 석치리(硯峙里), 입장리(笠長里), 탑동리(塔洞里), 법곡리(法谷里), 칠정리(七井里), 계정리(佳亭里), 칠송정리(七松亭里), 월노리(月老里), 구화리(九化里), 미동리(尾洞里), 행정리(杏亭里), 상작달리(上爵達里), 상작달하리(上爵達下里), 칠곡리(七谷里), 명암상리(鳴巖上里), 명암하리(鳴巖下里), 석화리(石花里), 산정리(山亭里), 귀개리(歸介里), 천광리(天光里), 아산리(芽山里), 백곡리(栢谷里), 반곡리(盤谷里), 광암리(廣巖里), 진암상리(鎭巖上里), 진암하리(鎭巖下里), 구암리(九巖里), 입원리(笠院里), 금당리(金塘里), 상방목리(上方目里), 하방목리(下方目里), 한성은행정리(漢城銀杏亭里) 등 37개리가 있다.

- 남면(南面) : 증평읍 증평읍 남부 지역으로 호수는 328호이고 인구는 1,458명(남자 684명, 여자 774명)이다

봉천리(奉天里), 미야리(尾野里), 웅동리(熊洞里), 울치리(栗峙里), 삼기리(三岐里), 대술리(大述里), 장내리(牆內里), 동점리(銅店里), 신대리(新垓里), 어은동리(漁隱洞里), 서월리(書院里), 탄치리(炭峙里), 연정리(淵井里), 산정리(山亭里), 대각리(大各里), 양곡리(羊谷里), 금반리(金盤里), 동산리(東山里), 둔덕리(屯德里), 작동리(鵲洞里), 장성리(長城里) 등 21개리

- 근서면(近西面) : 증평읍 소재지 지역으로 호수는 444호이고, 인구는 1,315명 (남자 688명, 여자 625명)이다

사용리(射龍里), 방곡리(芳谷里), 남산리(南山里), 내용리(內龍里), 청룡리(靑龍里), 외룡리(外龍里), 전강리(田江里), 축정리(築亭里), 삼성리(三省里), 내동상리(內洞上里), 내동하리(內洞下里), 증자천리(曾子川里), 도정상리(道井上里), 평사리(平沙里), 선원리(仙院里), 반탄리(潘灘里), 금곡리(金谷里), 연산리(連山里), 연신리(連新里), 연천리(連天里), 사읍사리(沙邑沙里), 송치리(松峙里), 안자산리(顔子山里), 서당리(書堂里), 미륵리(彌勒里), 시화상리(時化上里), 시화하리(時化下里), 단암상리(丹巖上里), 단암하리(丹巖下里) 등 29개리가 있다.

●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개편(조선총독부관보 제485호)

- 증평면 : 근서면, 남면과 북면, 청주군 산외이면, 북강내이면 일부를 포함해 11개 법정리이다.

미암리(彌岩里), 송산리(松山里), 연탄리(連灘里), 사곡리(射谷里), 용강리(龍江里), 증평리(曾坪里), 남하리(南下里), 죽리(竹里), 덕상리(德祥里), 남차리(南次里), 율리(栗里)가 있다.

- 도안면 : 북면과 음성군 원서면, 근서면 일부를 포함해 7개 법정리이다.
연촌리(硯村里), 노암리(老岩里), 송정리(松亭里), 광덕리(光德里), 석곡리(石谷里), 화성리(花城里), 도당리(道塘里).

-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56호로 증평면이 증평읍으로 승격됐다.
- 1966년 증평읍 증평리가 교동리, 중동리, 대동리로 나누어 11개법정리에서 14개 법정리로 3개리가 늘었다..
-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북이면 초중리를 편입해 15개 법정리로 됐다.

●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설치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제106조, 충청북도 조례 제1864호』에 의해 증평읍과 도안면이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설치에 따라 장평지소, 증천지소, 도안지소 3개지소가 설치됐다. 각 지소 법정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장평지소 : 교동리, 중동리, 대동리, 초중리, 연탄리, 송산리, 미암리(7개리)
- 증천지소 : 증평리, 용강리, 사곡리, 덕상리, 남차리, 율리, 죽리, 남하리(8개리)
- 도안지소 : 화성리, 노암리, 송정리, 광덕리, 연촌리, 석곡리, 도당리(7개리)

- 2002년 1월 2일 법정리 개편으로 증평리를 신동리, 창동리, 내성리, 장동리, 증천리로 분리해 20개 법정리가 되고, 주민의 행정불편 해소를 위해 지소별 법정리를 조정했다. 2개지소 법정리는 다음과 같다.

- 증천지소 : 증평리, 신동리, 창동리, 내성리, 초중리, 연탄리, 덕상리, 남차리, 율리, 죽리, 남하리(11개리)
- 장평지소 : 교동리, 중동리, 장동리, 증천리, 대동리, 송산리, 미암리, 사곡리, 용강리(9개리)

● 증평군 설치

2003년 8월 30일 증평군 설치로 증천지소와 장평지소가 증평읍, 도안지소가 도안면으로 됐다.

증평읍 : 교동리, 중동리, 대동리, 초중리, 연탄리, 송산리, 미암리, 증평리, 용강리, 사곡리, 덕상리, 남차리, 율리, 죽리, 남하리, 신동리, 창동리, 내성리, 장동리, 증천리 등 20개 법정리가 있다.

도안면 : 화성리, 노암리, 송정리, 광덕리, 연촌리, 석곡리, 도당리 등 7개 법정리가 있다.

●● 역대 청안현감(군수) 및 괴산군수

번호	성명	번호	성명	번호	성명	번호	성명	번호	성명
1	라세언(羅世彦)	7	박정립(朴廷立)	13	정명원(鄭名遠)	19	심양(沈讓)	25	이경취(李景崔)
2	유덕남(柳德男)	8	박무(朴懋)	14	최윤(崔潤)	20	신경일(申景逸)	26	이배(李培)
3	이옹(李雍)	9	임예(任浼)	15	전유형(全有亨)	21	양사행(梁思行)	27	김수관(金守寬)
4	송세협(宋世俠)	10	한여성(韓汝聖)	16	서사원(徐思遠)	22	이박(李燾)	28	최기문(崔起門)
5	홍순(洪淳)	11	윤유심(尹惟深)	17	기홍헌(奇弘獻)	23	안영(安瑩)	29	이유원(李幼源)
6	정충인(鄭忠仁)	12	구사민(具思閔)	18	홍유(洪裕)	24	윤찬원(尹贊元)		

주) 역대 청안현(淸安縣) 선생안(先生案)은 조선 인조 1년(1623) 이전까지 상세 기록이 없어 명단만 기록한다.

●● 인조(仁祖) 1년(1623) 이후 청안현감 및 군수

번호	성명	도입년월일	근속연월일	번호	성명	도입년월일	근속연월일
30	김효성(金孝誠)	1623. 5. 21	2년 6월	57	정수명(鄭洙明)	1678. 1. 21	1년 10월
31	민정(閔栴)	1625. 12. 13	1년 4월	58	이인망(李仁望)	1679. 12. 20	9월
32	조흡(趙翕)	1627. 4. 19	2년	59	박일개(朴一開)	1680. 9. 2	8월
33	심민각(沈民覺)	1629. 5. 2	9월	60	유서(柳瑞)	1681. 7. 18	5월
34	윤열지(尹悅之)	1630. 2. 20	3년 2월	61	한세겸(韓世謙)	1682. 1. 29	2년 6월
35	채충원(蔡忠元)	1633. 6. 14	8월	62	신범화(申範華)	1684. 8.	1년 3월
36	심경구(沈景龜)	1634. 4. 6	4년 9월	63	이덕노(李德老)	1686. 1. 6	3년 3월
37	이위(李偉)	1639. 1. 10	1년	64	오순창(吳順昌)	1689. 5. 17	1년 7월
38	이사길(李士吉)	1640. 2. 10	10월	65	남세진(南世珍)	1691. 1. 20	4년 2월
39	성력(成櫟)	1641. 2. 8	1년 10월	66	한제상(韓濟相)	1695. 4. 24	1년 8월
40	김운해(金雲海)	1643. 2. 9	1년 10월	67	최후징(崔後徵)	1697. 1. 24	3년 7월
41	이원준(李元俊)	1645. 1. 10	5월	68	윤호(尹摛)	1700. 8. 15	1년 1월
42	최후정(崔後定)	1645. 7. 7	7월	69	남명하(南明夏)	1701. 10. 25	4년 9월
43	이정망(李廷望)	1646. 4. 1	3년 9월	70	김연(金研)	1706. 9. 1	8월
44	정원첩(鄭元詹)	1650. 1.	10월	71	박경여(朴慶餘)	1707. 7. 2	4년 7월
45	박수(朴修)	1650. 12. 6	2년	72	윤필창(尹必昌)	1712. 2. 16	1년
46	이온(李溫)	1652. 12. 16	2년	73	문덕구(文德龜)	1713. 4. 1	1년 6월
47	이진(李楹)	1655. 1. 24	1년 1월	74	정지상(鄭至祥)	1714. 11. 26	2년 2월
48	정경연(鄭慶演)	1656. 3. 7	2년 9월	75	이보혁(李普赫)	1717. 2. 7	1년 2월
49	송유전(宋有佺)	1659. 1. 10	4년 11월	76	남한명(南漢明)	1718. 6. 2	4년 10월
50	송시수(宋時壽)	1664. 2. 24	10월	77	이제망(李悌望)	1723. 5. 17	1년 1월
51	김천익(金千諡)	1665. 1. 25	1년 2월	78	이정열(李廷說)	1724.	3년 8월
52	박원도(朴元度)	1666. 4. 3	5년 4월	79	김서구(金瑞龜)	1728. 4. 3	2년 2월
53	최선(崔渲)	1671. 9. 27	3년 6월	80	이광보(李光輔)	1730. 9. 3	1년 8월
54	이순(李恂)	1675. 5. 13	1년 5월	81	이의협(李義俠)	1732. 5. 24	4년 1월
55	조우륜(趙宇濬)	1677. 1. 17	4월	82	유춘복(柳春馥)	1736. 7. 7	8월
56	정문륜(鄭文濬)	1677. 6. 7	6월	83	정하서(鄭河瑞)	1737. 6. 7	2년 6월

번호	성 명	도입년월일	근속연월일	번호	성 명	도입년월일	근속연월일
84	이광도(李匡度)	1740. 3. 19	4년 5월	122	신명조(申命藻)	1831. 7. 13	1년 10월
85	이윤집(李允執)	1744. 9. 27	3년 3월	123	이사묵(李思默)	1833. 5. 18	1년 3월
86	임 유(任 瑜)	1748. 1. 17	1년 6월	124	황 도(黃鍔)	1834. 9. 10	1년 3월
87	정관빈(鄭觀賓)	1749. 8.	1년 4월	125	김능순(金能淳)	1836. 1. 12	4월
88	장 섭(張 涉)	1751. 3. 20	3년 11월	126	이계재(李繼在)	1836. 7. 2	2년 9월
89	윤 경(尹 暲)	1755. 4. 11	5월	127	심락헌(沈樂憲)	1839. 6. 4	3년 5월
90	전한상(田漢祥)	1755. 11. 2	1년 3월	128	한용원(韓龍源)	1842. 12. 16	4년 9월
91	구덕훈(具德勳)	1757. 2. 17	6월	129	신 억(申 億)	1847. 10. 10	3년 1월
92	유선양(柳善養)	1757. 8. 27	1월	130	이봉구(李鳳九)	1850. 12. 22	2년 11월
93	조중선(趙重選)	1757. 10. 28	2년 2월	131	조영호(趙永鎬)	1853. 12. 12	2년 6월
94	최 복(崔 福)	1760. 1. 28	5월	132	윤자명(尹滋命)	1856. 7. 12	1년 5월
95	이관진(李寬鎭)	1760. 6. 28	4년 3월	133	이규영(李奎英)	1858. 1. 20	1년 5월
96	변지건(卞至健)	1764. 9. 29	3년 3월	134	홍 준(洪 峻)	1859. 7. 20	4년 6월
97	권경응(權敬應)	1768. 1. 20	3년 6월	135	장봉일(張鳳日)	1864. 1. 12	3년 4월
98	신대영(申大儁)	1771. 7. 20	1년 1월	136	이상준(李象準)	1867. 7. 7	3년 4월
99	유석인(柳錫麟)	1772. 9. 7	3월	137	이주하(李周夏)	1870. 10.	1년 10월
100	이득상(李得祥)	1773. 1. 28	1년 10월	138	김병관(金炳觀)	1872. 9. 13	3년 2월
101	이덕현(李德鉉)	1774. 11. 30	3년 2월	139	조현하(趙玄夏)	1875. 11. 25	3년 1월
102	오준근(吳濬根)	1778. 2. 10	3월	140	조유승(曹裕承)	1879. 1. 25	2년 5월
103	이면기(李勉基)	1778. 6. 6	4년 6월	141	정원세(鄭元世)	1881. 7. 13	1년 11월
104	김호재(金蒿材)	1783. 1. 11	1년	142	김승균(金勝均)	1883. 7. 25	1년 3월
105	홍사호(洪絲浩)	1784. 2. 25	4년	143	민치헌(閔致憲)	1884. 12. 15	10월
106	이종노(李宗魯)	1788. 2. 18	2년 2월	144	이동우(李東宇)	1885. 11. 25	10월
107	홍술조(洪述租)	1790. 4. 22	2년 8월	145	이중익(李重翼)	1886. 10. 26	1년 5월
108	이연열(李 ^연 烈)	1792. 12. 24	4년	146	신영균(申永均)	1888. 5. 7	1년 1월
109	임희복(任希復)	1797. 1. 6	1년 7월	147	성만호(成曼鎬)	1889. 8. 28	1년 2월
110	홍지영(洪致榮)	1798. 8. 22	5월	148	오우선(吳友善)	1891. 1. 12	1년 2월
111	이후연(李厚延)	1799. 2. 23	3년 1월	149	이 희(李 僖)	1892. 4. 28	11월
112	박조원(朴肇源)	1802. 3. 22	2년 7월	150	홍남주(洪南周)	1893. 3. 23	7월
113	이광현(李光顯)	1804. 12. 12	4년 5월	151	홍종익(洪鐘益)	1893. 11	2년
114	조영석(趙榮錫)	1809. 5. 19	4년 8월	152	김기조(金基肇)	1895. 12	8월
115	이병순(李秉淳)	1814. 1. 18	4년 7월	153	구봉조(具鳳祖)	1896. 9. 9	1년 3월
116	홍주명(洪周命)	1818. 9. 11	2년 3월	154	한성회(韓聖會)	1897. 12. 26	3년 8월
117	이병운(李秉運)	1820. 12. 15	1년 6월	155	이범학(李範學)	1901. 9. 19	4년 10월
118	심헌영(沈憲永)	1822. 6. 30	1년 7월	156	김일현(金一鉉)	1902. 9. 13	3년 7월
119	윤웅열(尹膺烈)	1824. 2. 18	3년 9월	157	심규택(沈奎澤)	1906. 5. 6	1년 2월
120	송흠명(宋欽明)	1827. 11. 26	1년 11월	158	권병필(權丙弼)	1908. 2. 8	1년
121	서우보(徐羽輔)	1829. 12. 24	1년 6월	159	이탁응(李鐸應)	1909. 4. 17	4년 11월

주) 1896년 청안현이 청안군
으로 개명돼 153번 구봉조
이후부터는 군수이다.

주) • 1914년 4월 1일 청안군이 과산군에 통폐합되면서 1948년 8월 15일까지의 과산군수 명단을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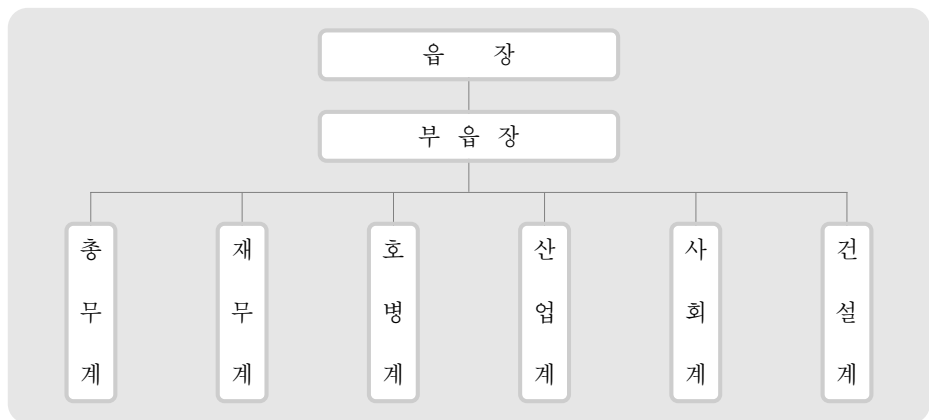
• 증평읍과 도안면(증평군지역)이 1990년 12월 31일 충청북도증평출장소가 설치되므로 현 증평군지역은 과산군의 행정예속에서 벗어나 시·군단위 독립된 지방행정을 수행하므로 2003년 8월 30일 증평군이 설치될 때까지는 역대 출장소장을 기록했고 그 이후의 과산군수는 다음과 같다. 31대 박정순(朴廷淳), 32대 오권영(吳權泳), 33대 유의재(俞義在), 34대 김한식(金澣植), 35대 신현수(辛鉉洙)이고, 1995년 6월 27일 기초자치단체장(과산군수)의 민선선출시 증평출장소 주민도 참여해 과산군수 36~37대 김환묵(金煥默), 38~39대 김문배(金文培)를 선출했다.

●● 역대 과산군 군수

번호	성명	재임기간	번호	성명	재임기간
1대	이수원(李壽源)	1948. 8.15~50. 5.16	16대	정범구(鄭範九)	1966. 6.29~67.10.24
2대	조삼선(趙三善)	1950. 5.17~53. 6.10	17대	안영국(安榮國)	1967.10.25~70. 3.24
3대	김상현(金相顯)	1953. 6.11~54. 4.26	18대	권희탁(權熙鐸)	1970. 3.25~71. 8.20
4대	김문배(金文培)	1954. 4.27~55. 6. 3	19대	정화국(鄭和國)	1971. 8.21~73. 8.12
5대	이도근(李道根)	1955. 6. 4~55. 9. 12	20대	지종원(池鍾元)	1973. 8.13~74. 3.27
6대	정태관(鄭泰觀)	1955. 9.13~57. 6.21	21대	신양호(申養浩)	1974. 3.28~76. 4.21
7대	이종근(李鐘斤)	1957. 6.22~57.12.23	22대	김태수(金泰秀)	1976. 4.22~78. 8. 1
8대	김용은(金容殷)	1957.12.24~58.12. 1	23대	정경모(鄭經模)	1978. 8. 2~80. 7.17
9대	이종근(李鐘斤)	1958.12. 2~60. 5.22	24대	김태선(金泰璇)	1980. 7.18~82. 3. 1
10대	이길원(李吉遠)	1960. 5.23~60.11.23	25대	최동규(崔東圭)	1982. 3. 2~85. 3.10
11대	홍승기(洪承基)	1960.11.24~61. 6.29	26대	남철우(南喆禹)	1985. 3.11~85. 8.25
12대	박상용(朴祥用)	1961. 6.30~61. 8. 8	27대	김용덕(金容惠)	1985. 8.26~86.12.23
13대	이중천(李重天)	1961. 8. 9~62. 7.20	28대	김광홍(金光弘)	1986.12.24~87. 7. 9
14대	박영순(朴永淳)	1962. 7.21~64. 5.22	29대	이상범(李相範)	1987. 7.10~88. 6. 8
15대	정인무(鄭寅武)	1964. 5.23~66. 6.28	30대	곽소열(郭昭烈)	1988. 6. 9~91. 1.13

1) 증평읍 행정기구 및 역대 읍·면장

●● 증평읍 기구표(1961년)



●● 증평읍 직원 현황(1987년)

구분	보직계					직급별								
	계	읍장	부읍장	과장	계장	계	별정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기타
정원	15	1	1	3	10	84	1	1	13	20	17	4	18	10

☐ 자료 : 과산군지

●● 역대 증평면장(광복 이후)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년 수	해 면 사유
1대	송 경 섭	1945. 8. 30 ~ 1947. 2. 10	1년 6월	단양군수로 전출
2대	이 맹 성	1947. 2. 11 ~ 1947. 2. 28	1월	가사형편 면직
3대	박 성 학	1947. 2. 29 ~ 1948. 8. 30	1년 5월	가사형편 면직
4대	이 기 두	1948. 9. 1 ~ 1949. 2. 15	2월	경작조합으로 전직
5대	이 규 홍	1949. 2. 16		
6대	김 재 엽	1949. 2. 16 ~ 1949. 8. 12	6월	

☐ 자료 : 증평읍 대장(臺帳)

주) 광복이전에 면장을 지낸 이명로, 김봉연의 증평면장에 대한 기록은 분명치 않다.

●● 역대 증평면 부면장(광복 이후)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년 수	해 면 사유
1대	정 명 용	1945. 9. 1 ~ 1946. 2. 15	6월	가사형편 면직
2대	이 백 하	1946. 2. 16 ~ 1946. 7. 15	5월	가사형편 면직
3대	이 기 두	1946. 7. 16 ~ 1947. 3. 31	8월	면장승진 면직
4대	김 재 화	1947. 4. 1 ~ 1949. 2. 16	1년 10월	읍장승진

☐ 자료 : 증평읍 대장(臺帳)

●● 역대 증평읍장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년 수	선 출 방 법	해 면 사유
1대	김 재 화	1949. 8. 13 ~ 1952. 5. 9	2년 9월		
2대	김 재 화	1952. 5. 10 ~ 1954. 1. 31	1년 8월	간 선	수리조합으로 전직
3대	봉 원 동	1954. 2. 19 ~ 1958. 1. 4	3년 11월		의원면직
4대	봉 원 동	1958. 1. 30 ~ 1960. 12. 25	2년 11월	직 선	
5대	김 영 칠	1961. 12. 26 ~ 1961. 6. 24	6월	직 선	의원면직
6대	이 치 우	1961. 6. 25 ~ 1962. 5. 8	11월		괴산군 전출
7대	김 한 식	1962. 5. 9 ~ 1962. 7. 19	2월		괴산군 전출
8대	박 준 호	1962. 7. 20 ~ 1964. 3. 23	1년 8월		청주시 전출
9대	조 국 형	1964. 4. 1 ~ 1968. 7. 5	4년 3월		의원면직
10대	김 태 경	1968. 7. 6 ~ 1971. 10. 20	3년 4월		의원면직
11대	박 현 규	1971. 10. 21 ~ 1975. 11. 19	4년 1월		문광면 전출
12대	이 달 용	1975. 10. 13 ~ 1979. 10. 12	4년		청천면 전출
13대	이 상 해	1979. 10. 13 ~ 1988. 7. 2	8년 9월		괴산군 전출
14대	성 옥 현	1988. 7. 3 ~ 1991. 1. 14	2년 6월		증평출장소 장평지소장 전출

☐ 자료 : 증평읍 대장(臺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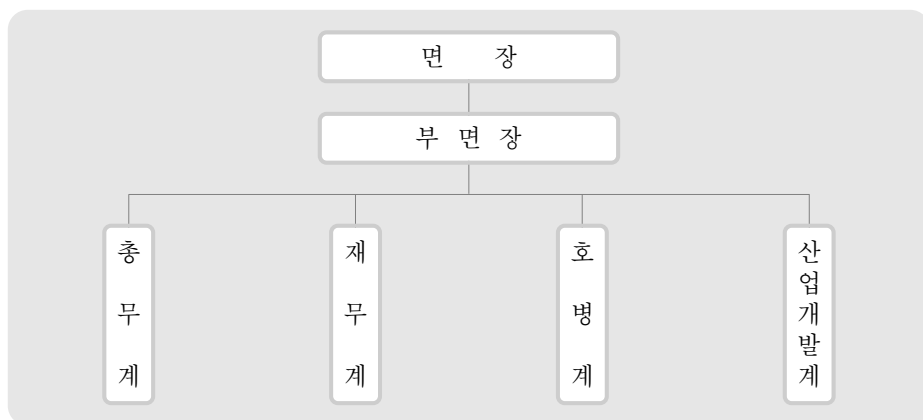
주) 이 자료는 1949년부터 1968년까지 10년간 증평읍 정원의 변동된 모습이다.

주) 제14대 성옥현 읍장은 1990년 12월 31일자 설치된 증평출장소 발족과 함께 다음해 1월 14일자 인사명령에 따라 증평출장소 장평지소장으로 전출됐다.



〈증평읍장인〉

●● 도안면 기구표(1987년)



●● 도안면 공무원 현황(1987년)

구분	보직계				직급별							
	계	면장	부면장	계장	계	별정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기타
정원	6	1	1	4	19	1	5	6	2	3	2	-

☞ 자료 : 괴산군지

●● 역대 도안면장(광복 이후)

대수	성명	재임기간	년수	해면사유
1대	연쾌희	1945. 10. 31 ~ 1951. 8. 31	5년 10월	
2대	연규환	1951. 9. 1 ~ 1952. 5. 4	8월	
3대	연규호	1952. 5. 5 ~ 1956. 6. 23	4년 1월	間選
4대	연기순	1956. 6. 24 ~ 1961. 11. 22	5년 5월	直選
5대	연시창	1961. 11. 23 ~ 1965. 2. 28	3년 3월	
6대	연규호	1965. 3. 1 ~ 1968. 6. 30	3년 4월	
7대	민병두	1968. 7. 1 ~ 1969. 7. 12	1년	
8대	연규호	1969. 7. 13 ~ 1973. 12. 12	4년 5월	
9대	연창희	1973. 12. 13 ~ 1976. 6. 2	2년 6월	
10대	성옥현	1976. 6. 3 ~ 1979. 10. 12	3년 4월	
11대	남구현	1979. 10. 13 ~ 1980. 4. 30	6월	
12대	심재석	1980. 5. 1 ~ 1982. 7. 19	2년 2월	
13대	신병철	1982. 7. 20 ~ 1984. 1. 31	1년 6월	
14대	한원출	1984. 2. 1 ~ 1984. 8. 14	6월	
15대	연창옥	1984. 8. 15 ~ 1988. 7. 1	3년 11월	
16대	이광희	1988. 7. 2 ~ 1991. 1. 14	1년 5월	증평출장소 도안지소장 전출

☞ 자료 : 도안면지

●● 역대 도안면 부면장(광복이후)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년 수	해 면 사유
1대	연 규 환	1945. 10. 31 ~ 1950. 11. 20	5년 1월	
2대	신 의 식	1950. 11. 21 ~ 1951. 8. 31	9월	
3대	박 치 덕	1951. 9. 25 ~ 1953. 5. 20	1년 8월	
4대	김 석 영	1953. 5. 21 ~ 1954. 1. 20	8월	
5대	김 홍 년	1954. 1. 21 ~ 1954. 2. 25	1월	
6대	조 성 복	1954. 2. 26 ~ 1954. 4. 15	2월	
7대	윤 영 찬	1954. 4. 16 ~ 1954. 7. 10	3월	
8대	연 재 옥	1954. 7. 11 ~ 1960. 8. 31	6년 1월	
9대	이 동 호	1960. 9. 1 ~ 1961. 6. 20	10월	
10대	유 인 호	1966. 7. 1 ~ 1967. 9. 30	1년 2월	
11대	연 채 희	1967. 10. 1 ~ 1974. 10. 19	7년	
12대	윤 동 석	1973. 10. 20 ~ 1974. 9. 14	11월	
13대	지 영 준	1974. 9. 15 ~ 1979. 2. 4	4년 5월	
14대	신 동 필	1979. 2. 5 ~ 1980. 8. 21	1년 6월	
15대	강 창 우	1980. 8. 22 ~ 1982. 1. 13	1년 5월	
16대	김 태 형	1982. 1. 14 ~ 1984. 12. 31	2년 11월	
17대	유 재 인	1985. 4. 3 ~ 1991. 1. 14	5년 8월	중평출장소 도안지소사무장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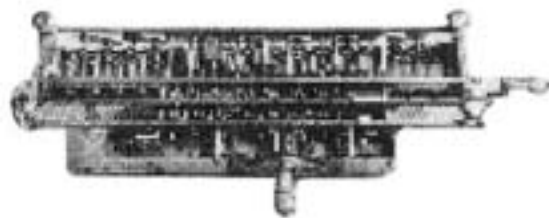


〈도안면장인〉

■ 자료 : 과산군지



〈1960년대 행정필기구〉



〈1960년대 행정용 한글타자기〉



〈1970년대 행정용 한글타자기〉



〈1960년대 행정용 한글타자기〉

4. 충청북도증평출장소 행정기구

● ● 충청북도증평출장소 기구표(1997년)



□ 자료 : 증평군 기획감사실

● ●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정·현원(1997. 7. 15일)

부서별		직급별		합 계		일 반 직																별정직		기능직	
						소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급: 2 7급: 4	8등급: 1 10등급: 30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계		132	123	95	88	1	1	2	2	7	4	22	22	26	27	25	22	12	10	6	6	31	29		
본 청		97	89	72	66	1	1	2	2	6	4	19	18	20	20	17	19	7	2	1	1	24	22		
총 무 과	소 계	23	24	15	16	1	1	1	1	1	1	4	4	5	7	2	1	1	1	1	1	7	7		
	총 무	15	16	8	9	1	1	1	1	1	1	1	1	3	5	1				1	1	6	6		
	기획예산	3	3	3	3							1	1	1	1	1	1								
	새 마을	2	2	2	2							1	1					1	1						
민 원		3	3	2	2							1	1	1	1							1	1		
재 무 과	소 계	16	14	11	10					1	1	3	3	3	4	3	2	1				5	4		
	세 무	4	4	4	4					1	1	1	1	1	1	1	1								
	경 리	8	6	4	3							1	1	1	2	1		1				4	3		
	지 적	4	4	3	3							1	1	1	1	1	1					1	1		
사 회 산 업 과	소 계	18	17	18	17					1	1	4	4	3	2	7	9	3	1						
	사 회	3	3	3	3					1	1	1	1	1			1								
	위 생	7	7	7	7							1	1			4	6	2							
	지역경제	4	3	4	3							1	1	1	1	2	1								
	농 정	4	4	4	4							1	1	1	1	1	1	1	1						

부서별		직급별		합 계		일 반 직														별정직		기능직	
						소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급: 2 7급: 4	8등급: 1 10등급: 30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환경보호과	소 계	12	(7)	8	(4)					1		2	(1	4	(2	1	(1					4	(3)
	환경관리	4		4						1		1		1		1							
	폐기물관리	(8)	(7)	(4	(4							(1	(1	(3	(2		(1					4	(3)
건설과	소 계	17	16	9	8			1	1	1		3	3	3	3	1	1					8	8
	관 리	4	3	4	3			1	1	1		1	1			1	1						
	토 목	2	2	2	2							1	1	1	1								
	수 도	11	11	3	3							1	1	2	2							8	8
도시과	소 계	11	11	11	11					1	1	3	3	2	2	3	5	2					
	도시계획	5	5	5	5					1	1	1	1			1	3	2					
	도시개발	3	3	3	3							1	1	1	1	1	1						
	건 축	3	3	3	3							1	1	1	1	1	1						
지 소		35	34	23	22					1		3	4	6	7	8	3	5	8	5	5	7	7
지소	증 천	14	14	10	10					1		1	2	3	4	3	1	2	3	2	2	2	2
	장 평	12	11	8	7							1	1	2	1	3	1	2	4	2	2	2	2
	도 안	9	9	5	5							1	1	1	2	2	1	1	1	1	3	3	



주) 환경보호과는 1991년 7월 15일자 신설됐다.

1991년 2월 1일(금) 오전 11시 이동호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한 도단위 주요 기관장 및 관내 기관·단체장,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 증평군청 광장에서 개청식이 거행됐다.

주) 좌로부터 이종배·김재욱·박홍규·김광홍·유의재·유병현·심상결씨이며, 이상범·김중구·조영창씨는 사망했고, 한대수·안창국·김종록소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증평출장소장인〉

■ 자료: 증평출장소 통계연보

주) 14대 이종배 소장은 증평군설치에 따라 민선군수 취임전일까지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증평군수 직무대행'으로 명명받아 2003년 8월 30일부터 동년 10월 29일까지 재직했다.

● ● 역대 충청북도증평출장소장

대수	성명	재임기간	근무년수	비고
1	김광홍	1991. 1. 10 ~ 1991. 7. 15	6월	
2	이상범	1991. 7. 16 ~ 1993. 1. 10	1년 6월	
3	한대수	1993. 1. 11 ~ 1994. 1. 2	1년	
4	김중구	1994. 1. 3 ~ 1994. 12. 31	1년	
5	박홍규	1995. 1. 1 ~ 1996. 1. 11	1년	
6	김중구	1996. 1. 12 ~ 1996. 7. 14	6월	
7	유의재	1996. 7. 15 ~ 1997. 7. 27	1년	
8	조영창	1997. 7. 28 ~ 1998. 1. 29	6월	
9	유병현	1998. 1. 30 ~ 1998. 3. 5	2월	
10	안창국	1998. 3. 6 ~ 1998. 8. 5	6월	
11	심상결	1998. 8. 10 ~ 1999. 12. 31	1년 5월	
12	김중록	2000. 1. 1 ~ 2001. 1. 31	1년 1월	
13	김재욱	2001. 2. 1 ~ 2002. 7. 22	1년 6월	
14	이종배	2002. 7. 23 ~ 2003. 10. 29	1년 3월	

● ● 역대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증천지소장

대수	성명	재임기간	근무년수	비고
1	연훈흠	1991. 1. 15 ~ 1991. 9. 25	8월	
2	박병길	1991. 9. 26 ~ 1995. 8. 7	3년 11월	
3	장병택	1995. 8. 8 ~ 1998. 5. 17	9월	
4	신재영	1998. 5. 18 ~ 1998. 10. 7	5월	
5	연제원	1998. 10. 8 ~ 2000. 7. 14	1년 10월	
6	최병구	2000. 7. 15 ~ 2003. 3. 2	2년 7월	
7	김복중	2003. 3. 3 ~ 2003. 8. 29	5월	

주) 증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증천지소폐지

● ● 역대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장평지소장

대수	성명	재임기간	근무년수	비고
1	성옥현	1991. 1. 28 ~ 1991. 10. 11	9월	
2	최광조	1992. 1. 18 ~ 1995. 8. 7	3년 10월	
3	박병길	1995. 8. 8 ~ 1996. 9. 25	1년 2월	
4	연서일	1996. 9. 26 ~ 1998. 10. 7	1년	
5	연희성	1998. 10. 8 ~ 1999. 9. 7	4월	
6	박정희	1999. 2. 8 ~ 1999. 9. 14	10월	
7	노명숙	1999. 9. 15 ~ 2003. 8. 29	3년 11월	

주) 증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장평지소폐지

●● 역대 충청북도증평출장소장 도안지소장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근무년수	비 고
1대	이 광 희	1991. 1. 15 ~ 1993. 6. 6	2년 5월	
2대	장 병 택	1993. 6. 7 ~ 1995. 8. 7	2년 2월	
3대	최 광 조	1995. 8. 8 ~ 1996.12.31	1년 4월	
4대	임 현 만	1997. 1. 1 ~ 1997. 9. 7	8월	
5대	양 승 열	1997. 9. 8 ~ 1998.10. 7	1년 1월	
6대	김 용 문	1998.10. 8 ~ 1999. 9.14	11월	
7대	함 영 태	1999. 9.15 ~ 2001. 2. 7	1년 4월	
8대	허 암	2001. 2. 8 ~ 2001. 9.13	7월	
9대	이 병 재	2001. 9.14 ~ 2003. 3. 2	1년 5월	
10대	연 회 성	2003. 3. 3 ~ 2003. 8.29	5월	도안면장승계

주) 증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도안지소폐지.

● 증평군 설치 기념탑 건립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체제를 마감하고 역사적인 증평군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탑을 건립하고 여기에 군설치의 역사적 과정과 이 시대의 모습을 길이길이 후대에 전하기 위한 Time Capsule을 매설했다.

기념탑은 보편적 가치를 지닌 돌탑형식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오랜 세월 위치가 변하지 않을 장소에 설치키로 결정돼 증평읍 창동리 100번지 현 증평군청 광장 한 옆에 설치하기로 했다. 기념탑내 매장될 Time Capsule에는 군설치와 관련된 자료 및 증평·도안의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수장해 100년후 개봉키로 했다.

기념탑은 충북 괴산군 청천면 원도원리 산49번지 고승관 교수(홍익대학교 미술관장)가 맡았으며, 지하 0.5m 지상 4.5m, 폭 3m의 편석탑형식이며, Time Capsule은 지름 60cm, 길이 200cm이다. 2003년 7월 14일 오후 5시 Time Capsule 매설식을 가졌고, 2003년 9월 1일 군개청식과 함께 기념탑도 제막됐다.



증평군설치기념탑

●● 군설치 기념탑 수장품목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탑건립 발의문, • 정우택의원의 발의한 법률안(51인 이름) •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안 대통령 재가 사진, • 출장소자치단체승격추진대책위원회 명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평의 노래가 담긴 CD, • 오디오테이프, 가사원본, • 증평 꿈나무들이 쓴 편지, • 증평자치단체 추진 자료(1), |
|--|---|

- 충청북도범도민대책위원회 호소문,
- 괴산군의회 특례시 승격 건의문,
- 충청북도의회 시승격 건의문,
- 증평군설치법률안 통과 촉구 선언문,
- 증평군설치실무준비단 계획 및 사진,
- 대통령님께 올리는 감사의 글,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
- 괴산군과충청북도증평출장소간의행정협약서,
- 자치단체 요구 주민결기대회 사진,
- 충청북도 기구표, 괴산군 기구표,
- 증평출장소 기구표,
- 해외출향인사가 보낸 군설치 축하서한문,
- 증평·도안 전역 지도,
- 증평군설치에 관련된 자료입력 CD,
- 증평·도안 지역 주민들의 주민등록 상황,
- 증평·도안 전경 사진,
-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안 통과 내용이 발표된 신문(원본),

- 증평자치단체 추진 자료(2),
- 『바이오도피아충북』 건설(이원중 충청북도 지사가 노무현대통령당선자에게 건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승격을 건의 내용),
- 도정보고서(이원중 충청북도지사가 노무현대통령 후보에게 보고내용)
- 1993년도 시승격추진위원회 건의서(1,123 명의 서명부),
- 1989년도 시승격추진위원회(서명부),
- 2001년도 증평발전협의회 특례시 승격 건의 서명부,
- 2002년 증평출장소통계연보,
- 증평군설치법률안이 공포된 관보,
- 증평출장소旗,
- 증평에서 생산되는 곡물,
- 증평군추진위원회 회보 제1호,
- 시승격추진 활동 자료가 담긴 CD, 수장품 총 37건.

주) 재료는 편석이며, 지하 0.5m 지상 4.5m, 폭 3m이다.

Time Capsule의 봉인은 경기도 안산시 선부3동 건인시스템(주)에서 이루어졌으며, 재료는 특수스텐레스 316L/5t-20T로 1차 내부용기는 1010(H) 430(), 2차 외부용기는 1200(H) 560()로 어떠한 화학물질 반응에도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했다. 100년 후 개봉을 대비해 만약의 경우 볼트가 변질돼 부득이 열처리로 해체할 경우에도 보존 자료에 아무런 위해가 없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좌측은 증평출장소기하기식(下旗式) 장면이며, 우측은 증평출장소현판하판식(下板式) 장면이다.

제2절 증평군 설치 및 행정조직

제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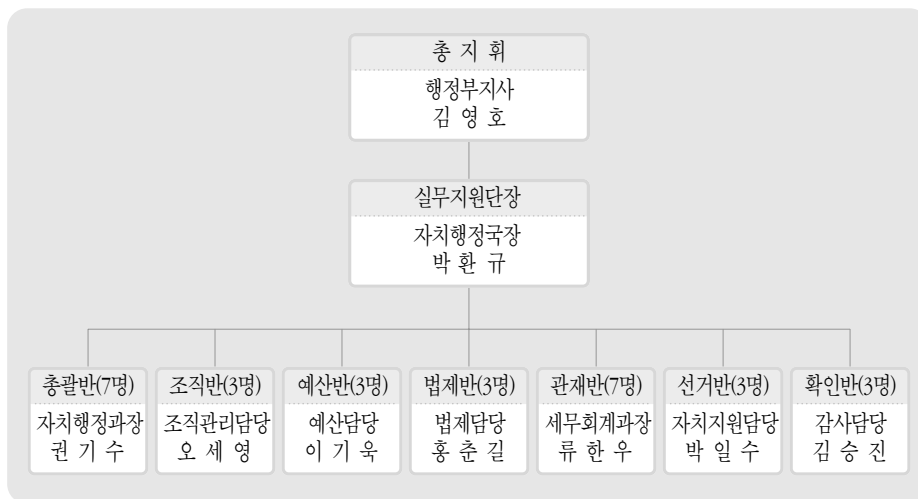
1. 군설치실무지원단 및 준비단 구성

2003년 4월 23일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행정자치위원회 통과와 동시 충청북도에서는 증평군 설치를 위한 5월 초 김영호 행정부지사를 총괄 지휘자로 하고 박환규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증평군설치실무지원단’을 구성하고 증평출장소에는 이종배 출장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증평군설치실무준비단’을 구성해 5월 16일 오후 1시 증평출장소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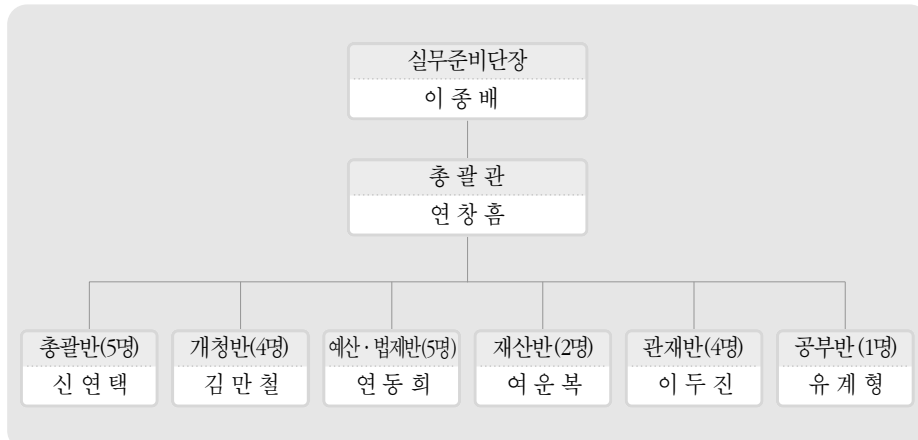
증평군설치실무단 현판식

●● 증평군설치실무지원단 기구표



주) 7개반 30명으로 구성 운영기간은 2003년 5월 ~ 11월까지로 도청 신관 3층에 지원단사무소를 설치했으며, 근무자 전원은 총무과로 근무지정을 했다.

●● 증평군설치실무준비단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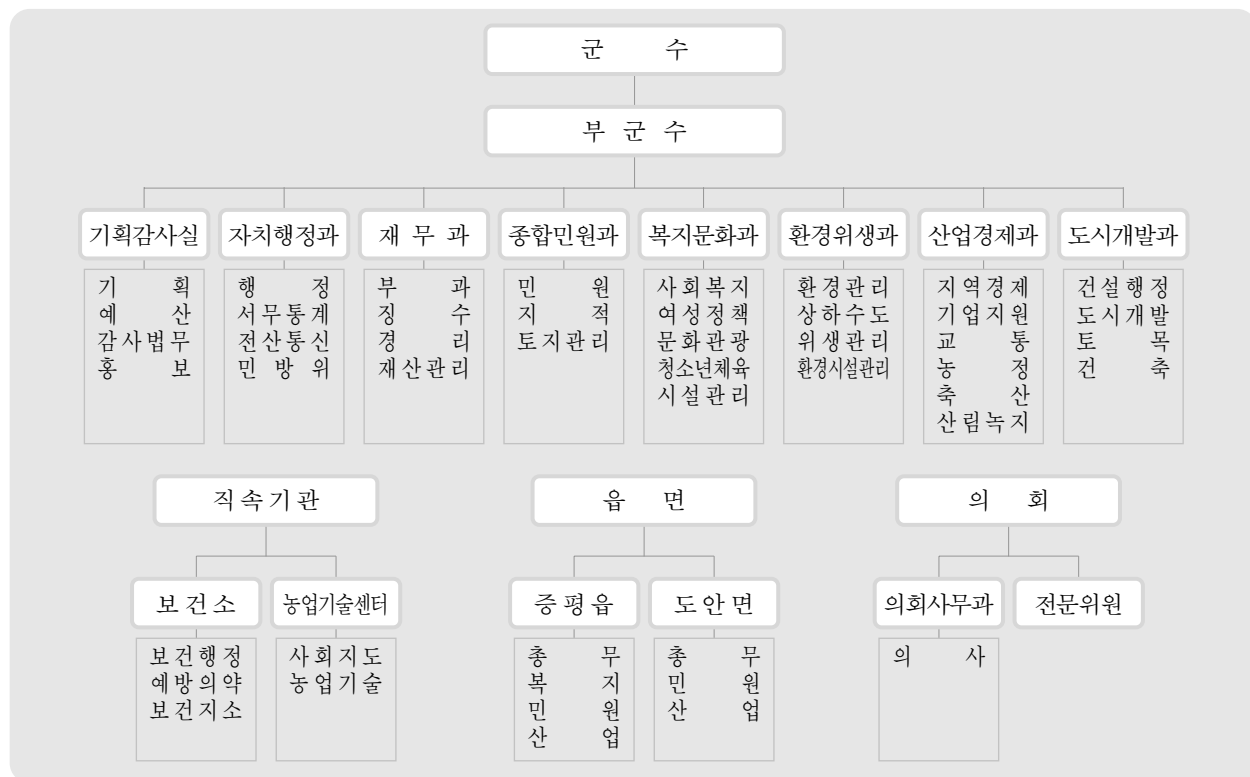


주) 충청북도 건축행정담당 연창흠을 총괄관으로 한 실무요원 5명이 파견되고, 출장소 각과 직원 17명을 차출 근무지정을 해 6개반 30명으로 구성했다.

2. 증평군 행정기구

●● 증평군 행정기구표(2003. 8. 30)

(행자부 자제12200~51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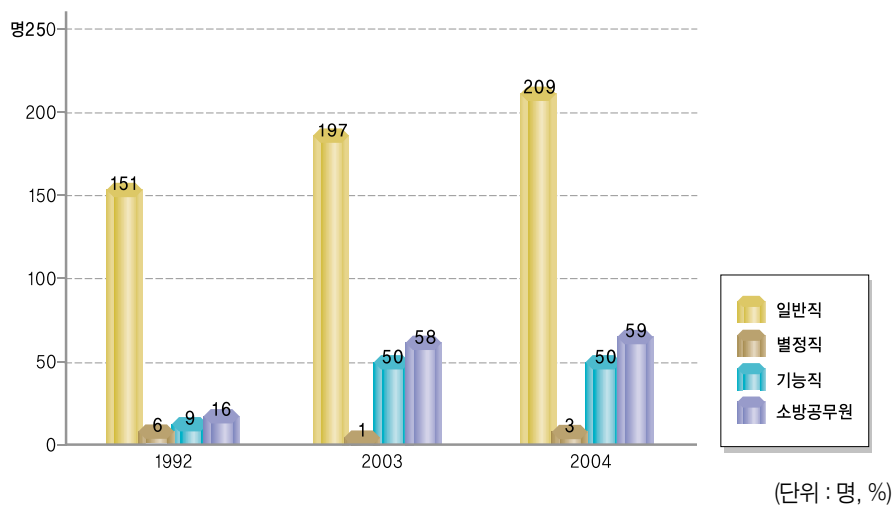
●● 증평군 공무원 정원(2003. 8. 30)

(행자부 자제12200~518호)

구분	정원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지도	
			소계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7급	8급	9급	10급		관	사
합계	248	1	187	1	2	11	44	55	40	34	50	2	8	20	20	1	1	8
본청	소계	175	138	1	1	7	34	44	29	22	36	2	7	14	13	-	-	-
	기획감사실	16	13	-	1	-	4	4	3	1	3	1	-	2	-	-	-	-
	자치행정과	27	20	1	-	1	4	8	3	3	6	-	1	3	2	-	-	-
	재무과	25	16	-	-	1	4	4	4	3	9	1	1	5	2	-	-	-
	종합민원과	13	10	-	-	1	3	3	2	1	3	-	-	1	2	-	-	-
	복지문화과	23	20	-	-	1	5	7	3	4	3	-	1	1	1	-	-	-
	환경위생과	23	17	-	-	1	4	6	3	3	6	-	3	-	3	-	-	-
	산업경제과	26	22	-	-	1	6	6	7	2	4	-	-	2	2	-	-	-
	도시개발과	22	20	-	-	1	4	6	4	5	2	-	1	-	1	-	-	-
의회	10	-	5	-	-	2	1	1	1	-	5	-	-	1	4	-	-	-
보건소	20	-	16	-	1	-	2	4	4	5	3	-	1	2	-	1	-	-
농업기술센터	11	-	-	-	-	-	-	-	-	-	2	-	-	1	1	-	1	8

구 분		정 원	정 무 직	일 반 직								기 능 직					별 정 직	지도	
				소 계	4급	4· 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 계	7급	8급	9급	10급		관	사
계	소 계	32	-	28	-	-	2	7	6	6	7	4	-	-	2	2	-	-	-
	중 평 읍	20	-	18	-	-	1	4	4	5	4	2	-	-	1	1	-	-	-
	도 안 면	12	-	10	-	-	1	3	2	1	3	2	-	-	1	1	-	-	-

●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와 증평군 정원 비교



주) 2003년 7월 21일자 행정 자치장관은 정원 284명에 1실·6과, 31담당으로 하는 증평군 기구·정원을 승인했다.

연도 및 비교		합 계	군청 공무원				소방 공무원
			소 계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1992 (출장소 개칭)/A		182	166	151	6	9	16
2003 (증평군 설치)/B		306	248	197	1	50	58
2004 (증평군 원년)/C		321	262	209	3	50	59
증감률	A대비	76.4	57.8	38.4	-50.0	455.6	268.8
	B대비	4.9	5.6	6.1	200.0	-	1.7

● ● 이관재산(관리) 현황

구 분		토 지		건 물	
		필 지	면적(m ²)	필 지	면적(m ²)
합 계		7,765	12,181,194.5	34	25,155.64
군 유 재산	소 계	2,689	4,733,916.8	13	12,676.76
	계	2,428	1,090,272.5	13	12,676.76
	공용재산	17	33,784.2	9	5,546.09
	공공용재산	2,411	1,056,488.3	4	7,130.67
	기업용재산	-	-	-	-
	보통 재산	24	3,353,465.0	-	-
	잡종재산	237	2990,179.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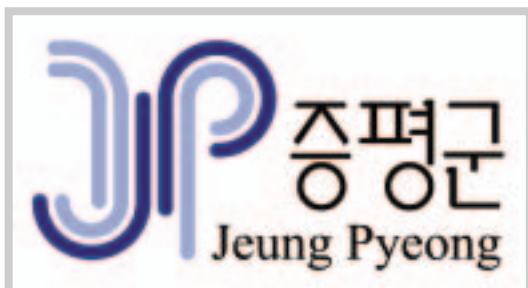
□ 자료 : 증평군 기획감사실

구 분			토 지		건 물	
			필 지	면적(m ²)	필 지	면적(m ²)
도 유 재 산	소 계		1,340	861,159.1	21	12,478.884
	행 정 재 산	계	908	438,564.8	21	12,478.884
		공용재산	3	3,120.0	6	4,636.92
		공공용재산	905	435,444.9	15	7,841.96
		기업용재산	-	-	-	-
	보통 재산	보존재산	-	-	-	-
		잡종재산	432	422,594.3	-	-
국 유 재 산	소 계		3,736	6,587,118.6	-	-
	행 정 재 산	계	3,275	6,094,672.2	-	-
		공용재산	-	-	-	-
		공공용재산	3,275	6,094,672.2	-	-
		기업용재산	-	-	-	-
	보통 재산	보존재산	-	-	-	-
		잡종재산	461	492,446.4	-	-
채 권 · 재 무			채권 29건 591,732천원, 채무(상수도지방채) 4건 6,360,000천원			

3. 증평군의 상징

2003년 8월 30일자 증평군의 설치와 함께 증평군을 상징할 새로운 이미지 개발이 절실했다. 그 이유는 정보화·국제화·브랜드화·문화행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의 무한경쟁시대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군 발전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정체된 이미지를 과감히 탈피해 미래지향적이며, 독창적이고 첨단항공우주도시 푸른 증평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인식시킬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군민의 화합과 자긍심 고취 그리고 산업구조의 발전, 지역 고유문화 활성화, 지역경제발전의 가속화를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미지와 캐릭터를 개발했다.

1) 증평군기



증평의 영어 약자인 'JP'를 모티브로 사용해 누구나 쉽게 증평을 연상케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됐다. 영문 'JP'가 여러 개의 글자로 구성돼 있어 증평군의 다양한 모습과 가능성을 역동적이고 부드럽게 그리고 유기적인 모습으로 표현해 군민의 다양한 꿈과 희망, 순수함을 같이 표현한 것이다. 또한 푸른 하늘을 연상시키는 증평볼루를 사용해 군민의 높은 이

상과 친환경을 생각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상징했으며, 한편 영문대문자 'JP' 표현은 내·외국인 모두가 증평의 이상과 발전적 미래를 쉽게 알고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2) 엠블렘

증평군의 권위와 위상을 장식적인 효과로 나타낸 것이며, 임용장, 상장, 표창장 등에 쓰이며 금색, 은색, 엠보싱, 금박, 회색망처리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활용된다.



3) 캐릭터

도심속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맑은 밤하늘의 푸른 별을 소재로 해 증평군의 청정자연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오른손에 빨간 열매는 인삼열매로 증평이 인삼의 고장임을 상징화 했다. 이것은 친근한 이미지로 군정을 홍보하거나 공공행정을 안내, 각종 군 주최 행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념품(캐릭터상품) 및 특산품의 포장 디자인으로 적용했다.



이와 같은 것은 증평군의 전략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군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에 부합되면서 독창성과 친근성을 포함한 색채와 국제적 감각에 맞는 세련미를 확보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군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공청회와 군민의견조사, 선호도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했다.

이밖에도 증평군을 상징하는 나무는 은행나무, 꽃은 백목련, 그리고 새는 보강천에 많이 날아오는 백로인데 증평출장소의 상징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즉 은행나무는 장수(長壽)의 상징이기도 하며, 예로부터 분별 있고 예절바른 것과 어떤 환경에도 오염되지 않고 생동감 있는 지역을 상징하고, 백목련은 봄소식을 가장 일찍 전하는 탐스러움을 자랑하는 꽃으로 꽃망울은 순결과 화합, 그리고 온화함, 희망·사랑·번영 등을 상징하며, 백로는 공해없는 맑은 물과 푸른산이 있는 곳에 살면서 청아함과 풍년을 예고해 주는 새로서 지역의 번영을 상징한다.

참고로 증평출장소를 상징했던 소기(所旗)는 우측의 모형과 같다.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미래지향적이고 뻗어나가는 증평, 그리고 밝은 태양은 영원성과 밝은 미래, 3개의 흰색선은 충북의 중핵도시로서의 증평의 위상과 사통팔달의 교통망, 녹색의 타원형은 살기좋은 증평으로 산업발전과 환경도시로서의 발전성을 의미한다.



4. 군정방침

郡政方針
Policy Country Administration

1. 自治行政 기틀마련
Getting Firm stand of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1. 住民感動 郡政具現
Providing moving administration to inhabitants
1. 郡民和合 열린행정
Harmony of whole county and opened administration
1. 함께하는 福祉社會
Welfare society in unison
1. 비전있는 地域開發
Foresighted local development

2003년 8월 30일 자치단체로 출범하면서 군정목표를 ‘중부권의 으뜸도시 건설’로 정하고, 방침은 신생자치단체로서의 모든 기틀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군민의 화합을 중시하는 가운데 복지수준 향상, 그리고 비전 있는 지역개발을 앞당김으로써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함께 주민모두가 감동하는 군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증평군수인〉

5. 증평군의 변화 모습

1) 각종 위원회 구성

군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최대의 민의 수렴을 위하여 참여정부의 혁신정책에 따라 군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구성했다.

●● 증평군 각종 위원회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	설치목적	위원수			여성위원	소관부서
				계	당연직	위촉직		
합계(총55개)				645	276	369	90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2003.12.15	군정주요시책 등 심의	9	9	-	-	기획감사실
증평군 업무평가위원회	법령 조례	2004. 6.24	증평군정업무 등 평가사항 심의	8	4	4	-	기획감사실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법령 조례	2005. 6. 7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규제개혁	10	5	5	1	기획감사실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	조례	2004.11.30	지역 및 군정발전 주요정책 자문	29	4	25	4	기획감사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법령 조례	2004. 1.25	지방재정운영 등 심의	11	6	5	3	기획감사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법령 조례	2004. 2.25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 배분 결정 심의	11	6	5	3	기획감사실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법령 조례	2004. 1.25	민간투자 원활한 추진	11	6	5	3	기획감사실
공직자윤리위원회	법령 조례	2003.12.22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등	5	1	4	2	기획감사실

위 원 회 명	설치 근거	설치일	설 치 목 적	위 원 수			여성 위원	소 관 부 서
				계	당연직	위촉직		
관용심사위원회	조례	2003.12.15	범규업무수행으로 발생한 잘못 관용	5	5	-	-	기획감사실
중평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	법령 조례	2003. 8.30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안 심의의결	12	12	-	1	기획감사실
지역혁신협의회	법령 조례	2004.10. 7	지역혁신 역량 창출, 활용, 확산	29	6	23	4	행 정 과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법령 조례	2004. 7.28	주민에 의한 주민의견 군정반영	8	2	6	2	행 정 과
인사위원회	법령	2003. 8.30	공무원 임면 및 승진임용 사전심의	6	3	3	1	행 정 과
공직심사위원회	조례	2003. 9.19	포상의 기준 및 절차 규정	6	6	-	1	행 정 과
보안심사위원회	법령	2003. 8.30	보안업무의 능력강화 및 심의	9	9	-	1	행 정 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훈령	2003. 9. 8	공직자 공무국외여행 적합 심의	5	5	-	1	행 정 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법령	2003.10.10	행정 투명성확보, 정보공개 결정	5	3	2	-	행 정 과
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	조례	2004. 4.29	지역정보화사업 효율적 추진	10	3	7	1	행 정 과
지리정보보안심의위원회	법령	2003.12.26	지리정보 보안업무 주요사항 심의	8	8	-	1	행 정 과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조례	2004. 5.27	행정서비스헌장 합리적 제정·운영	9	4	5	2	행 정 과
군세심의위원회	법령 조례	2003.12.15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의	8	5	3	-	재 무 과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법령 조례	2003.12.15	토지·건물 등 시가표준액 결정심의	8	5	3	-	재 무 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법령 조례	2003.12.15	지방세과세전적부 등 쟁점 심사	7	5	2	-	재 무 과
민원조정위원회	법령 조례	203.11.14	군정업무의 민원인 불편최소화	11	11	-	1	종합민원과
부동산평가위원회	법령	2003. 9.19	토지가격 적정, 효율적인 토지이용	12	6	6	-	종합민원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법령	2004. 4.16	공유토지 분할의 공정한 심의	10	6	4	-	종합민원과
개발부담금 채납정리위원회	법령	2005. 1.28	개발부담금 채납처분시 공정성	6	4	2	-	종합민원과
건축위원회	법령 조례	2004. 4. 7	건축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8	4	4	2	종합민원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법령 조례	2004. 4. 7	건축민원 분쟁, 제반사항 최소화	8	2	6	2	종합민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법령	2000.10.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책정심의	13	6	7	5	복지문화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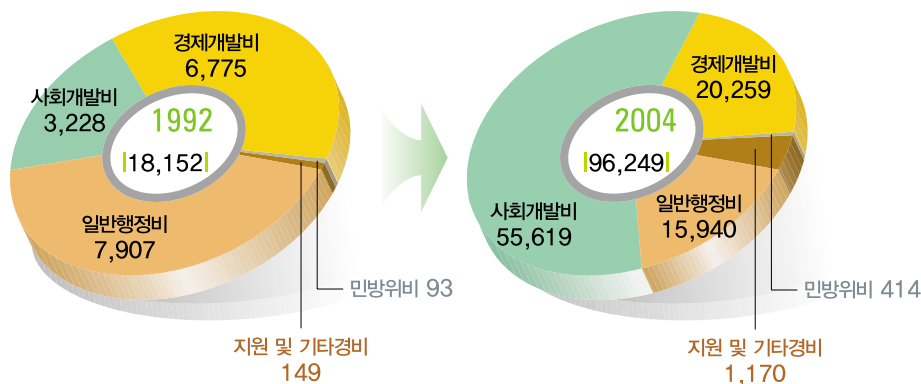
위 원 회 명	설치 근거	설치일	설 치 목 적	위 원 수			여성 위원	소 관 부 서
				계	당연직	위촉직		
의료급여심사위원회	법령	2003.10. 1	의료사업 심의	5	3	2	1	복 지 문 화 과
중평군사회복지기금위원회	조례	2005. 3.28	산재된 비지정문화재 체계적 관리	13	4	9	1	복 지 문 화 과
여성회관운영위원회	조례	2000. 9. 7	중평여성회관 원활한 운영	9	1	8	8	복 지 문 화 과
성희롱심의위원회	법령 조례	2004. 3.20	성희롱 예방	4	3	1	3	복 지 문 화 과
보육정책위원회	법령	2000. 9. 7	영유아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	11	2	9	9	복 지 문 화 과
지방청소년위원회	법령	2003.12.15	청소년 육성에 대한 자문	10	2	8	2	복 지 문 화 과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조례	2003.12.15	산재된 비지정문화재 체계적 관리	9	2	7	1	복 지 문 화 과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조례	2003.12.15	지역경제활성화, 공공요금조정 물가안정 시책 등 심의	16	5	11	5	농 업 경 제 과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지침	1999. 5. 2	공공근로사업 및 대상자 선정	9	6	3	1	농 업 경 제 과
농정심의위원회	법령	2000. 1. 1	농림사업 심의	24	4	20	2	농 업 경 제 과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법령	1991. 1.15	도로굴착에 관한사항 심의	10	6	4	-	건 설 교 통 과
군계획위원회	법령 조례	2004. 3. 1	군도시계획수립 등 심의	20	6	14	2	건 설 교 통 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법령 조례	2004. 3. 1	옥외광고물설치에 관한 심의	9	4	5	2	건 설 교 통 과
중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2005. 4.22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20	16	4	-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기금심의위원회	조례	2005. 4.22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9	9	-	-	재난안전관리과
중평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법령 조례	2005. 4.22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 정리	24	20	4	2	재난안전관리과
중평군 안전관리 자문단	법령 조례	2005. 7.22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기술적 자문	10	-	10	-	재난안전관리과
중평군 민방위협의회	법령 규칙	2005. 1.27	민방위 업무에 관한 필요사항 심의	8	6	2	-	재난안전관리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법령 조례	2004. 2.23	국민건강 증진사업계획 심의	10	2	8	-	보 건 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법령 조례	2004. 2.23	지역보건의료사업 자문 심의	14	2	12	-	보 건 소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조례	2004. 2. 9	농업육성계획 심의 조정	16	9	7	3	농업기술센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법령 조례	2003.12.30	수돗물수질검사 공표 및 수질 향상 기술방안 자문	8	1	7	1	시설관리사업소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	설치목적	위원수			여성위원	소관부서
				계	당연직	위촉직		
읍농지관리위원회	법령 조례	1990.12. 1	농지 및 허가(신고)협의	31	1	30	-	중 평 읍
면농지관리위원회	법령	1990.12. 1	농지 및 허가(신고)협의	24	1	23	-	도 안 면
면주민자치위원회	조례	2002. 9.24	주민자치센터운영 심의결정	25	-	25	6	도 안 면

2) 예산

증평균 탄생과 더불어 최초로 편성된 예산은 2003년도 증평균준예산이었으나, 2004년도 증평균세입세출예산은 정규 편성이었다. 출장소 당시의 예산규모는 550억원이었으며, 2004년 증평균의 예산규모는 962억원으로 무려 74.9%가 증가했고, 2005년도에는 104%가 증가했는데, 이와 같은 규모로 비추어 볼 때 증평균의 발전이 급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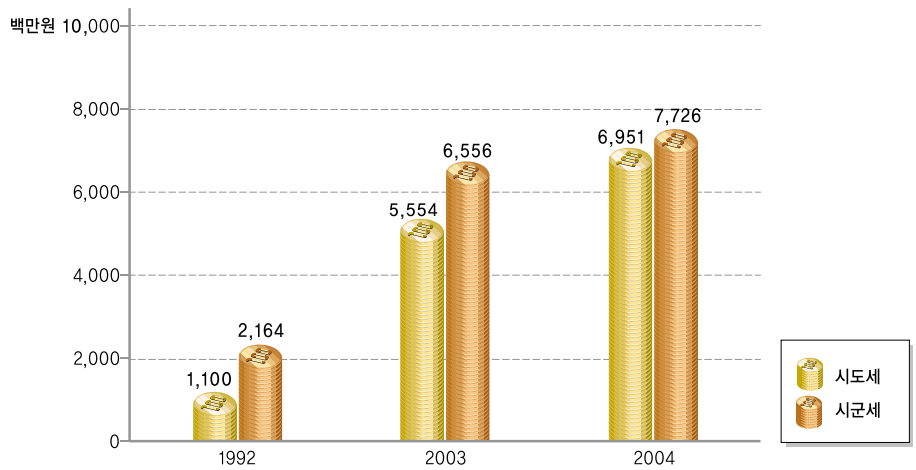
●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및 비교		합 계	일반 행정비	사회 개발비	경제 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1992 (출장소 개청)/A		18,152	7,907	3,228	6,775	93	149
2003 (증평균 설치)/B		37,573	6,616	21,412	8,330	45	1,170
2004 (증평균 원년)/C		96,249	15,940	55,619	20,259	414	4,017
증감률	A대비	430.2	101.6	1,623.0	199.0	345.2	2,596.0
	B대비	156.2	140.9	159.8	143.2	820.0	243.3

● ● 지방세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및 비교		지 방 세			인 구	1인당 부담액(원)	세 대	세대당 부담액(원)
		합 계	시도세	시군세				
1992 (출장소 개청)/A		3,264	1,100	2,164	31,339	104,151	8,460	385,816
2003 (증평균 설치)/B		12,110	5,554	6,556	31,310	386,784	11,013	1,099,629
2004 (증평균 원년)/C		14,951	6,951	7,726	30,899	483,866	11,028	1,355,730
증감률	A대비	358.0	531.9	257.0	-1.4	364.6	30.4	251.4
	B대비	23.5	25.2	17.8	-1.3	25.1	0.1	23.3

● ●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구 분		예 산 액(원)	기정예산액(원)	증 감
세입 합계		96,249,391	92,433,254	3,816,137
세 입	지방세 수입	6,907,000	6,657,000	250,000
	세외수입	14,485,193	14,543,893	△58,700
	경상적 세외수입	3,347,438	3,406,138	△58,700
	임시적 세외수입	11,137,755	11,137,755	0
	지방교부세	38,477,000	38,122,000	355,000
	지방양여금	3,798,253	3,798,253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932,153	1,682,153	250,000
	조정교부금	0	0	0
	재정교부금	1,932,153	1,682,153	250,000
	보조금	24,809,792	24,129,955	679,837
	국고보조금	11,869,232	11,416,624	452,608
	도비보조금	12,940,560	12,713,331	227,229
	지방채	5,840,000	3,500,000	2,340,000
	국내차입금	5,840,000	3,500,000	2,340,000
	국외차입금	0	0	0

구 분		예 산 액(원)	기정예산액(원)	증 감
세출 합계		96,249,391	92,433,254	3,816,137
세 입	경상예산	18,172,235	18,441,235	△269,000
	인건비	7,873,735	8,023,735	△150,000
	경상적경비	10,298,500	10,417,500	△119,000
	사업예산	63,572,133	62,333,972	1,238,161
	보조사업	37,521,960	36,413,329	1,108,631
	자체사업	26,050,173	25,920,643	129,530
	채무상환	3,405,844	1,065,844	2,340,000
	지방채상환	3,405,844	1,065,844	2,340,000
	채무부담행위상환	0	0	0
	예비비등	11,099,179	10,592,203	506,976
	예비비	2,536,295	2,029,319	506,976
	기타	8,562,884	8,562,884	0

주) 3회까지의 추정결과로
특별회계가 포함된 것임

● ● 2005년도 세입 · 세출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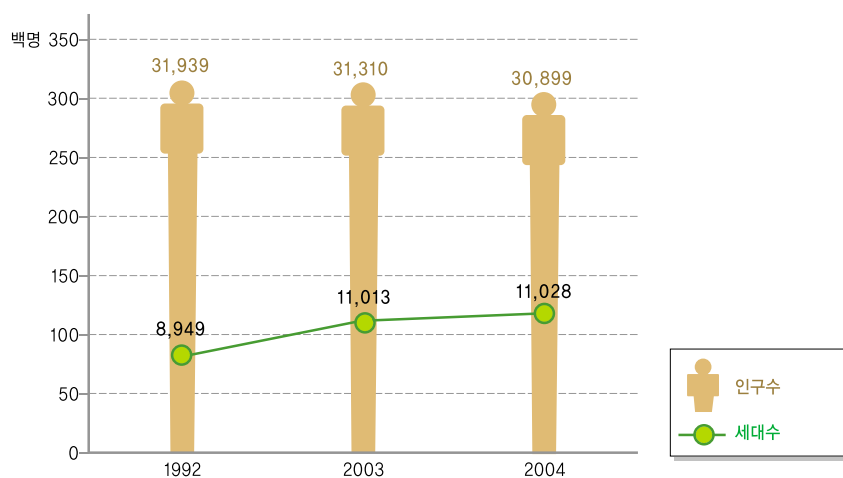
구 분		예 산 액(원)	기정예산액(원)	증 감
세입 합계		112,260,499	104,521,835	7,738,664
세 입	지방세 수입	6,885,000	6,888,000	△ 3,000
	세외수입	27,220,903	21,440,763	5,780,140
	경상적 세외수입	7,530,926	7,529,660	1,266
	임시적 세외수입	19,689,977	13,911,103	5,778,874
	지방교부세	46,425,554	44,950,000	1,475,55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722,000	1,352,000	370,000
	조정교부금	0	0	0
	재정교부금	1,722,000	1,352,000	370,000
	보조금	20,007,420	19,891,072	115,970
	국고보조금	14,623,573	14,527,873	95,700
	도비보조금	5,383,469	5,363,199	20,27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0,000,000	10,000,000	0
	국내차입금	10,000,000	10,000,000	0
	국외차입금	0	0	0
	예치금회수	0	0	0
	임시지방양여금	0	0	0
	세출 합계	112,260,499	104,521,835	7,738,664
세 출	경상예산	22,527,774	20,738,871	1,788,903
	인건비	12,609,642	11,198,575	1,411,067
	경상적경비	9,918,132	9,540,296	377,836
	사업예산	71,412,794	65,794,051	5,618,743

주) 제1회 추경포함, 일반회
계에 특별회계가 포함됐
음

구 분		예 산 액(원)	기정예산액(원)	증 감
세	보조사업	27,940,377	27,239,220	701,157
	자재사업	43,472,417	38,553,831	4,917,586
	채무상환	1,262,788	1,262,788	0
	지방채상환	1,262,788	1,262,788	0
	채무부담행위상환	0	0	0
출	예비비등	17,057,143	16,726,125	331,018
	예비비	4,244,697	4,121,395	123,302
	기타	12,812,446	12,604,730	207,716

3)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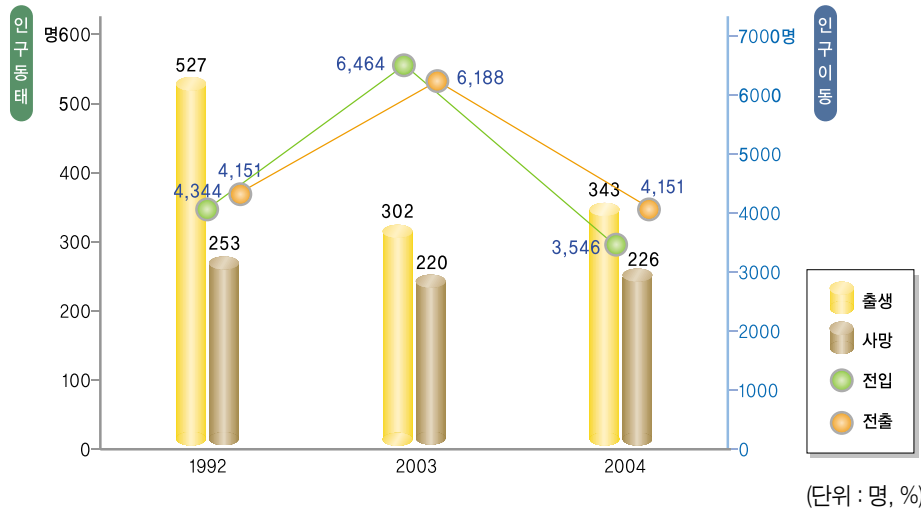
● 연도별 인구변동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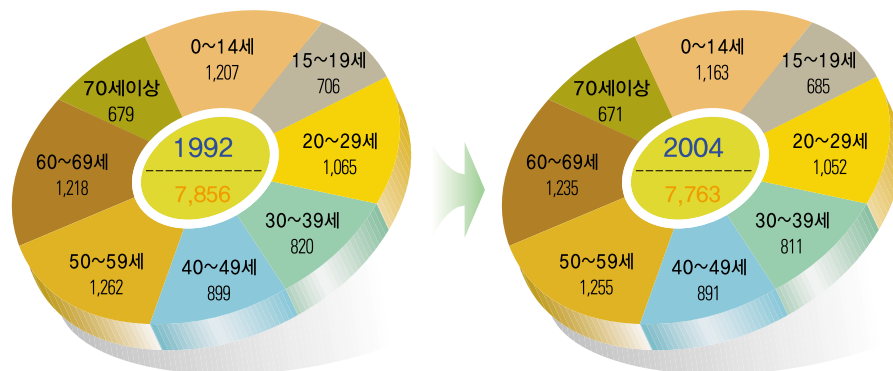
연도 및 비교		인 구 수			세대당 인구수	65세 이상
		합 계	남	여		
1992 (출장소 개청)/A		31,939	16,284	15,655	3.6	2,077
2003 (증평군 설치)/B		31,310	15,850	15,460	2.8	3,217
2004 (증평군 원년)/C		30,899	15,632	15,267	2.8	3,378
증감률	A대비	-3.3	-4.0	-2.5	-22.2	62.6
	B대비	-1.3	-1.4	-1.2	0	5.0

● ● 인구동태와 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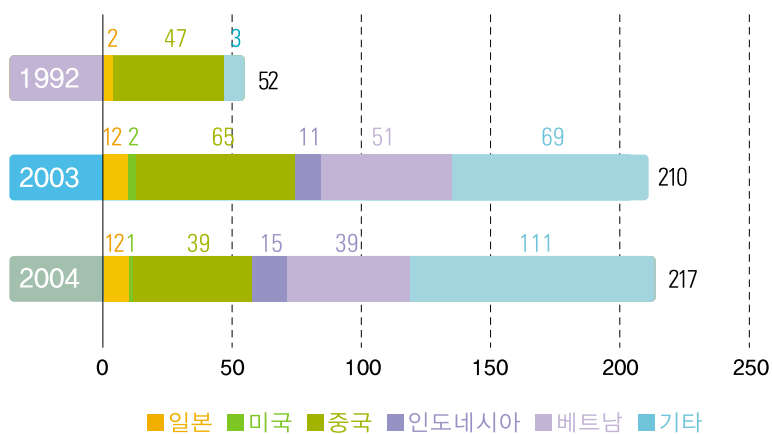
연도 및 비교		인 구 수				인 구 이 동	
		출 생	사 망	혼 인	이 혼	전 입	전 출
1992 (출장소 개청)/A		527	253	456	44	4,344	4,151
2003 (증평군 설치)/B		302	220	172	66	6,464	6,188
2004 (증평군 원년)/C		343	226	224	97	3,546	4,099
증감률	A대비	-34.9	-10.7	-50.9	120.5	-18.4	-1.3
	B대비	13.6	2.7	30.2	47.0	-45.1	-33.8

● ● 연령별 농가 인구



연도 및 비교		합계	0-14	15-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세이상
1992 (출장소 개청)/A		7,856	1,207	706	1,065	820	899	1,262	1,218	679
2003 (증평군 설치)/B		8,094	1,243	727	1,097	845	927	1,300	1,255	700
2004 (증평군 원년)/C		7,763	1,163	685	1,052	811	891	1,255	1,235	671
증감률	A대비	-1.2	-3.6	-3.0	-1.2	-1.1	-0.9	-0.6	1.4	1.2
	B대비	-4.1	-6.4	-5.8	-4.1	-4.0	-3.9	-3.5	-1.6	-4.1

● ● 외국인 등록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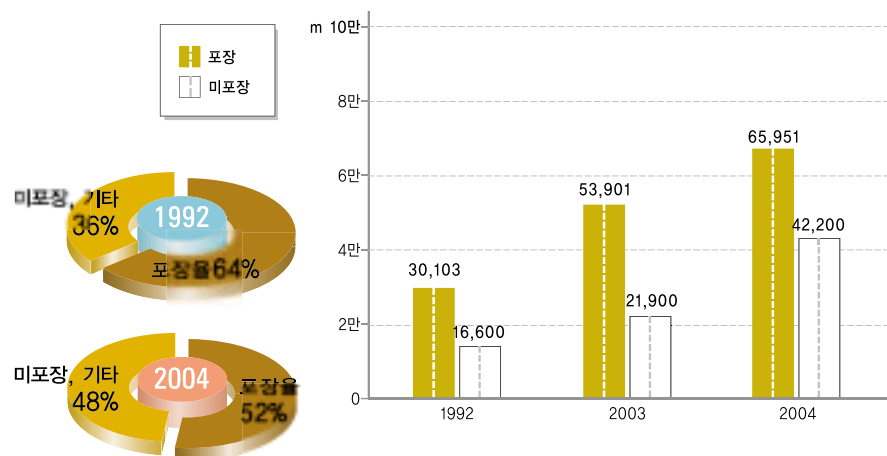


(단위: 명, %)

연도 및 비교		합 계	일 본	미 국	중 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기 타
1992 (출장소 개청)/A		52	2	-	47	-	-	3
2003 (증평군 설치)/B		210	12	2	65	11	51	69
2004 (증평군 원년)/C		217	12	1	39	15	39	111
증감률	A대비	317.3	500.0	-	-17.0	-	-	-
	B대비	33	0	-50.0	-40.0	36.4	-23.5	60.9

4)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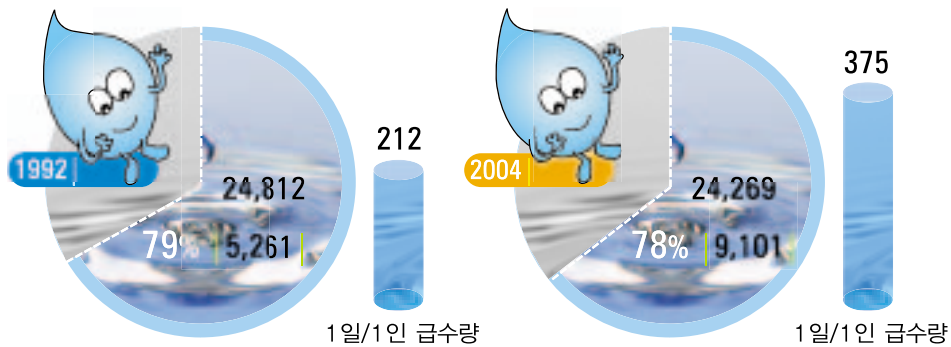
● ● 도로 확포장



(단위: m, %)

연도 및 비교		계	포 장	포장율	미포장	미개통
1992 (출장소 개청)/A		46,703	30,103	64	16,600	-
2003 (증평군 설치)/B		83,251	53,901	65	21,900	7,450
2004 (증평군 원년)/C		126,951	65,951	52	42,200	18,800
증감률	A대비	171.8	119.1	-18.8	154.2	-
	B대비	52.5	22.4	-20.0	92.7	1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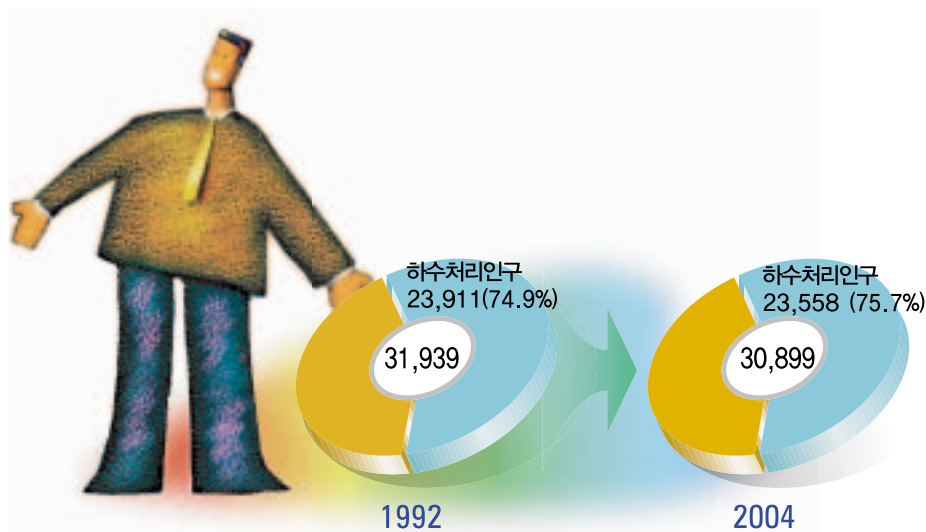
● ● 상수도 보급



(단위 : 명, Ton, %, 개)

연도 및 비교		급수지역내 인구	급수인구	보급률	급수량	1일/1인 급수량	급수전수
1992 (출장소 개청)/A		31,339	24,812	79	5,261	212	3,681
2003 (증평군 설치)/B		31,520	23,798	76	8,477	356	4,234
2004 (증평군 원년)/C		30,899	24,269	78	9,101	375	4,406
증감률	A대비	-1.4	-2.2	-1.3	73.0	76.9	19.7
	B대비	-2.0	2.0	2.6	7.4	5.3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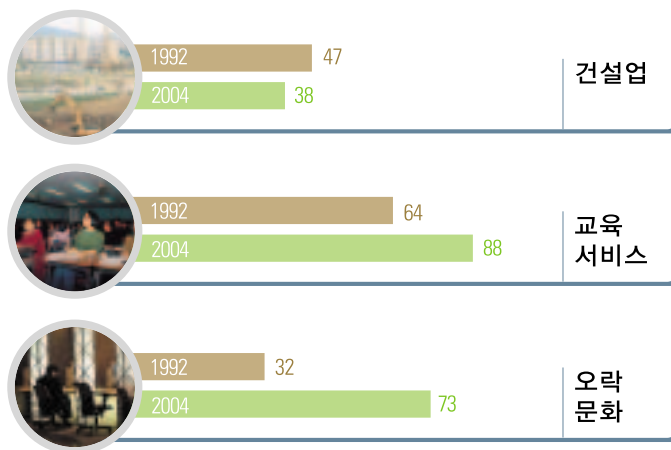
● ● 하수도 보급



(단위 : 명, %)

연도 및 비교		총 인 구	하수처리 인구	보 급 률
1992 (출장소 개청)/A		31,939	23,911	74.9
2003 (증평군 설치)/B		31,520	23,796	75.5
2004 (증평군 원년)/C		30,899	23,558	75.7
증감률	A대비	-3.3	-1.5	-1.1
	B대비	-2.0	-1.0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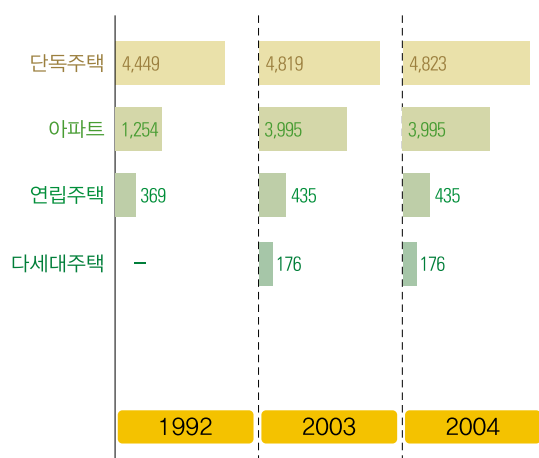
● ● 교육·문화·산업



(단위 : 개, %)

연도 및 비교		합 계	제조업	건설업	도 소 매 업	숙 박 음식점	운수업	교 육 서비스	오 락 문 화	기 타
1992 (출장소 개청)/A		2,087	170	47	796	443	171	64	32	364
2003 (증평군 설치)/B		2,195	190	34	629	503	213	89	71	486
2004 (증평군 원년)/C		2,194	183	38	611	506	227	88	73	468
증감률	A대비	5.1	7.6	-19.1	-23.2	14.2	32.7	37.5	128.1	28.6
	B대비	0	-3.7	11.8	-2.9	0.6	6.6	-1.1	2.8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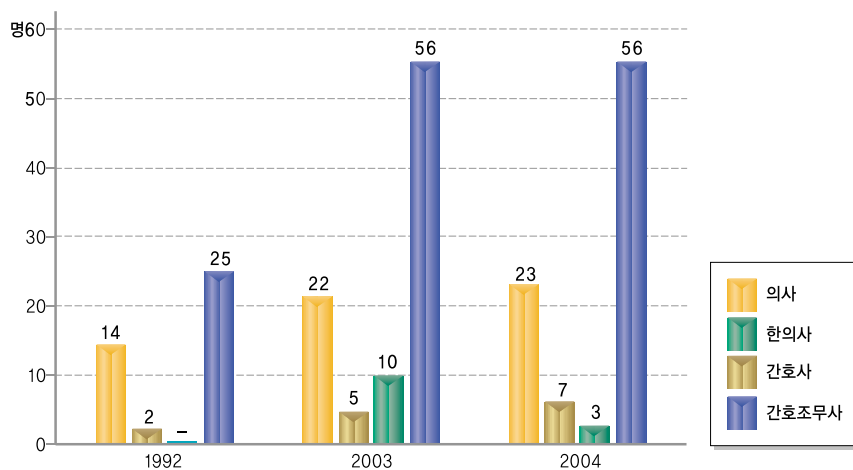
● ● 주택의 보급



(단위 : 동, %)

연도 및 비교		가구수	총주택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택보급률
1992 (출장소 개청)/A		8,460	6,072	4,449	1,254	369	-	72
2003 (증평군 설치)/B		9,055	9,425	4,819	3,995	435	176	103
2004 (증평군 원년)/C		9,040	9,429	4,823	3,995	435	176	110
증감률	A대비	6.9	55.3	8.4	218.6	17.9	-	52.8
	B대비	-0.2	0	0.1	0	0	0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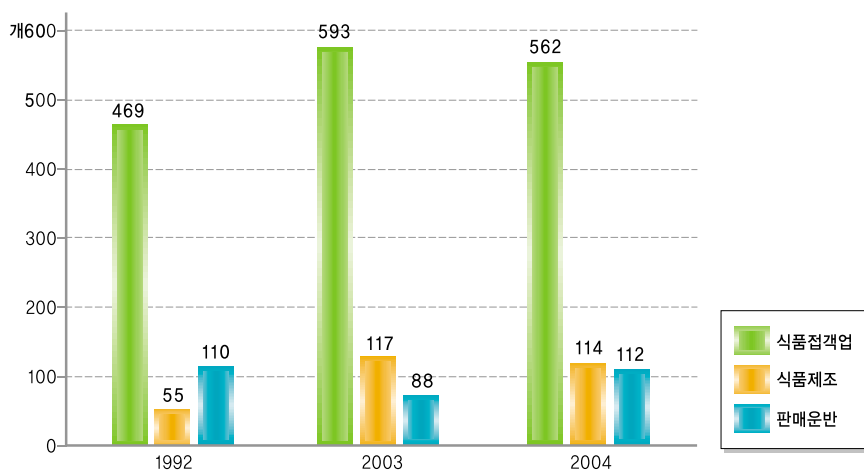
● ● 보건의료



(단위: 명, %)

연도 및 비교		합 계	의 사	치과 의사	한 의사	간 호 사	간 호 조 무 사	의 료 기 사	약 사
1992 (출장소 개청)/A		58	14	4	2	-	25	12	1
2003 (증평군 설치)/B		122	22	5	5	10	56	23	1
2004 (증평군 원년)/C		113	23	7	5	3	56	18	1
증감률	A대비	94.8	64.3	75.0	150.0	-	124.0	50.0	0
	B대비	7.4	4.5	40.0	0	-70.0	0	-21.7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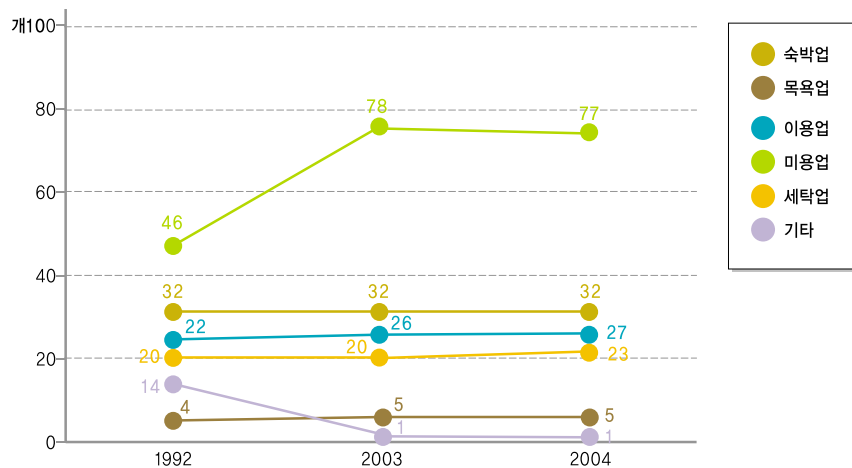
● ● 식품위생 관련업



(단위: 개, %)

연도 및 비교		합 계	식 품 접 객 업					식 품 제 조	관 매 운 반
			소 계	휴게음식	일반음식	단란주점	유흥주점		
1992 (출장소 개청)/A		634	469	42	422	5	-	55	110
2003 (증평군 설치)/B		805	593	82	476	17	18	117	88
2004 (증평군 원년)/C		788	562	60	468	17	17	114	112
증감률	A대비	24.3	19.8	42.9	10.9	240.0	-	107.3	1.8
	B대비	-2.1	-5.2	-26.8	-1.7	0	-5.6	-2.6	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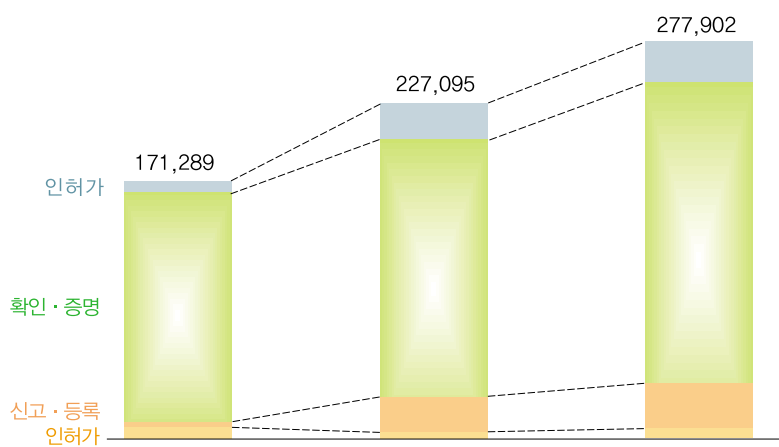
● ● 공중위생 관련업



(단위 : 개, %)

연도 및 비교		합 계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기 타
1992 (출장소 개청)/A		138	32	4	22	46	20	14
2003 (증평군 설치)/B		162	32	5	26	78	20	1
2004 (증평군 원년)/C		165	32	5	27	77	23	1
증감률	A대비	19.6	0	25.0	22.7	67.4	15.0	-92.9
	B대비	1.9	0	0	3.8	-1.3	15.0	0

● ● 민원업무 처리 현황



(단위 : 건, %)

연도 및 비교		합 계	인 허 가	신고 · 등록	확인 · 증명	기 타
1992 (출장소 개청)/A		171,289	1,306	9	169,851	123
2003 (증평군 설치)/B		227,095	490	13,703	207,402	5,500
2004 (증평군 원년)/C		277,902	599	2,525	272,566	2,212
증감률	A대비	62.2	-54.1	27,955.6	60.5	1,698.4
	B대비	22.4	22.2	-81.6	31.4	-59.8

5) 증평군 발전성과(2003년~2005년)

**증평군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 완성**

- 향후 20년 미래 청사진이 될 기틀마련

증평군 신활력지역 선정

- 3년간 매년 25억원씩 총 75억원을 확보해 신활력 자금으로 사용가능

증평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 총 사업비 709억원 투자 착공, 항공우주연구소를 비롯한 ST산업의 메카로 조성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조성사업 MOU체결

- 도안면 연촌리 일대에 총사업비 1,600억원 투자, 2010년 완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설치 MOU체결

- 금년내 증평연구소 설치 가시화

농협중앙회 증평군지부 승격

- 지부로 승격됨으로써 독자적인 농업정책사업 추진 가능

증평대교~연화간도로간 도로개설 착공

- 총 사업비 36억원 투자, 금년내 완공 예정(L=0.49km, B=40m)

보건복지타운 기반 조성 착수

- 총 사업비 23억원 투자, 기반조성 사업후 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요양시설, 충훈탑 등 설치

괴산경찰서 증평지구대 청사 신축예산 확보

- 총 사업비 6억원 확보, 금년내 착공 및 완공, 준경찰서체제로 운영 계획

인삼바이오센터 신축

- 총 사업비 35억원 투자, 금년 6월 개관함으로써 농특산물의 유통센터 기능수행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사업 추진

- 총 사업비 211억원 투자, 처리용량 15천톤/일 → 17천톤/일 (2천톤/일 증설)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3차 확장공사

- 총 사업비 27억원 투자, 관로 확장시설, 상수도보급율 80% 추진

기능성식품 특허출원

- 다이어트쌀, 다이어트국수 개발 특허출원, 기능성식품 생산체계 확보

증평군민장학회 설립

- 증평군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20억 목표 추진

군민의날 제정

- 매년 8월 30일을 군민의 날로 제정 자금심 고취

군민헌장 제정

- 군민의 윤리와 도덕 함양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 총 사업비 30억원 투자, 분뇨처리용량 50m³ 증설

보강천자연형하천 조성사업

- 총 사업비 12억원 투자, 생태가 살아 숨쉬는 군민의 쉼터로 조성

재래시장아케이트 사업

- 총 사업비 14억원 투자, 시설의 현대화로 경쟁력 배양

도안정주권 개발사업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영유아보험제도 실시

- 출생장려로 인구 증가 효과와 영유아 건강 증진 도모

●● 증평군의 미래상

New Ground 21

꿈의 도시 푸른증평

새로운
땅의 창조

New Land 21

새로운
삶의 실현

New Life 21

새로운
일의 창출

New Work 21

주민을 위해
거듭나는 도시

User city

- 편리한 도시공간 구조
- 체계화된 교통체제 구축
- 첨단정보기술도시 실현

균형있는 삶이
실현되는 도시

Well-being city

- 평생학습 도시 실현
- 청정 환경의 조성
- 상생 복지의 구현

미래의 꿈이
실현되는 도시

Fusion city

- 항공우주 산업 집적화
- 지역특화전력산업육성
- 문화관광의 비전 실현

6) 역대 군수 및 읍·면장

● ● 증평군 군수

대수	성 명	재 직 기 간	근무년수	비 고
1대	이 종 배(李種培)	2003. 8. 30 ~ 2003.10.31	2개월	군수직무대행
2대	유 명 호(柳明昊)	2003. 11. 1 ~ 현재	~	초대 민선군수

주) 증평군설치에 관한법률
(2003년5월29일 법률제
6902호)에 의거 증평군
설치

● ● 증평읍 읍장

대수	성 명	재 직 기 간	근무년수	비 고
1대	신 재 영(辛在泳)	2003. 8.30. ~ 2004. 5.20	9개월	
2대	연 희 성(延喜成)	2004. 5.21. ~ 현 재	~	

주) 증평군행정기구 설치 조
례에 의거 증평읍 신설

● ● 도안면 면장

대수	성 명	재 직 기 간	근무년수
1대	연 희 성(延喜成)	2004. 8.30 ~ 2004. 5.20	1년2월(도안지소장 승계)
2대	이 우 상(李愚相)	2004. 5.21 ~ 2005. 2.24	9월
3대	연 규 봉(延圭鳳)	2005. 2.25 ~ 2006. 1. 2	11월
4대	연 재 윤(延在允)	2006. 1. 3 ~ 현재	

주) 증평군행정기구 설치 조
례에 의거 도안면 신설

제3절 세무행정

제3절

1. 조세의 원칙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나 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는 목적으로 징수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 과료, 과태료, 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 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점에서 공유재산수입, 공공사업수입과 구별된다. 조세는 징수의 목적이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면(支辨)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이다.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세를 목적세(目的稅)라고 한다.

2. 조세제도의 변천

조세제도는 고대국가 형성기의 공납관계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선사시대에는 공동생산·공동소비를 하는 부족사회이며, 가부장사회로 세금에 대한 제도는 없었다. 이후 종족간의 정복과 피정복자의 관계에서 발생한 공납은 정복자의 물질적 기초 및 권력유지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조세의 발생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삼국시대에 이르러 중국 당나라의 조(租), 용(庸), 조(調)를 모방하면서 체계화됐는데, 국유지와 사대부들의 사유지를 경장하는 농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전세(土地稅)를 조(租)라고 하며, 수공업품인 마포(麻布)와 저포(苧布) 기타 지역 특산물 등을 정부에 바치는 것을 용(庸)이라 한다. 군역(軍役)과 노역(勞役)은 서민들의 장정을 징발해 대·소역사(役事)를 부담케 하는 것을 조(調)라고 하는 대체적으로 농민들이 부담했다. 이와 같은 것은 전조(田租)와 장정(壯丁)에게 부과되는 인두세(人頭稅), 호(戶)에 부과되는 호세(戶稅) 등으로 변천됐다.

통일신라시대 때는 사회체제가 봉건제도로 바뀌면서 토지의 사유화가 확대되는 등 국가재정을 충당해야 하는 조세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시기였다.

고려시대에는 전조(田租), 공세(貢稅), 요역(徭役), 군역(軍役) 등이 있었는데, 신라 말 확대된 사전(私田) 때문에 공전(公田)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백성들의 전조(田租) 부담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지방특산물에 한정됐던 공세(貢稅)는 연초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상공(常貢)과 수시로 부과하는 별공(別貢)으로 나뉘었으며, 이밖에 대납세(代納制), 공납청부제(貢納請負制) 추정제(推進制), 예정제(豫定制) 등이 있었다. 한편 16~60세의 농가 장정(壯丁)에게 부과한 요역(徭役), 군역(軍役)은 주로 궁전수축(宮殿修築), 사원신축(寺院新築), 성곽축조(城郭築造) 등 비생산적 노동에 이용됐고, 전쟁중에는 농병으로 동원됐다. 몽고침략 이후 국가 재정이 파국 상태에 이르자 조정에서는 품관(品官)에게까지 각종 품세를 징수했으며, 농민들에게는 산세(山稅), 선세(船稅), 해세(海稅), 염세(鹽稅), 장세(匠稅) 등 각종 잡세(雜稅)를 만들어 징수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말의 세제를 답습하다가 체제가 정비돼 감에 따라 태종 원년(1401년)에 정부에서 관리를 현지에 파견해 예상수확량을 답사해 개인별 과세량을 결정하는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을 제정·시행했으며, 세종 23년(1441년)에는 수년간의 수확고를 평균으로 나누워 1년의 수확량을 산정해 세율을 정하는 공법(貢法)을 마련해 같이 시행하다가 1944년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으로 개선했다. 전분연분법은 토지의 비척(肥瘠)에 따라 토지등급을 6등전으로 하고, 매년 작황을 9등급(연분)으로 나누었는데, 여기에 수등이척제(隨等異尺制)를 적용, 전분(田分)에 따라 양척(量尺)의 길이를 다르게 했다.

공납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광해군 즉위년(1608년)에 미곡(米穀)을 전결(田結)에 따라 부과·징수해 이 미곡으로 현물을 구입 사용하는 대동법을 실시했다. 이는 세원을 토지의 수익으로 단일화하고 정률세제(定率稅制)를 확립한 것으로 금납(金納)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조세제도 사상 가장 획기적·혁신적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는 효종 2년(1651년) 8월부터 시행했으며, 춘추 2기로 나누어 전(田) 1결당(結當) 세미(稅米) 5두(斗)씩 년 10두를 징수하다가 후에 12두씩 징수했다.

한편, 군역은 군포제가 정착돼 장정(壯丁) 수를 기준으로 호의 등급에 따라 배분됐으나 결국은 힘없고 빈곤한 농민들만 부담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부담을 덜고 군포감액분의 보전재원을 구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영조 27년(1751년)에 시행된 균역법(均役法)이다.

임진왜란 때는 전세(田稅), 대동미, 결작, 삼수미(三手米), 포량(砲糧) 등의 각종 특별세(特別稅)와 작지(作紙), 역가(役價), 잡비, 선가(船價) 등의 부가세(附加稅)가 있었고, 백골징포(白骨徵布), 황구첨정(黃口簽丁) 등 농민을 착취하는 각종 세제(稅制)가 있었다. 하지만 1794년 정조(正祖)가 전라도 강진 등 6개 읍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린다는 보고를 받고 조세(租稅)를 감면한다는 훈유문(訓諭文)을 발송한 내용을 보아 조세의 구제제도(救濟制度)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화기 이후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조선은 19세기 이후 서구 자본주의 열강의 침입으로 재정파탄 상태에 이르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항세(港稅)를 마련했으며, 세제의 근대화가 추진된 것은 고종 31년(1894년) 갑오개혁 때로서 각종 조세를 지세(地稅)위주의 금납제(金納制)로 했다.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제 실시 과정으로 군세와 지방세를 분리시킴에 따라 광무 10년(1906년)에 칙령 제60호로 국세징수 규정을 제정·실시하다 융희 3년(1909년) 2월 18일 법률 제5호로 제정 국세징수법과 도지부령(度支部令) 제6호로 제정한 국세징수법시행세칙에 의한 국세는 지세(地稅), 호세(戶稅), 가옥세(家屋稅), 선세(船稅), 염세(鹽稅), 주세(酒稅), 연초세(煙草稅), 인삼세(人蔘稅) 등이 있었으며, 면장에게 위탁해 징수하고, 면의 세무담당공무원중 재무서장(財務署長)이 인허(認許)한 공전수납원(公錢收納員)이 영수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는 광무 10년(1906년) 12월 칙령 제81호로 제정·공포된 지방세규칙으로서 최초의 근대적 지방재정의 기틀을 마련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1907년 12월 도지부령 제6호로 공포된 지방세규칙시행세칙과 동년 3월에 징세납부규정이 공포됨으로써 역사적인 지방세제도의 시행이 이뤄졌다.

그러나 지방세 징수방법은 간접징수방법으로 국고수입증지로 납부토록하고 지방세가 국고에 수납되면 수납세액의 7%를 국고수납사무비로 공제한 금

액을 소관 지방세 당국의 청구에 따라 지방세취급은행(금고)에 송금토록 했으나 2년 후 폐지되고 지방비법으로 대체됐다.

당시의 세목은 영업세(營業稅), 포구세(浦口稅)(유통세로 최초 통과에 한함), 교세(橋稅)(가마 소유자), 인력거세(人力車稅)(물건소유자), 인전차세(人轉車稅)(물건소유자), 여객세(旅客稅)(객주), 하차세(荷車稅)(牛馬車, 牛挽車), 화세(花稅)(妓生의 人頭稅) 등이 있었다. 비과세 대상은 정부가 발행한 수입 인지(印紙), 도량형기의 방매, 자기의 채굴(採掘)이나 채광(採鑛)한 광물, 자기가 경작한 농산물의 방매, 황실 및 관유 가마(輜)였고, 경비 지변(支辨)에 관한 것은 지방토목에 관한 경비, 지방관청 청사신축 및 수선에 관한 경비, 교육에 관한 경비, 경찰, 위생, 병원, 구휼, 자선에 관한 경비, 근업(勤業)에 관한 경비, 지방관청의 경비보급, 기타 지방 공공상(公共上) 필요한 사업에 관한 보조금 등이었다.

융희 3년(1909년) 4월 1일 법률 제12호로 제정·공포된 지방비법에서 지방



증평 5일장 장돌시장

세의 세목과 세율을 정하지 않고 각 도(道)의 관찰사가 납기와 기타 부과에 필요한 규정을 내무부 대신과 도지부(度支部) 대신(大臣)의 인가를 얻어 도령(道令)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비 충당을 위해 내무부 대신의 인가를 얻어 부역(負役)이나 현품을 부과하거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세금금과 부역·현품의 감세(減稅) 또는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현행 제도의 시초가 되는 특기할 만한 것이다. 당시 도령(道令)으로 신설된 세목은

시장세(市場稅), 도축세(屠畜稅), 취득세(取得稅), 지세부가세(地稅附加稅)가 있었는데, 시장세는 상설점포를 포함해 모든 점포의 물품판매금액의 100분의 1을 징수하고, 도축세는 소 1마리당 1원, 돼지나 양 1마리당 20전을 징수했으며,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4, 지세부가세는 국세인 지세(地稅)의 100분의 10을 징수했다.

일제치하에서 조선총독부는 식민통치를 위해 조직을 정비·강화하고 토지제도도 정비했으며, 1914년에 시가지세 부가세를 신설하고, 1918년에 호별세(戶別稅), 1919년에 국세인 호세(戶稅)와 가실세(家室稅), 1920년에 어업세(漁業稅)와 선세(船稅)를 이양하고 1923년에는 차량세(車輛稅)를 신설했다.

한편, 면제는 1916년까지는 면에 자치능력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국가의 기관으로서 면장이 재정의 주체가 돼 면세를 부과했으며, 1916년까지 호별세와 지세할(地稅割)을 부과했고, 1917년에는 면제(面制)실시와 함께 영업할(營業割)과 잡종할(雜種割)을 신설했으며, 동·이장의 수당에 충당하기 위한 미맥(米麥) 등의 현물을 부과했다. 1926년 세제조사위원회를 발족해 일반소득세를 기간세로 하고 수익세는 보완세로 한다는 장기세제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1934년에는 일반개인소득세가 신설되고, 1943년에는 특별행위세, 직물세가 신설됐다. 당시의 도세는 국세부가세에 지세부가세, 광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거래소세부가세, 제1종소득세부가세가 있었고, 특별세로는 호별세, 가실세, 임야세, 특별소득세, 도장세(屠場稅)·도축세, 어업세, 차량세, 부동산취득세가 있었으며, 읍·면세에는 국세부가세인 지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광업세부가세, 제1종소득세부가세와 도세부가세인 호별세부가세, 가실세부가세, 차량세부가세, 특별소득세부가세, 부동산취득세부가세와 특별세인 특별영업세할·잡종세가 있었다.

광복 이후 미군정기에는 일제강점기의 세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개정을 진행해 오다가 1946년 10월 15일 군정법령 제109호에 의거 세제(稅制)를 대폭 개정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호별세, 가실세, 임야세, 도장도축세, 어업세, 차량세, 부동산취득세, 입정세(入亭稅) 등 도세와 잡세 등의 읍·면세를 개정했으며, 1949년부터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재정제도 확립 및 경제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1949년 12월 22일 법률 제84호로 지방세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지방세제도를 확립했으며, 현행 제도는 1961년 12월 8일 법률 제827호로 공포된 지방세법에 근거하고 있다.



증평도축장 도축

3. 현행 조세의 종류



차량

조세의 종류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며,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가 있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또다시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되는데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가 있고 시·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면허세가 있다.

4. 지방세 부과

중평·도안의 지방세 세목별 부과현황을 소상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하기가 어렵다. 다만 1961년도 충청북도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도내 읍세와 면세 현황이 있어 이를 토대로 설명코자 한다.

1957년도에 지방세는 자동차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광세(鑛稅)부가세, 호별세(戶別稅) 및 동 부가세, 가옥세 및 동 부가세, 임야세 및 동 부가세, 도축세 및 동 부가세, 어업세 및 동 부가세, 차량세 및 동 부가세, 취득세 및 동 부가세, 특별행위세 및 동 부가세, 동력세 및 동 부가세, 선세(船稅) 및 동 부가세, 면허세 및 동 부가세, 교통세, 소방공동시설세, 도로정비시설세가 있었으며, 이를 다시 도세(道稅), 시세(市稅), 읍세(邑稅), 면세(面稅)로 구분했으며, 연도별 부과·징수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세 부과징수 총괄

(단위 : 천원)

연도	도 세		시 세		읍 세		면 세	
	부 과	징 수	부 과	징 수	부 과	징 수	부 과	징 수
1957	220,011,173	210,415,670	97,664,320	84,043,819	38,864,811	88,085,663	121,980,347	120,943,157
1958	244,782,664	236,027,175	105,288,868	64,027,140	44,800,126	44,653,210	138,407,294	136,741,965
1959	286,657,455	280,619,863	115,023,665	112,003,493	50,402,250	50,402,250	161,354,720	158,869,894
1960	301,217,535	286,898,176	124,518,726	119,465,695	51,638,767	51,638,767	170,251,365	164,912,113

□ 자료 : 충청북도 1961년 통계연보

●● 세목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읍 세		면 세	
	부 과	징 수	부 과	징 수
자동차세 부과세	3,648,825	3,542,550	2,905,525	1,860,374
영업세부가세	7,263,959	7,151,052	10,628,602	10,403,896
광세부가세	2,800	2,800	42,921	42,921
호별세 및 동 부가세	18,639,709	18,406,326	46,298,488	45,268,432
가옥세 및 동 부가세	5,816,496	5,730,447	28,935,438	28,671,412
임야세 및 동 부가세	168,147	167,830	3,094,968	2,903,074
도축세 및 동 부가세	2,063,500	2,063,500	3,714,500	3,714,500
어업세 및 동 부가세	-	-	-	-
차량세 및 동 부가세	938,839	912,469	4,157,763	3,975,243
취득세 및 동 부가세	8,805,607	8,522,944	61,266,223	59,395,959
특별행위세 및 동 부가세	1,871,750	1,605,660	2,553,600	2,315,100
동력세 및 동 부가세	232,915	227,665	1,685,547	1,607,532
선세 및 동 부가세	-	-	540	540
면허세 및 동 부가세	1,844,970	1,784,041	4,928,873	4,714,753
교통세	281,250	254,250	-	-
소방공동시설세	-	-	-	-
도로정비시설세	-	-	-	-

☐ 자료 : 충청북도 1961년 통계연보

●● 세부담 상황

(단위 : 천원)

구분	국 세	읍 세			총 액	인구수	1인당 부담액
		계	직접세	간접세			
1957	1,145,364,340	478,520,651	437,652,570	40,868,081	1,623,884,991	1,206,696	1,346
1958	1,437,552,703	533,278,952	493,982,247	39,596,705	1,970,831,655	1,218,884	1,617
1959	2,003,432,497	613,438,090	575,775,345	37,662,745	2,916,870,587	1,265,221	2,551
1960	2,114,183,481	639,981,817	602,738,667	37,243,150	2,754,165,298	1,369,313	2,011

☐ 자료 : 충청북도 1961년 통계연보

●● 증평읍 국세 징수액

연 도	조 정 액		불입액	체납액	부 담 액		비 고
	물 납	금 납			1호당	1인당	
1945	-	1,233,219	880,871	35,348	474	69	
1946	-	1,424,455	1,017,468	406,987	533	77	
1947	-	3,133,936	2,238,528	895,408	1,127	164	
1948	-	5,147,458	3,676,756	147,702	1,831	264	

연 도	조 정 액		불입액	체납액	부 담 액		비 고
	물 납	금 납			1호당	1인당	
1949	-	5,603,194	4,002,282	1,600,912	1,948	280	
1950	-	6,938,702	4,956,216	1,982,486	2,451	347	
1951	-	55,130,375	47,240,746	11,889,629	19,560	2,950	
1952	-	1,499,942	1,071,388	428,555	524	74	
1953	-	2,226,784	1,590,560	636,224	723	111	
1954	-	733,128	4,865,185	2,465,943	2,545	365	
1955	-	10,258,254	8,634,951	1,623,505	3,537	512	
1956	-	-	-	-	-	-	
1957	-	7,476,167	4,743,816	2,832,351	2,459	377	
1958	-	8,944,995	6,964,580	1,980,415	3,032	443	

☐ 자료 : 증평읍 통계

주) 단위는 원으로 추정되며, 1956년 통계는 누락됐다.

● ● 증평읍 도세 징수액

연 도	조 정 액	수 입 액	미수입액	부 담 액		비 고
				1호당	1인당	
1945	326,957	326,957	-	126	19	
1946	339,156	239,156	-	127	19	
1947	746,176	746,176	-	268	39	
1948	1,225,553	1,225,552	-	437	62	
1949	1,334,094	1,334,094	-	473	67	
1950	1,652,072	1,652,072	-	583	85	
1951	12,864,874	12,864,874	-	456	643	
1952	357,096	357,096	-	124	18	
1953	730,347	730,347	-	254	42	
1954	2,364,093	2,364,093	-	819	118	
1955	10,797,141	7,276,591	3,520,550	3,739	522	
1956	-	-	-	-	-	
1957	11,989,697	6,053,116	5,936,581	3,889	583	
1958	10,291,654	7,760,885	2,530,769	3,486	509	
1970	1,895,793	?	?	427	80	
1975	34,130	?	?	1,354	242	
1979	43,276	?	?	8,634	1,685	

☐ 자료 : 증평읍 통계

주) 단위는 원으로 추정되며, 1956년 통계는 누락됐다.

주) 1958년 이후 통계는 확인된 것만 기재했으며, 1975년과 1979년 통계는 천원 단위이다.

●● 도안면 도세 징수현황

연 도	조 정 액	수 입 액	미수입액	부 담 액		비 고
				1호당	1인당	
1970	172,312원	?	?	152원	27원	
1975	1,244천원	?	?	1,118천원	198천원	
1979	3,313천원	?	?	3,219천원	600천원	

☐ 자료 : 괴산군 통계연보
1971년, 1976년, 1980년
도 편

●● 읍세 징수 현황

연 도	조 정 액	수 입 액	미수입액	부 담 액		비 고
				1호당	1인당	
1945	323,985	297,234	26,751	125	18	
1946	330,740	308,324	22,416	124	18	
1947	732,259	698,343	53,917	263	39	
1948	1,215,151	124,139	101,012	434	63	
1949	1,309,838	1,212,813	97,025	466	66	
1950	1,622,034	1,501,884	120,150	573	82	
1951	11,071,685	1,015,754	914,175	389	553	
1952	351,095	325,088	36,007	122	18	
1953	677,752	627,548	50,204	236	34	
1954	2,942,826	2,750,305	192,521	107	147	
1955	7,123,766	6,538,253	585,513	2,458	355	
1956	-	-	-	-	-	
1957	5,420,102	524,817	205,385	1,758	271	
1958	6,619,584	6,338,210	281,374	2,239	328	

주) 단위는 원으로 추정되며, 1956년 통계는 누락됐다.

☐ 자료 : 증평읍 통계

●● 증평읍 · 도안면 도세 세목별 징수현황

연 도		계	취득세	유흥음식세	자동차세	면허세	도축세	주민세
1970	증평	1,887,463	918,618	431,274	328,821	116,190	92,560	
	도안	165,853	114,751	15,720	10,352	21,320	3,710	
1975	증평	7,928	4,384	1,694	630	373	223	624
	도안	1,232	958	22	71	61	-	120

주) 1970년도 단위는 원이며, 1975년도 단위는 천원이다.

☐ 자료 : 괴산군 1971년,
1976년 통계연보.

●● 증평읍·도안면 군세 세목별 징수현황

연 도	계	재산세	농지세	목적세	취득세 부가세	유흥음식세 부 가 세	자동차세 부 가 세	면허세 부가세	도축세 부가세	주민세
1970	증평	5,946,240	1,218,634	2,434,755	538,233	918,118	427,728	197,292	118,920	92,560
	도안	1,807,076	245,255	1,400,509	-	114,751	18,120	6,211	18,520	3,710
1975	증평	42,654	7,714	21,292	3,820	4,384	1,694	630	399	223
	도안	10,953	866	8,494	-	958	22	71	61	-

□ 자료 : 과 산 군 1971년,
1976년 통계연보

주) 1970년도 단위는 원이며, 1975년도 단위는 천원이다.

●● 증평출장소 지방세 징수

연도 및 구분		부 과 액 (천원)	징 수 액 (천원)	결 손 액 (천원)	미 수 액 (천원)
1992	계	5,023,522	4,863,745	-	159,777
	도세	1,987,235	1,939,967	-	47,268
	군세	3,036,287	2,923,778	-	112,509
1993	계	6,410,638	6,274,814	-	135,824
	도세	2,650,481	2,621,221	-	29,260
	군세	3,760,157	3,653,593	-	106,564
1994	계	6,736,459	6,504,589	-	231,870
	도세	2,137,377	2,098,949	-	38,428
	군세	4,599,082	4,405,640	-	193,442
1995	계	8,106,050	7,794,983	-	311,067
	도세	2,662,343	2,617,805	-	44,538
	군세	5,443,707	5,177,178	-	266,529
1996	계	9,468,442	9,029,695	83,847	354,900
	도세	3,513,714	3,412,371	27,920	73,423
	군세	5,954,728	5,617,324	55,927	281,477
1997	계	8,630,260	7,959,781	134,881	535,598
	도세	2,776,118	2,666,370	13,699	96,049
	군세	5,854,142	5,293,411	121,182	439,549
1998	계	8,329,864	7,556,447	74,815	698,602
	도세	2,082,423	1,934,652	48,493	99,278
	군세	6,247,441	5,621,795	26,322	599,324
1999	계	9,011,643	8,018,148	88,835	904,660
	도세	2,919,785	2,790,287	54,247	75,251
	군세	6,091,858	5,227,861	34,588	829,409
2000	계	10,039,191	8,985,706	34,151	1,019,334
	도세	2,999,709	2,895,483	7,793	96,433
	군세	7,039,482	6,090,223	26,358	922,901

연도 및 구분		부 과 액 (천원)	징 수 액 (천원)	결 손 액 (천원)	미 수 액 (천원)
2001	계	12,831,551	11,683,229	106,344	1,041,978
	도세	5,282,779	5,101,075	29,833	151,871
	군세	7,548,772	6,582,154	76,511	890,107
2002	계	13,006,874	11,593,058	454,584	959,232
	도세	5,861,976	5,510,366	101,640	249,970
	군세	7,144,898	6,082,692	352,944	709,262
2003	계	13,479,322	12,110,215	-	1,369,107
	도세	5,951,779	5,553,749	-	398,030
	군세	7,527,543	6,556,466	-	971,077

주) 2003년도 8월 30일 이후는 증평균으로 전환됐으나 자료의 속성상 증평균장소 통계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었다.

☐ 자료 : 증평균장소 통계연
보, 각 연도

●● 증평균 지방세 징수

연도 및 구분		부 과 액 (천원)	징 수 액 (천원)	결 손 액 (천원)	미 수 액 (천원)
2004	계	16,660,533	14,922,119	296,270	1,442,144
	도세	7,569,028	7,054,469	86,910	427,649
	군세	9,091,505	7,867,650	209,360	1,014,495

☐ 자료 : 증평균 재무과

●● 세목별 지방세 구조 및 증감률

(단위 : 백만원, %)

연도 및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보통세	주민세	788	21.6	698	-11.4	1,170	67.6	1,111	-5.0	1,158	4.2
	재산세	320	10.0	306	-4.4	322	5.2	355	10.2	357	0.6
	자동차세	1,355	6.7	1,143	-15.6	1,159	1.4	1,073	-7.4	941	-12.3
	주행세	-	-	-	-	147	-	333	126.5	464	39.3
	종합토지세	455	-5.6	483	6.2	467	-3.3	598	28.1	564	-5.7
	농업소득세	-	-	-	-	-	-	6	-	2	-66.7
	담배소비세	1,777	3.90	1,701	-4.3	1,883	10.7	2,059	9.3	1,612	-21.7
	도축세	315	-2.2	279	-11.4	332	19.0	277	-16.6	280	1.1
목적세	사업소세	141	-14.0	146	3.5	157	7.5	171	8.9	184	7.6
	도시계획세	312	2.0	310	-0.6	322	3.9	361	12.1	363	0.6
과년도 수입		150	80.7	159	6.0	187	17.6	218	16.6	159	-27.1
합 계		5,613	6.1	5,225	-6.9	6,146	17.6	6,562	6.8	6,084	-7.3

☐ 자료 : 증평균장소 통계연
보, 각 연도



제3장 사법 · 치안 · 향토방위

연화준 집필

제1절 사 법

제1절

1. 사법제도의 발전

사법은 재판과 관련된 국가작용으로써 반드시 법에 따라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갑오개혁 이전까지의 사법권은 행정기관이 겸직해 행사했다. 최고의 사법기관은 국왕이며 국왕의 사법권의 보조자인 중앙행정기관으로는 백제시대에는 조정좌평(朝廷佐平)이 사법을 담당했고, 신라시대에는 사정부(司正府; 관원의 비위사무관장)와 좌우이방부(左右理方府; 형률사무관장)가 담당했다. 고려시대에는 형조(刑曹) · 전옥서(典獄署) · 각 지방관이 담당했고, 조선시대에는 중앙사법기관으로 사헌부(司憲府) · 형조(刑曹) · 의금부(義禁府) · 한성부(漢城府) 등을 들 수 있고, 지방사법기관으로 관찰사(觀察使) · 수령(守令; 부윤, 대도호부사, 목사, 도호부사, 유수, 군수, 현령, 현감) · 암행어사(暗行御史) 등이 담당했다.

근대적 사법 및 검찰제도가 도입된 것은 갑오개혁 기간 중, 특히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을 제정 · 공포함으로써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해 오늘날 법원의 효시인 재판소를 설치하게 됐다. 재판소에는 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 · 개항장재판소(開港場裁判所) · 순회재판소(巡廻裁判所) ·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 특별법원(特別法院) 등으로 나뉘었다.

그 후 1948년 5월10일 남한만의 총선거에 의해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건국헌법을 제정 · 공포해 입법 · 행정 · 사법의 3권이 분립됐다. 정부수립 후의 사법제도는 1949년 9월26일자 법률제51호 법원조직법, 동년 11월7일자 법률제



경국대전



대법원(서울 서초구)

63호 변호사법, 동년 12월20일자 법률제81호 검찰청법 등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법원조직법에서는 법원을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으로 구성해 3급3심제로 했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임명 및 대법원의 보직은 대법원장·대법관·각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대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정하도록 했다.

현행 헌법 제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리고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는 위임 법률에 따라 법원조직법은 제3조 1항에서 법원을 대법원과 각급 법원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의 6종으로 나누고 제2항에서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일부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해 그 관할 구역안에 지원(支院)과 소년부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조직은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관할 구역은 법원의 관할 구역에 대응해 설립돼 있고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검찰관으로 구분된다.

2. 중평군의 사법

1) 관할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고 동년 10월 20일 각 도 단위로 지방법원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당시 대전지방법원 청주지청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분리돼 청주지방법원으로 승격돼 충청북도 일원을 관할하게 되자, 도내에 이미 설치

돼 있던 대전지방법원 충주지청 및 각 출장소가 청주지방법원에 귀속하게 됐다. 그 후 1947년 10월 20일에 충북 제천, 영동에 지방법원 지원을 설치하게 돼 청주지방법원 관할 하에 충주, 제천, 영동의 3개 지원과 옥천, 보은, 진천, 음성, 괴산, 단양 등에 6개의 등기소를 두게 됐다.

그리고 1995년 9월 1일 개원한 군법원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그 관할 구역 안에 설치한 것으로써 옥천, 보은, 진천, 음성,



청주지방법원

괴산, 단양군 법원이 있다. 보은군법원, 괴산군법원, 진천군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직속이고, 음성군법원은 충주지원 직속이고, 단양군법원은 제천지원 직속이고, 옥천군법원은 영동지원 직속이다.

증평군(증평읍, 도안면)은 2003년 8월 30일자로 출장소에서 군으로 승격됐지만, 소액사건에 대한 관할은 괴산군법원에 속하며 청주지방법원 직속이다. 등기소도 괴산등기소의 관할이다.

2) 증평군 법무사

(1) 연혁

우리나라 법무사제도는 조선 고종(高宗)32년(1895년)에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고 그에 이어 ‘민사소송규정’이 제정돼 새로운 재판제도가 시행되면서 재판절차를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 재판서식을 대신 써주는 대서인을 둘 수 있도록 광무(光武) 1년(1897년)에 ‘대서소세칙(代書所細則)’을 마련한 것이 시초가 됐다. 따라서 당시 법부(法部)로부터 대서업의 허가를 받은 대서인이 재판소 구내에서 대서업을 했다가 한일합방 후 1913년에 제령 제5호로 ‘조선사법대서인령(朝鮮司法代書人令)’을, 그리고 1925년 부령 제13호로 ‘조선사법대서인령시행규칙’을 제정해 사법인을 사법서사로 명칭을 바꿨다.

광복 이후 1953년에 법률 제317호로 ‘사법서사법’이 공포되고, 대법원규칙 제21호로 ‘사법서사법시행규칙’이 제정돼 전국의 사법서사들이 1963년 7월 22일 대한사법서사협회를 조직했고, 지방법원단위에는 사법서사회를 지원 및 등기소단위에는 지부를 두고 있다가, 1990년 1월 13일 법률제4200호 ‘법무사법’이 제정돼 사법서사가 법무사로 명칭이 변경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증평군 법무사는 청주법무사회 괴산군지부에 속해 있다.

(2) 업무와 현황

현재 법무사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하고 있다. 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②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③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④ 등기,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⑤ 기타의 법률상담업무 등

●● 증평군 법무사 현황

법 무 사 명	인가 연월일	주 소
법무사 오준석 사무소	1970년 2월 11일	증평군 교동 30-1
법무사 배기훈 사무소	2002년 12월 11일	증평군 교동 45

제2절

제2절 경찰

1. 경찰제도의 발전

1) 변 천

경찰은 국가사회의 질서유지 및 관리를 위한 권력적 행정작용을 총칭하고 있으며, 언제나 국가나 사회와는 떨어져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한 통치권의 하나로 간주됐다.

경찰이라는 용어와 함께 근대적 경찰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때부터이다. 고종(高宗)31년(1894년)에 좌우포도청을 폐지하고 ‘의정부관제(議政府官制)’에 의해 내무아문(內務衙門)소속으로 서울에 경찰청을 창설했는데, 그 해 7월 14일 발표된 ‘행정경찰 장정(章程)’에 의하면, ① 위민방해(爲民妨害)의 보호사무, ② 건강을 보호하는 일, ③ 편의(便宜)·거처(去處)에 분파(分派)해 순검(巡檢)을 동솔(董率), 순화·사찰을 하는 것이 임무였다. 경찰청에는 경무사(警務使), 경무부사(警務副使), 서기(書記) 등을 두어 기구를 강화했고, 지방의 각도에는 관찰사가 경찰권을 총괄했다.



〈조선시대의 형장모습〉 일제
김윤보의 형정도첩/군수답벌
죄인

1910년에 한일합방으로 인해 통감·경관제가 발포됐다. 그래서 종래의 대한제국의 경찰제도는 일본식 경찰을 모방해 경무총감, 경무관, 경무부차장, 경시, 경부, 기술, 통역관, 순사, 순사보 등으로 직제가 개편됐다. 일제시대의 경찰은 한국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존재로서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배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청에 경무국이 창설돼 훗날 정부 수립과 함께 국립경찰의 초석이 됐다. 경무국의 부서는 관방·총무과·공안과·수사과·통신과로 이루어졌고, 지방은 각 도지사 밑에 경찰부장을 두고 그 밑에 경무과·보안과·형사과·경제과·정보과·소방과(경기도에 한함)·위생과 등 7개를 두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 그 해 9월13일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청을 완전히 인수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률 제1호로 공포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내무부에 치안국을 두어 경찰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지방에는 시장 또는 도지사의 보조기관으로 돼, 지방의 경찰청은 경찰국으로 개편되고 명칭도 지명을 사용해 각 도의 지방치안을 담당하게 됐다. 그리고 1953년 12월 14일 법률제299호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돼 경찰권 행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974년 12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격상했으며, 치안국장도 차관급 대우인 치안본부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치안본부의

출범으로 직제도 대폭 개편됐다.

1990년 12월 27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이어 1991년 5월 31일에 경찰법이 제정됐다. 이에 의해 동년 8월 1일 경찰청이 발족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찰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소속 하에 두기는 하지만, 단순한 보조기관으로서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외청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했다. 즉 경찰조직은 행정자치부장관 · 경찰청장 · 지방경찰청장 · 경찰서장으로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를 확립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정치적 책임에 상응하는 지휘권만 행사하고, 일선 서장의 전보권, 경정 이하의 임용권, 인사권 등의 행사와 치안정책의 입안 · 시행 및 인력 · 예산 · 장비 등의 경찰력 운용과 관련 독립적인 업무수행은 경찰청장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외청으로서의 독자적인 기능을 부여받게 됐다.

2) 경찰의 기능과 부서

(1) 기능

경찰은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 · 진압 및 수사하며 치안정보수집, 교통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그리고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경찰관의 임무는 질서유지와 봉사이다. 따라서 경찰은 바람직한 경찰상을 세우고 본연의 업무를 고수하는 경찰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찰헌장을 제정해 이를 실천하고 있다.

우리는 조국광복과 함께 태어나 나라와 겨레를 위해 충성을 다하며 오늘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대한민국의 경찰이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며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 스스로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

1.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1.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이다.

1.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1. 우리는 건전한 상식위에 전문지식을 갖고 뒀아 맡은 일에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1. 우리는 화합과 단결속에 항상 법률은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

경찰의 기능은 방범경찰·수사경찰·경비경찰·교통경찰·정보경찰·보안경찰·외사경찰·사이버경찰·해양경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방범경찰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간과 인력, 예산을 절감하는 경찰업무 최상의 활동으로써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분야로 예방경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민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 방범업무 중 중요한 것은 순찰업무, 총포화약 관리업무, 소년선도업무 등이다.

수사경찰은 범죄사실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증거를 수집해 범인을 체포하고 수사하는 일을 한다. 수사를 하는 동안에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학수사를 지향하고 있다.

경비경찰은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러한 불법행위를 예방·경계·진압하는 경찰활동으로, 일반경비와 치안경비가 있다.

교통경찰의 업무는 교통단속과 운전면허시험관리이다. 교통경찰은 모든 계층의 국민이 그 대상으로서 시민들의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경찰활동 일반을 평가하는 표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관계법규 등 관련지식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아울러 공정성과 친절성을 갖추어야 한다. 오늘날 그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정보경찰은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경찰작용으로 사안의 중대성으로 말미암아 비공개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주요업무는 불법시위나 불법노사분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국가안전의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있다.

보안경찰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것들으로써 우리 내부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거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 공산주의에서 비롯되는 정치적 위협 등을 제거하



충북지방경찰청(주중동)

는 활동을 주로 한다.

외사경찰은 우리나라에 출·입국하는 외국인이나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경찰기능을 수행한다.

사이버경찰은 사이버 세계에서 범위를 포함해 전산기기를 통한 범죄수사의 단서를 찾아내는 임무를 수행한다.

해양경찰은 전투경찰로서 해상작전이라든가 해난사고방지의 임무를 수행한다.

(2) 괴산 경찰서 기구 및 부서별 관장 업무

● 괴산경찰서 기구표

괴산경찰서장	경무과	경무계 · 경리계 · 정보통신계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 생활질서계 교통사고조사계 · 교통지도계
	수사과	수사지원팀 · 지능범죄수사팀 · 강력범죄수사팀
	정보보안과	정보계 · 보안계 · 경비작전계
	청문감사관	민원봉사실
	괴산지구대(문광 · 감물 · 불정 · 소수 · 청천파출소) 중평지구대(역전 · 도안 · 사리 · 청안파출소 · 부흥초소) 연풍지구대(칠성 · 장연파출소 · 방곡초소 · 송면초소)	

● 부서별 관장 업무

- 경무과 : 경무계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일직 · 당직 및 감독순시 지정에 관한 사항, 경찰의전 및 행사 · 회의 통제, 경찰관의 후생복지업무, 기타 경찰서내의 다른 과 ·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하고, 경리계에서는 세출예산의 편성과 결산,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도급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 국 · 공유 국가채권과 재산관리, 차량유지관리 및 유류출납의 업무를 담당하며, 정보통신계는 통신장비관리 및 자재출납에 관한 사항, 통신기기의 시설 및 보수, 전산온라인 업무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경찰종합정보체계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 생활안전과 : 외근업무계획의 조정 및 지도 · 감독, 지구대 외근경찰관의 배치 및 이동발령, 외근경찰관 교양 및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112순찰차 및 방법사이드카 운영, 방법을 위한 가택방문지도, 무허가건물 지도단속 협조에 관한 사항, 전당포허가 및 지도단속, 자활근로대 관련업무, 용역경비 관련업무의 지도단속, 112신고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교통계에서는 교통사고조사 처리,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및 집행, 교통사고 야기 및 법령위반차량수배에 관한 사항, 사고야기 도주차량 수사에 관한 사항, 교통소통계획 및 통제관리, 교통법규위반자 지도·단속, 교통안전 지도계몽 및 소통장애물에 대한 지도단속, 기동순찰대 운영 및 관련업무, 교통안전 시설관리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 수사과 : 유치장 관리 및 사건송치, 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상,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 수사경찰 교육에 관한 사항, 참고인 비용에 관한 사항, 타 수사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벌과금 등 형집행 업무, 수배·공조에 관한 사항, 지문감식 및 수사감식 운영관리, 우범자 관찰 및 자료관리, 수사과 취급사건의 송치서류작성, 시위관련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 지능범 및 공무원 범죄수사,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한 범죄수사, 밀수 및 탈세사범 수사, 금융 및 경제·환경사범수사, 통화관련 범죄수사, 유가증권 위·변조사범수사에 관한 사항과 강력범죄수사, 폭력범죄수사, 도난범죄 및 장물사범수사, 마약사범 및 도박사범수사, 기타 형법 및 형사특별법위반 범죄수사, 형사 기동 차량운영 등을 담당한다.
- 정보보안과 :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해당하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사유재산과 자유시장경제질서·의회제도·복수정당제도·복지와 문화국가의 실현 등 우리의 내부질서를 파괴·변혁하려는 시도로부터 보호하려는 데 있다. 즉 정보업무는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한 경찰활동으로써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 및 문화분야 등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과 분석,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주요단체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 및 분석 등을 담당하고, 보안업무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것으로, 간첩 등 중요방첩공작수사, 좌익사범수사, 반국가적 불온유인물의 수집 및 분석, 보안관찰, 남북교류관련업무 등이 포함된다. 정보보안업무는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므로 국가정보원장의 조정을 받게된다. 경비작전계에서는 다중범죄 진압대책 및 경찰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일반경비(행사, 재해경비) 계획수립 및 시행, 경호경비계획 수립 및 시행, 비상경계 및 비상소집 계획 수립 및 경찰동원운영, 외국 공관경비에 관한 사항, 검문소운영 및 검문검색의 지도·감독을 담당한다.
- 청문감사관실 : 시민불편의 해소 및 시민의 인권보호를 전담한다. 즉, 수

사와 교통사고 조사진행 문의에 따른 진술인 의견 청취제의 운용, 고소·고발과 교통사고 등 민원불편·불만사항에 대한 상담 및 해소, 지구대 운영과 외근 요원 순찰근무에 관한 여론수렴, 대민친절봉사 이행실태의 점검 및 지도, 유치장·형사계 등 구속 또는 조사장소내의 인권보호 상황의 확인지도, 감찰·감사업무의 감독, 감찰 첩보수집 및 내부고발처리 등을 담당하고, 민원 봉사실에서는 일상생활과 관계가 있는 사무를 처리하며 각종 민원서류발급 등을 업무로 하고 있다.



괴산경찰서

2. 괴산경찰서 증평지구대

1) 연혁

지구대는 지역치안을 위한 경찰의 최일선 조직으로서 일정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며 24시간 주민과 함께하며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구대는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모든 경찰관련 민원이나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주는 치안서비스센터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지구대의 외근 경찰관은 주민의 일상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하기 위해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 순찰활동은 범죄심리를 차단하고 관내의 정황을 정확하게 관찰해 주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주는 요인을 찾아 이를 해소해주는 역할로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활동을 말한다.

증평지구대는 1924년 4월에 청사를 신축해 괴산경찰서 증평주재소라 칭해 오다가 1945년 광복 이후에 국립경찰의 발족으로 증평지서로 개칭이 됐다. 그 후 1967년 10월 28일 국고보조와 지방지원으로 34평 단층 슬래브 건물을 준공했다. 1981년 5월 20일에 역전지서가 신설돼 3개 동(신동·창동·내성동)과 5개리(초중·남하·덕상·남차·율리)를 분담 관할케 했고, 1991년 8월 1일 증평지서에서 증평파출소로 승격됐다. 2003년 8월 1일자에 순찰지구대로 변경 운영에 따라 증평파출소에서 남부지구대로 명칭이 변경됐다가 2004년 4월 12



괴산경찰서 증평파출소 청사 준공식(1995년)

일 관할 조정으로 남부지구대에서 중평지구대로 명칭이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조 직

중평지구대의 조직은 지구대장 1명, 사무소장 3명, 직원 29명, 의무경찰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한 업무는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범인 검거를 위한 관할 구역 내의 순찰활동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 교통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역대 파출소장 및 지구대장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대 수	성 명	재 직 기 간	비 고
파출소장	1	경감 신용철	1993. 4 - 1997. 3	
	2	경위 황종구	1997. 3 - 1998. 4	
	3	경위 신용철	1998. 4 - 2000. 1	
	4	경위 이규식	2000. 1 - 2001. 2	
	5	경위 연덕희	2001. 2 - 2002. 1	
	6	경위 이규식	2002. 2 - 2003. 8	
	7	경위 이원재	2003. 8 - 2004. 2	지구대 운영
	8	경위 이현중	2003. 8 - 2004. 2	"
	9	경위 연창흠	2003. 8 - 2004. 2	"
	10	경위 김학진	2003. 2 - 2005. 2	"
	11	경위 오성균	2003. 2 - 2005. 2	"
	12	경위 박인영	2003. 2 - 2005. 2	
지구대장	1	경감 이희재	2004. 2 - 2005. 2	
	2	경감 심호석	2005. 2 - 현 재	

3) 중평지구대 역전파출소(치안센터)

역전파출소의 연혁으로는 1981년 10월 30일 중평 역전지서를 개소했고, 1991년 8월 1일 경찰청 발족으로 중평 역전파출소로 개명했다. 2000년 6월 1일 경찰청의 파출소 통폐합 지침에 따라 괴산경찰서 관내파출소 중 치안여건은 비교적 많은 편이나 경찰청의 1개읍 1개 파출소 운영과 인근 파출소와 통합, 경력감축 효과 및 주민친화적 운영을 강화하고자 통폐합 함에 따라 역전파출소를 역전분소로 전환했다가 2003년 8월 1일 순찰지구대로 변경운영되면서 역전치안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역전파출소(치안센터)

현재 조직은 민원담당경찰관 1인이 상주해 신고 및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순찰대원들이 순환하고 있다. 역대 파출소장은 다음과 같다.

- | | |
|--|---------------------------|
| ① 경사 연규열(1981.10-1983.7), | ② 경사 김재성(1984.12-1986.8), |
| ③ 경사 김재성(1986.8-1988.7), | ④ 경사 황인규(1988.7-1989.8), |
| ⑤ 경사 김영배(1989.8-1990.12), | ⑥ 경사 이각희(1990.12-1991.2), |
| ⑦ 경위 신용철(1991.2-1993.4), | ⑧ 경사 이범택(1993.4-1995.3), |
| ⑨ 경사 홍무웅(1995.3-1996.4), | ⑩ 경사 박용완(1996.4-1997.6), |
| ⑪ 경사 윤영섭(1997.6-1998.4), | ⑫ 경위 최시영(1998.4-1999.2), |
| ⑬ 경위 이원재(1999.2-2000.6), | |
| ⑭ 민원담당경찰관 : 경사 연인석 → 오선수 → 윤중일 → 박봉춘(현재) | |

4) 증평지구대 도안파출소(치안센터)

도안파출소는 현재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148-1번지에 위치해 있는데, 1945년 광복 후 국립경찰발족시에 괴산경찰서 도안지서로 명칭이 변경됐다. 1995년 1월 1일에 괴산경찰서 도안파출소로 그 명칭이 변경됐다가, 2003년 8월 1일 순찰지구대로 변경운영되면서 증평지구대 도안치안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조직은 민원담당경찰관 1인이 상주해 신고 및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순찰대원이 순환하고 있다. 역대 파출소장은 다음과 같다.



도안파출소(치안센터)

- | | |
|------------------------------|-------------------------|
| ① 고윤석(1974.10-1976.5), | ② 손복용(1976.5-1980.7), |
| ③ 신강선(1980.7-1982.7), | ④ 김영배(1982.7-1984.3), |
| ⑤ 강창구(1984.3-1985.12), | ⑥ 이길동(1985.12-1986.8), |
| ⑦ 김세영(1986.8-1988.7), | ⑧ 김재성(1988.7-1990.6), |
| ⑨ 김학재(1990.6-1991.1), | ⑩ 윤영섭(1991.11-1993.5), |
| ⑪ 권태식(1993.5-1993.11), | ⑫ 황인규(1993.11-1994.11), |
| ⑬ 정운한(1994.11-1996.4), | ⑭ 김영배(1996.4-1998.4), |
| ⑮ 신배철(1998.4-1999.2), | ⑯ 윤영섭(1992.2-2000.6), |
| ⑰ 이영희(2000.6-2002.2), | ⑱ 김지용(2002.2-2003.6), |
| ⑲ 이현중(2003.6-2003.7), | |
| ⑳ 치안센터 민원담당경찰관 이영희 → 전창국(현재) | |

5) 경찰활동현황

최근 6년간의 경찰활동 중에서 주요 범죄발생건수와 검거현황과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자동차단속 및 처리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 범죄발생 및 검거 현황

연도별	계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기타형사범		특별법범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1998	887	935	7	6	89	74	86	87	80	152	18	22	607	594
1999	810	774	14	14	56	50	95	94	125	115	20	20	500	481
2000	762	746	4	4	44	29	67	69	82	80	9	11	556	553
2001	1335	1246	7	4	42	17	73	71	111	82	35	38	1067	1034
2002	1433	1354	6	6	155	138	73	69	154	123	22	15	1023	1003
2003	1336	1068	12	8	143	52	174	160	351	234	49	43	607	571

☐ 증평군 통계연보(2004)

●● 교통사고 발생현황

연도 별	발생 건수	사망 자	부상 자	사고 유형별				자동차 용도별					
				차대 사람	차대 차	차량 단독	철도 건널목	승용차	버스	화물	특수	이륜차	기타
1998	350	15	342	51	284	36	0	268	7	49	7	30	7
1999	390	20	450	95	227	68	0	-	-	-	-	-	-
2000	486	27	495	76	341	69	0	223	8	149	17	39	50
2001	156	15	244	31	106	19	0	74	24	43	0	12	3
2002	260	7	143	42	194	20	0	126	36	59	2	21	15
2003	268	16	258	46	196	27	0	132	12	62	0	23	12

☐ 증평군 통계연보(2004)

●● 자동차 단속 및 처리 현황

연도 별	건수	위 반 사 항													
		중앙선 침범	속도	추월	회전	음주 운전	무면허	차로 위반	신호 위반	정원 초과	주정차	불법 영업	적재	정비 불량	안전띠 미착용
1998	4,017		2091	226	22	82	42	364	139	-	159	-	24	-	-
1999	9,137		4735	266	6	176	94	-	78	-	56	-	49	-	-
2000	14,135		4011	125	10	530	105	425	636	1	141	-	18	-	-
2001	20,767		4869	92	27	1079	225	43	1287	-	336	-	50	-	-
2002	12,838	455	5132	17	10	407	44	35	1360	-	31	-	21	-	2,938
2003	5,822	375	1180	44	4	317	51	1	648	-	23	-	15	-	2,184

☐ 증평군 통계연보(2004)

3.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조직된 방범활동조직으로써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청소년 선도 및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또한 경찰과 유기적 협조체제하에 경찰과 합동순찰활동을 하면서 사고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자율방범대의 사무실은 각 지구대와 치안센터의 옆에 위치해 있으며, 자율방범대원은 매일 순번제로 21:00 - 01:00시까지 지역치안을 위한 방범활동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과 교통사고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중평에는 중평자율방범대, 중평역 전자율방범대, 도안자율방범대, 중평어머니자율방범대, 역전어머니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하고 있다.



자율방범대 캠페인

1) 중평 자율방범대

중평자율방범대는 1983년 1월 10일 대장 1인과 30명의 대원으로 발족을 했다. 중평자율방범대는 주민의 재산보호와 재난 및 각종 도난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등의 경찰치안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관할 지구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환자 수송 요청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의 각종 재해와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최근의 주요 활동과 수상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중평자율방범대

- 1999. 11 - 중평파출소 자율방범대 사무실 준공
- 2000. 01 - 괴산경찰서 자율방범대 최우수 방범대로 선정
- 2003. 08 - 영동군 황간면 수해복구 및 구호품 전달과 격려
- 2004. 03 - 중평읍 미암리 폭설로 인한 축사피해와 인삼밭피해 복구작업
- 2004. 08 - 중평군 남하리 장마로 인한 독 수해 복구작업과 보강천 정화작업
- 2004. 08 - 중평군민의 날 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캠페인 실시
- 2004. 10 - 중평 문화제 행사시 질서유지와 교통안내 및 정리
- 2004. 11 - 방범대 등산대회의 개최와 두타산 등산로 정화캠페인 실시
- 1994. 09. 01 : 충청북도지사 표창
- 1994. 12. 31 : 괴산경찰서장 표창

1995. 12. 30 : 괴산경찰서장 표창

1997. 01. 31 : 괴산경찰서장 표창

2001. 01. : 괴산경찰서 자율방범대 최우수 방범대로 선정

2003. 03. 09 : 영동경찰서장 감사장

증평자율방범대는 현재 윤용현 방범대장의 42명으로 구성돼 방범순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역대 방범대장과 현 방범대원은 다음과 같다.

제1대 방범대장 이영해(1983년-1984년) → 제2대 이두해(1985년-1987년) → 제3대 유수길(1988년-1989년) → 제4대 연순모(1990년-1990년) → 제5대 박치화(1990년-1991년) → 제6대 유승호(1992년-1993년) → 제7대 엄병석(1994년-1997년) → 제8대 박석규(1998년-2001년) → 제9대 윤용현(2002년-현재)

● ● 증평자율방범대원

성명	가입일	직업	직책	성명	가입일	직업	직책
윤용현	1989.11.05	자영업	방범대장	이상규	2000.08.01	자영업	방범대원
문상선	1992.05.21	자영업	방범대총무	최규호	2001.04.14	회사원	방범대원
최철영	1995.01.01	자영업	방범대서기	연동연	2001.04.14	자영업	방범대원
신강국	1996.07.12	보험	방범대원	류승현	2001.06.05	회사원	방범대원
정태열	2004.06.09	자영업	방범대원	전장오	2001.05.23	자영업	방범대원
김순기	1993.11.04	회사원	방범대원	황성태	2001.06.15	회사원	방범대원
연태흠	2004.03.04	자영업	방범대원	연기영	2004.03.15	회사원	방범대원
설명산	1995.01.01	자영업	방범대원	김윤희	2001.07.15	자영업	방범대원
장병재	1993.12.06	자영업	방범대원	김동호	2002.01.20	자영업	방범대원
이영환	1997.09.14	보험	방범대원	이상일	2004.12.10	회사원	방범대원
김홍구	2004.02.01	회사원	방범대원	임원빈	2002.01.20	자영업	방범대원
고정근	1996.01.04	자영업	방범대원	이영배	2002.02.20	자영업	방범대원
연충환	1996.06.18	자영업	방범대원	윤경석	2002.05.20	자영업	방범대원
차동수	2005.01.03	회사원	방범대원	연규방	2002.11.15	자영업	방범대원
연종석	2004.12.10	자영업	방범대원	김재기	1999.06.10	보험	방범대원
김원동	1998.03.12	자영업	방범대원	김영수	2005.02.05	회사원	방범대원
이규호	1999.01.11	자영업	방범대원	강병수	2003.07.22	자영업	방범대원
윤문용	1999.02.28	회사원	방범대원	최종필	2003.09.20	자영업	방범대원
양성대	2004.12.10	회사원	방범대원	황진호	2003.09.20	자영업	방범대원
김광철	1999.07.15	회사원	방범대원	김지훈	2005.02.05	자영업	방범대원
이석호	2000.07.10	자영업	방범대원	이상도	1999.06.10	자영업	방범대원
윤근섭	1998.02.03	회사원	방범대원				

2) 증평역전자율방법대

역전자율방법대는 관할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각종의 재난 방지와 범죄예방활동을 목적으로 1986년 역전파출소 역전자율방법대로 창설을 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역전자율방법대의 최근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2002.09.12 - 충북 영동군의 수해지역복구 봉사활동
 2002.10.03 - 증평문화제행사시 행사장내 질서유지 및
 교통봉사
 2003.06.30 - 소년소녀가장돕기를 위한 물품전달
 (증평군청에 기탁)
 2003.09.24 - 강원도 정선군 북면 수해지역복구 봉사활동
 2004.02.28 - 교통사고 줄이기 거리 캠페인 행사
 2004.03.17 - 증평읍 용강리 폭설피해농가복구 봉사활동
 2004.06.27 - 증평읍 초종리 폭우피해농가복구 봉사활동
 2004.10.07 - 증평문화제행사시 행사장 질서유지 및
 교통봉사



증평역전자율방법대

역전자율방법대는 정재욱 대장 외 47명의 대원으로 구성돼 있다. 역대 방법대장과 현 방법대원은 다음과 같다.

제1대 방법대장 변명수 → 제2대 김제석 → 제3대 연제구 → 제4대 윤인구 → 제5대 김종량(1997-1998) → 제6대 · 제7대 이제창(1999-2002) → 제8대 배종렬(2003-2004) → 제9대 정재욱(2005-현재)

●● 역전자율방법대원

성명	가입일	직업	직책	성명	가입일	직업	직책
정재욱	1993. 05	신협	방법대장	김영운	2001. 02	미주상사	조원
연생모	1997. 10	주공부식	부대장	유영신	2002. 04	동원샘물	조원
김화영	1998. 04	대성디자인	사무국장	최광규	2003. 06	오무사	조원
신재일	1997. 03	아트비전	감사	이원근	1998. 04	신한설비	조장
김병목	1998. 07	대성해상	감사	안영대	2002. 02	코스모텍	조원
배종열	1996. 11	세기공업사	직전대장	연문흙	2003. 02	대리운전	조원
정석봉	1995. 09	증평태권도	조장	윤종근	2005. 02	방앗간	조원
박종호	2000. 03	증평군청	조원	봉상근	1998. 06	대영뉴시	조장
강병석	2001. 10	렉카	조원	정진철	1997. 01	자동차	조원
이종배	2002. 09	증평주유소	조원	연현모	2002. 02	시장유통	조원
연진희	1997. 05	삼유카센타	조장	연덕흙	2004. 10	건강원	조원
이우현	2000. 11	우성석유	조원	윤해명	1998. 07	기아자동차	조장
우종한	2001. 07	화원	조원	마남용	1997. 07	화랑마트	조원

성명	가입일	직업	직책	성명	가입일	직업	직책
연규성	2003. 05	명가식품	조원	박유석	2003. 06	공구병원	조원
황창석	1997. 05	대신택배	조장	염은섭	2004. 10	증평군청	조원
김진희	1998. 11	중앙방앗간	조원	연규열	1998. 09	참참식당	조장
이명환	2003. 08	기아자동차	조원	박희동	1999. 10	제일특유	조원
박경환	2003. 02	인해양돈	조원	연승우	2004. 06	SK텔레콤	조원
신정석	1997. 10	덕우식당	조장	박명진	2004. 10	케이블TV	조원
박경순	2001. 02	청정마을	조원	반충섭	1998. 09	대흥유기	조장
우계영	2002. 06	삼립빵	조원	김현모	2001. 10	오성산업	조원
이원희	2004. 05	싸카스포츠	조원	김종일	2002. 04	우진택시	조원
봉선근	2005. 02	대성축산	조원	김동범	2004. 08	대중건설	조원
김태호	1998. 03	축산업	조장	김기섭	2005. 01	삼성대리점	조원

3) 도안 자율방범대



도안자율방범대

도안 자율방범대는 대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며,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한 지역방범 활동을 목적으로 1984년 5월 25일 발족을 했다. 그리고 1992년 9월에 현재 위치해 있는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148-1 번지에 사무실을 준공했다. 1998년 11월과 2005년 3월에는 군비지원 및 지역단체의 도움으로 방범차량을 구입했다.

현재 도안 자율방범대는 연준혁 방범대장과 24명의 대원이 지역의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역대 방범대장과 현

방범대원은 다음과 같다.

제1대 방범대장 연승희(1984.5.25-1989.12.31) → 제2대 연장희(1990.1-1994.12)
→ 제3대 연기찬(1995.1-2000.12) → 제4대 연춘호(2001.1-2004.12) → 제5대 연준혁(2005.1-현재)

● 도안 자율방범대원

번호	성명	직책	번호	성명	직책
1	연준혁	대장	9	이종률	대원
2	김태호	부대장	10	김영국	대원
3	연범모	총무	11	연제오	대원
4	이상택	조장	12	김성수	대원
5	연진흠	조장	13	김진탁	대원
6	김장균	조장	14	한정민	대원
7	최영락	조장	15	연홍국	대원
8	이대우	조장	16	연강흠	대원

번호	성명	직책	번호	성명	직책
17	임운규	대원	22	연동흙	대원
18	연규혁	대원	23	이용호	대원
19	연수희	대원	24	안인수	대원
20	김진웅	대원	25	안효근	대원
21	연제균	대원			

4) 어머니자율방범대

증평어머니자율방범대는 주민을 위한 방범활동과 봉사활동을 위해 1992년에 20명의 대원으로 발대식을 갖고 출발을 했다. 또한 역전어머니자율방범대도 결성이 됐다. 그동안 어머니방범대는 매일 21:00시부터 23:00까지 후미진 곳이나 사고우발지역을 경찰관과 남자방범대원들과 도보순찰이나 차량순찰활동을 하고 있고, 학교 앞 횡단보도의 수신호 등과 같은 교통의 예방과 지도를 위한 활동을 비롯해 소외된 주민을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다. 특히 혼자살고 있는 노인들과 지체장애자들을 위해 매일 2회씩 방문해 청소와 빨래·목욕, 반찬준비 등과 말벗이 돼주는 봉사를 실천해 왔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에 선행과 참다운 봉사의 의미를 실천하고 있다. 어머니자율방범대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증평어머니자율방범대

●● 증평 어머니 자율방범대원

번호	성명	가입일	직책	번호	성명	가입일	직책
1	김묘현	2003.04	대장	14	박희정	2003.04	대원
2	황근예	2003.04	부대장	15	김홍옥	2003.04	대원
3	석금례	2003.04	감사	16	김현주	2003.04	대원
4	민춘섭	2003.04	감사	17	김현숙	2004.03	대원
5	손춘희	2003.04	총무	18	권학경	2004.03	대원
6	이상혜	2003.04	대원	19	진희주	2004.06	대원
7	우남순	2003.04	대원	20	김미애	2004.12	대원
8	김진영	2003.04	대원	21	반안옥	2004.11	대원
9	김영미	2003.04	대원	22	박미화	2004.11	대원
10	장병희	2003.04	대원	23	권병옥	2005.01	대원
11	이재숙	2003.04	대원	24	박은경	2004.10	대원
12	강은숙	2003.04	대원	25	김은숙	2005.03	대원
13	박명순	2003.04	대원				

●● 역전 어머니 자율방범대원

번호	성명	가입일	직책	번호	성명	가입일	직책
1	윤영순	1995.03	대장	11	서옥순	2004.04	대원
2	윤영숙	1993.05	부대장	12	이덕미	2004.05	대원
3	장금자	1993.05	총무	13	강연순	2004.05	대원
4	박인화	1992.07	대원	14	정선희	2004.04	대원
5	신경학	1992.09	대원	15	연규숙	2004.10	대원
6	여광연	2002.02	대원	16	라경란	2004.03	대원
7	이상희	2001.03	대원	17	이미경	2004.03	대원
8	이정옥	2003.10	대원	18	최영란	2004.05	대원
9	조미식	2003.10	대원	19	여금자	2005.02	대원
10	정금란	2004.04	대원	20	백옥순	2005.03	대원

제3절

제3절 소방

1. 소방제도의 발전

소방은 화재를 예방·경계 또는 진압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피해를 경감해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소방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갑오개혁 때인 고종(高宗)31년(1894년)에 좌·우포도청이 합해진 경찰청이 내무아문(內務衙門)에 소속돼 치안과 소방사무를 관장했으며, 경찰청의 '경무청처리계획' 제



옛소방장비(1960년대)



고가사다리 소방차(2005년)

정시 총무국에서 수화(水火)소방에 관한 사항을 분장할 때에 처음 사용했다.

일제시대에는 중앙에서는 경무총감부가 설치돼 경찰권을 장악하고 보안과 소방계에서 소방업무를 관장했고, 지방에서는 지방경찰기구가 변화됨에 따라 변화했으나 주로 경찰서에서 관장했다.

1945년 광복 직후인 미군정시대에는 경찰에서 분리돼 자치소방체제가 됐는데, 중앙에서는 상무부 토목국에서 관장했고, 지방에서는 서울의 경우 소방부가 각 도에서는 소방위원회가 설치됐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에는 국가사무로 경찰에서 관장했으며, 1971년부터 1974년까지는 서울과 부산은 지방자치체제로 소방본부에서 기타 지역은 국가소방체제로 경찰국 소방과에서 관장하는 국가와 자치의 이원화 체제였다.

1975부터는 내무부 민방위본부 창설로 광역시 이상은 소방본부에서 각 도는 민방위국 소방과에서 관장하다가 1992년부터는 광역자치소방체제를 전환돼 소방업무는 시·도의 책임으로 일원화됐으며, 각 시·도에 소방본부가 발족했다.

2003년 3월 국무회의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개선 논의가 있는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이 출범했고, 2004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됐다. 그리고 2004년 6월 1일에 각종 재난재해를 전담하는 소방방재청을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신설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증평소방서

1) 연혁

증평소방서는 1994년 5월 21일 충청북도소방서조직규칙(충청북도규칙 제



증평소방서 전경

2001호)에 의거 소방서가 설치됨에 따라 1994년 5월 27일 증평군청 2층 회의실에서 개서식을 거행한 후 현재는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44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증평군과 진천군, 괴산군을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다. 증평소방서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46.04.10 : 충청북도 소방위원회 설치
 1946.06.28 : 충청북도 최초의 청주소방부 창설
 1958.03.11 : 소방법 제정
 1990.02.12 : 대통령령 제12923호에 의거 증평읍 일원 청주소방서 관할구역 편입
 1990.06.01 : 충청북도조직규칙 제1656호에 의거 청주소방서 증평파출소 개소
 1992.04.10 : 충청북도 소방본부 발족
 1994.05.21 : 충청북도조직규칙 제2001호에 의거 증평소방서 설치
 1994.12.22 : 증평소방서 신축청사 준공식
 1995.08.31 : 증평소방서 119구조대 발대
 2001.12.10 : 증평소방서 정보통신담당 및 화재조사담당 신설

2) 증평소방서 기구 및 부서별 관장 업무

● 증평소방서 기구

증 평 소방서장	소 방 과 장	소 방 담 당
		장 비 담 당
		정보통신담당
	방 호 과 장	방호구조담당
		예 방 담 당
		화재조사담당
	중앙파출소	증평읍 · 도안면 · 사리면 · 청안면
	진천파출소	진천읍 · 문백면 · 백곡면 · 덕산면 · 초평면
	광혜원파출소	광혜원면 · 이월면
	괴산파출소	괴산읍 · 감물면 · 장연면 · 연풍면 · 칠성면 · 문광면 · 소수면 · 불정면 · 청천면
	증평119구조대	증평읍 · 도안면 · 사리면 · 청안면
	진천119구조대	진천군 일원
	괴산특수구조대	괴산읍 · 감물면 · 장연면 · 연풍면 · 칠성면 · 문광면 · 소수면 · 불정면 · 청천면

● 부서별 관장 업무

- 소방담당 : ① 소방행정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 소방행정 관리개선,
 ②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 · 소방제도의 연구 및 발전에 관한 사

항, ③ 소방공무원 등 인사관리(승급 · 승진 · 보직관리 등), ④ 보안업무 · 사무관리 ·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⑤ 우표수불 처리 · 홍장관리 · 법령집 및 행정자료관리, ⑥ 연금 · 의료보험 · 소방공제회 및 소방상조회에 관한 사항, ⑦ 상훈 · 감사 · 감찰 · 사정업무 · 징계 · 복무, ⑧ 소방관서(공무원) 교육훈련 및 체력검정 · 직원후생 및 체위향상, ⑨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등이다.



소방차 화재진압(1986년)

- 장비담당 : ① 회계사무 지도 · 감독, 회계관계 직인 보관, ② 예산안 편성 요구, 세입세출 결산보고, 원천징수, ③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 지출계산 증명, ④ 도비 자금관리, 도급경비 전도, 봉급 및 제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⑤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계약사무, ⑥ 일반용도, 물품조달 · 출납 · 수급 · 재물조사 · 불용결정 및 처분 등, ⑦ 관용차량, 소방차량 운영관리, 소방장비 유지 · 관리, ⑧ 공유재산 관리, 청사 신 · 증축 집행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 제재, ⑨ 소방공무원 피복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다.
- 정보통신담당 : ① 소방통신업무 기획조정 및 기술지도, 소방정보화 기본 계획수립, ② 소방용 유 · 무선통신의 설치 운영, ③ 유 · 무선 통신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④ 소방전 산업무 운영 및 교육, 정보화 활용능력배양, ⑤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관한 업무, ⑥ 행정전산망,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운영 관리, ⑦ 정보화관련 장비도입 및 유지 보수 관리, ⑧ 홈페이지 개발운영 및 유지 · 관리, ⑨ 음어, 약호자재 운영관리, 무선통신 암호조정 및 분석 등이다.
- 방호구조담당 : ① 화재경계,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② 의용소방대 육성 및 운영, ③ 직장 자위소방대 조직 운영, ④ 소방용수시설에 관한 사항, 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⑥ 소방사범처리에 관한 사항, ⑦ 급수활동 및 대민지원에 관한 사항, ⑧ 산불지원에 관한 사항, ⑨ 구조 · 구급 봉사행정 운영, ⑩ 구조 · 구급 · 재해예방 자료조사, 구조 · 구급기자재 관리 및 정비, ⑪ 구급 이송확인서 발급, ⑫ 무선페이징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 예방담당 : ① 건축허가 동의업무, 소방시설 감리 및 완공검사, ② 소방시

설공사 시공신고 및 감리지정·변경신고, ③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 ④ 방화관리 업무지도, 방화관리자 선임 신고, ⑤ 소방시설 공사업·설계·감리업 관련업무, ⑥ 방염처리 업무,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 ⑦ 소방검사, 소방대상물 조사, 개수명령에 관한 사항, ⑧ 화재예방홍보 및 교육, ⑨ 119소년단 운영 및 정비, ⑩ 화재경계지구 정비에 관한 업무, ⑪ 소방 법령운영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등이다.

- 화재조사담당 : ① 화재현장조사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② 화재조사 기술지도 및 기자재관리, 화재조사자료 연구에 관한 사항, ③ 현장보존 및 증거품 수집에 관한 사항, ④ 화재피해복구안내소 지도운영에 관한 사항, ⑤ 화재증명원에 관한 사항, ⑥ 화재조사 진정민원에 관한 사항, ⑦ 각종 소방관련 상황기록 유지 및 기타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 증평소방서의 인력

개서이전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지역의 소방공무원(기능직 포함)은 69명이었으며, 개서당시 증평소방서 정원은 94명이었다. 그러나 2004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정원은 140으로 증가됐다.

● 증평소방서 연도별 정원현황

연도별	1994.5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정원	94	110	131	131	138	130	129	134	144	144	140	140
증감	-	6	21	0	7	-8	-1	5	10	-	-4	-

☐ 증평소방서(2004)

● 2004년도 정 현원 현황(의무소방원, 비정규상근인력 제외)

구 분	총 계	소 방 직								기 능 직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9급	10급
			소 방 정	소 방 령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운 전 원	사 무 원
정원	140	140	1	-	2	13	20	42	62	-	-	-
현원	140	140	1	-	2	12	36	63	26	-	-	-

☐ 증평소방서(2004)

● 증평소방서의 소방장비(차량)

개서하기 이전인 1993년까지는 총 41대로써 펌프차가 31대, 물탱크차 1대,

일반화학차 1대, 굴절사다리차 1대, 지휘차로 쓰던 지프차량 1대 그리고 구급차 6대로 시작했다. 개서 전 41대는 차종이 한정돼 단조로웠으나, 2004년 말에 이르러서는 66대로 늘어났으며, 관할지역의 대형화재 진압을 위해 고성능 화학차가 도입돼 보다 충실한 소방체제를 갖추어 지고 있다. 차량보유현황과 소방용수시설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 증평소방서 개서 이후의 차량보유 현황

구분	계	펌프차				물 탱크 차	화학차		고 가 차	굴절사 다리차			배 연 차	구급차		구 조 차	행 정 차	지 휘 차	순 찰 차	진 단 차	화 물 차	오 토 바 이	기 타
		대 형	중 형	소 형	농 촌 형		고 성 능	일 반		46 m	18 m	27 m		특 수	일 반								
개서시	41	7	1	22	1	1	-	1	-	1	-	-	-	-	6	-	-	1	-	-	-	-	-
1994	44	7	1	22	2	1	-	1	-	1	-	-	-	-	6	-	1	1	1	-	-	-	-
1995	48	7	1	22	2	1	-	1	-	1	-	-	-	-	6	2	1	1	1	1	1	-	-
1996	51	9	1	20	2	1	-	1	-	1	-	-	-	2	7	2	1	1	1	1	1	-	-
1997	52	9	1	20	2	2	-	1	-	1	-	-	-	2	7	2	1	1	1	1	1	-	-
1998	57	9	1	20	2	2	-	1	-	1	2	-	-	5	7	2	1	1	1	1	1	-	-
1999	58	9	1	20	2	2	-	1	-	1	2	-	-	6	7	2	1	1	1	1	1	-	-
2000	60	9	5	18	-	2	-	1	1	1	1	2	-	9	4	2	1	1	1	1	1	-	1
2001	60	9	6	17	-	2	-	1	1	1	1	2	-	10	3	2	1	1	1	1	1	-	1
2002	63	9	9	14	-	2	-	1	1	1	1	2	-	12	2	3	3	1	1	1	1	-	-
2003	63	9	9	14	-	2	-	1	1	1	1	2	-	14	-	3	3	1	1	1	1	-	-
2004	66	9	9	14	-	2	1	1	1	1	1	2	1	14	-	3	3	1	2	1	1	-	-

● ● 소방용수시설의 현황

계	소 화 전		급수탑	저수조	비 상 소화전함	비 상 소화기함
	지상식	지하식				
39	31	7	-	-	1	-

3) 주요소방활동

(1) 화재경계 및 진압활동

화재경계를 위해 소방서장 또는 파출소장을 책임관으로 해 관할구역내의 화재취약거점을 순찰노선에 따라 소방차량을 이용해 기동순찰활동을 한다. 기동순찰시에는 옥외분화·화기방치행위 단속,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어린이불장난 등등의 화재예방과 경계활동을 동시에 수행한다. 그

증평소방서(2004)

증평소방서(2004)



긴급출동훈련(2003년)

리고 화재특별경계근무시(연말연시나 주요행사시)에는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경계근무를 실시한다.

화재진압시에는 중평소방서 119수보시스템이 충청북도소방본부 긴급구조본부 상황실의 광역긴급구조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인접한 소방서간 관할구역 구분없이 현장을 중심으로 최단거리에 위치한 소방대가 1차 출동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출동대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지정돼 출

동지령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평군의 최근의 화재발생에 대한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연도별 화재발생 현황

연도별	발생 건수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천원)			소실 면적 (평)	소실 동수	이재 가구수	이재 민수
		계	사망	부상	계	부동산	동산				
1994년	29	4	-	4	18,191	8,595	9,596	213	18	-	-
1995년	33	3	1	2	70,666	25,111	45,555	164	16	1	1
1996년	28	4	-	4	244,204	55,415	188,789	1,413	18	2	2
1997년	36	3	-	3	52,053	21,343	30,710	387	22	2	3
1998년	27	-	-	-	119,143	77,466	41,677	287	18	2	4
1999년	34	7	1	6	188,913	75,344	113,569	467	23	6	11
2000년	32	3	1	2	281,888	183,588	98,300	868	23	2	8
2001년	25	2	2	-	69,795	31,437	38,358	177	17	3	5
2002년	31	-	-	-	231,638	87,165	144,473	973	21	3	8
2003년	39	2	-	2	254,201	158,835	95,366	630	32	5	12
2004년	27	1	-	1	267,934	223,522	44,412	1,490	18	5	12

중평소방서(2004)

●●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

연도별	계	전 기		유류	가스	난로	아궁이	담배	성냥양초	불티	불장난	방화	기타
		일반 전기	기타 전기										
1999년	34	3	2	-	1	1	-	1	1	1	3	4	17
2000년	32	10	1	-	1	-	1	1	-	5	1	-	12
2001년	25	5	2	-	1	3	-	2	-	-	-	-	12
2002년	31	5	-	-	2	1	1	1	1	4	1	2	13
2003년	39	12	1	-	1	2	1	1	1	1	-	3	16
2004년	27	5	2	-	-	-	1	1	1	-	3	-	14

(2) 구조활동

중평소방서의 구조대는 3개대에 각 대별 9명으로 총 27명이다. 구조대원의 구성은 구조분야 특별채용 7명, 인명구조 전문교육 이수자 6명, 기타 구조분야 유자격자나 자체교육 이수자가 14명이다. 구조대원들은 전문 구조능력 향상을 위해 기본교육훈련, 일상교육훈련, 특별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교육 훈련에는 화학구조훈련, 수난구조훈련, 산악구조훈련, 그 밖에 재난·재해에 대비한 훈련 등이 있다.



긴급구조 훈련(2003)

지난 11년간의 구조활동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연도별 구조활동 실적

연도별	출동건수	구조건수	구조인원	사 고 종 별 구 조 인 원																		
				화재	교통	수난	붕괴	기계	승강기	추락	폭발	산악	약물	자연재해	고립	실내간힘	안전조치	동물구호	시민개방	유독물질	자해범죄	기타
1994	95	63	185	2	123	31	-	7	-	-	-	3	-	-	-	2	-	-	-	-	-	17
1995	172	115	336	4	224	56	-	13	-	-	-	5	-	-	-	4	-	-	-	-	-	30
1996	379	161	321	6	215	54	-	12	-	-	-	3	-	-	-	5	-	-	-	-	-	26
1997	428	170	353	7	236	59	-	14	-	-	-	3	-	2	-	2	-	-	-	-	-	30
1998	541	246	281	-	190	51	-	4	4	-	-	3	-	-	-	13	-	-	-	-	-	16
1999	872	421	406	8	285	10	-	12	28	3	-	10	-	-	-	45	-	-	-	-	-	5
2000	863	472	489	1	298	39	1	8	5	1	-	14	-	-	-	25	-	-	-	-	-	97
2001	959	587	554	8	362	18	3	2	52	4	-	29	-	-	-	30	-	-	32	-	-	14
2002	976	636	580	2	320	17	-	15	75	18	-	27	-	-	49	31	2	4	1	-	1	15
2003	682	355	424	1	217	16	13	13	35	3	-	48	-	-	14	24	-	1	20	-	1	18
2004	305	190	208	-	152	3	-	7	17	2	-	2	-	2	-	6	1	-	11	-	-	5

증평소방서(2004)

(3) 구급활동

개서 당시의 구급대는 인원과 시설, 장비 등이 열악했으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응급구조사 자격제,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의 구분 등의 제도가 도입돼, 구급대가 증가하고 특수구급차량이 배치되면서 많이 개선이 됐다. 현재 14개 구급대가 있으며, 구급대원 36명이 격일근무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최근 7년 동안의 구급활동 실적은 다음과 같다.

● 연도별 구급활동 실적

연도별	출동 건수	이송 건수	이송 인원	이 송 환 자 별								
				만성 질환	급성 질환	임산 부	사고 부상	가스 중독	약물 중독	화상	교통 사고	기타
1998	1,086	811	918	126	190	8	197	-	33	4	277	83
1999	1,335	1,042	1,191	229	279	11	277	4	28	8	286	69
2000	1,541	1,224	1,385	195	370	21	261	2	33	5	397	101
2001	1,598	1,250	1,411	293	362	16	288	2	36	4	343	67
2002	1,392	1,136	1,236	291	353	5	259	5	34	3	256	30
2003	1,545	1,166	1,204	206	333	10	204	3	23	12	240	173
2004	1,643	1,208	1,318	236	337	9	251	-	21	5	291	168

증평소방서(2004)

(4) 대민봉사활동

가. 119얼음썰매장 운영

2001년 12월부터 매년 겨울철(12월~2월) 청사 좌측의 논을 이용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추억을 심어줄 119얼음썰매장을 만들어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또한 썰매 100개를 제작·비치해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겨울철 놀이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체력증진과 함께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도 병행하고 청사 내에 설치된 소방홍보전시관 관람 및 소방체험실습장 실습도 겸해 실시하고 있다.

나. 주민쉼터의 운영

1998년 9월에 청사 정문 옆의 공지에 주민 쉼터를 마련해 연중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만남의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 쉼터는 원두막형식으로 봄에는 박을 심어 가을에는 표주박이 주렁주렁 열려 운치를 더하고 있다.

다. 이웃돕기의 실천봉사



대민봉사 활동(폭설피해복구)

증평소방서 소방공무원은 불우이웃의 어려운 사정이 알려질때마다 이를 도와주고자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 모자세대에 대해 2001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어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후원금은 소방서 휴게실에 설치된 자판기 수익금 등으로 매월 일정액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술에 소요되는 혈액이 부족하거나 치료상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경우에는 혈액의 확보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데, 어려운 이웃이나

불우한 동료들 치료를 위해 혈액이 필요할 때에 도움을 주고자 사랑의 헌혈증 기증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은 직원 및 관내 의용소방대원들이 정기적으로 헌혈을 실시한 후 기증한 헌혈증과 일반인들이 기증한 헌혈증을 모아 혈액이 필요한 주변의 어려운 환자에게 무료로 전달하고 있다.

4) 역대 증평소방서장

구분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재임 기간	재임 기간
초대	지방소방령	조 병 섭	1936. 10. 25	1994.05.17 - 1996.05.09	3년
2대	지방소방장	김 병 목	1938. 6. 3	1996.05.10 - 1998.09.16	3년4월
3대	지방소방장	김 용 호	1945. 8. 3	1998.09.17 - 2000.06.30	1년9월
4대	지방소방장	김 진 태	1945. 9. 20	2000.07.01 - 2002.06.20	2년
5대	지방소방장	곽 세 근	1949. 12. 5	2002.06.21 - 2003.03.05	9월
6대	지방소방장	김 주 홍	1947. 12. 4	2003.03.06 - 2004.06.30	1년5월
7대	지방소방장	이 기 봉	1959. 9. 15	2004.07.01 - 현재	

5) 의용소방대

(1) 개 요

의용소방대는 민간소방조직으로서 민간의 조직적인 소방활동의 시작은 구한말의 소방기본조직인 소방조의 활동부터 시작해 수방단과 방호단을 거쳐 경방단으로 명칭이 변경돼 오다가 광복과 더불어 해체됐다. 그 후 전후의 혼란속에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자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이 증대돼 1958년 3월 11일 정부가 소방법을 제정·공포하고 그 중에 제4장 보칙 제40조 - 제46조에 의용소방대의설치규정을 둠으로써 의용소방대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그리고 1975년 민방위조직이 발족한 후 의용소방대에 관한 시·군 조례의 공포·시행을 계기로 해 운영돼 오다가, 1992년 1월 1일 광역소방자치체제로 전환되면서 시·도 조례로 설치규정이 변경돼 운영되고 있다.



의용소방대 경연대회(2003년)

- 의용소방대 조직 : 대장 1인, 부대장 1인(지역대 제외),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과 약간 명의 고문(여성의용소방대, 지역대 제외)을 두며,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의용소방대에는 총무부·방호부·지도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서무반·보급반을, 방호부에는 진압반·구조·구급반을 두고, 지도부

에는 예방반·훈련반·기술지원반을 둔다. 여성의용소방대에는 홍보부와 구호부를 두고, 홍보부에는 서무반·홍보반을, 구호부에는 구급반·구호반을 두고 있다.

- 의용소방대 정원 : 소방서와 읍지역의 경우 의용소방대별 60명이며, 여성 의용소방대는 50명 내외, 지역대는 20명 내외로 하되 면지역은 의용소방대 30명, 여성의용소방대 20명이다.
- 의용소방대원 임용 : 대장·부대장 및 여성의용소방대장과 지역대장은 시 지역의 경우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해 도지사가 임용하며, 군 지역의 경우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임용한다. 대원은 대장의 추천에 의해 소방서장 또는 군수가 임용하고, 회계 및 물품출납담당 대원의 임명에 관해서는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을 준용한다. 고문은 지역 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의해 소방서장 또는 군수가 위촉한다.
- 의용소방대원 임무 : 비상근으로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화재, 구조·구급 등의 발생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출동해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화재취약시기 및 경계근무 기간에 소방서장 또는 군수의 근무명령에 따라 소방관서에 근무한다. 소방대상물을 검사하도록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할 복무의무가 있으며, 복무감독은 소방서장 또는 군수가 감독한다.

(2) 증평읍 의용소방대

증평읍의용소방대는 1930년 5월 가솔린 펌프 1대와 15명의 대원으로 조직됐다. 1952년 8월 25일 대통령령 제681호로 방공단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소방대는 방공단에 흡수됐다가, 1954년 1월에 소방대를 재조직했다. 그 후 1990년 2월 12일 시·군소방서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12923호)으로 괴산군 증평읍 일원이 청주소방서관할로 편입돼 청주소방서 증평파출소로 개소됐다가, 1994년 5월 21일 충청북도조직규칙에 의거 증평소방서 관할구역으로 편입됐다.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은 1~3월중에 의용소방대 일제점검을 실시하며, 화재발생시에 신속한 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즉 공기호흡기 착용훈련이나 기타 구조장비사용법 등을 익히며,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의 보조활동과 구급현장에서 응급처치 요원화를 위해 전대원에 대해 기초체력을 검정·관리하고 응급처치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화재예방홍보활동을 해 시민들에게 불조심의식을 제고시키며 기타 대민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 역대 의용소방대장 (대원 : 39명)

번호	직 위	성 명	재임기간	번호	직 위	성 명	재임기간
1	대 장	임봉빈	1945-1954	9	대 장	최상근	1980-1986
2	대 장	김남선	1954-1958	10	대 장	연규홍	1986-1988
3	대 장	손용봉	1958-1960	11	대 장	연용흙	1988-1991
4	대 장	김남선	1960-1961	12	대 장	전상기	1991-1994
5	대 장	강윤희	1961-1963	13	대 장	박석규	1994-1997
6	대 장	이광우	1963-1970	14	대 장	함윤식	1997-2002
7	대 장	김천수	1970-1974	15	대 장	김진홍	2003-현재
8	대 장	김행제	1974-1980				

(3) 도안면 의용소방대

도안면의용소방대는 1930년 도안경방단을 조직해 소방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광복 후 경방단이 해체되면서 의용소방대로 개칭이 됐다. 1950년 전란 중에는 방공단으로 개편돼 전후의 치안업무와 피해복구 활동을 수행해 오다가 1953년 의용소방대로 재조직해 활동해 왔다. 1991년 5월 3일 충청북도소방서규칙이 개정돼 청주소방서 관할로 편입됐다가 1994년 5월 21일 충청북도규칙 제2001호 의거 중평소방서 관할구역으로 편입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도안면 노암1리 가옥 화재 잔
불 처리(도안면 의용소방대원)

의용소방대의 주요업무활동은 화재발생시 소방활동과 구조·구급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소방교육훈련에 참여하며 화재예방활동과 비상소집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그리고 기타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 역대 의용소방대장 (대원 : 29명)

번호	직 위	성 명	재임기간	번호	직 위	성 명	재임기간
1	대 장	이중수	1933-1942	7	대 장	연 춘	1978-1978
2	대 장	연정희	1942-1945	8	대 장	양용식	1978-1979
3	대 장	연명흙	1945-1951	9	대 장	한종철	1979-1990
4	대 장	연병을	1951-1955	10	대 장	연규삼	1990-1994
5	대 장	연상희	1955-1969	11	대 장	연제국	1994-1999
6	대 장	김천수	1969-1978	12	대 장	이종석	2000- 현재

(4) 증평읍 여성의용소방대



증평여성의용소방대원

증평읍 여성의용소방대는 1979년 8월 15일 충북도내에서 처음으로 유은하 대장을 비롯한 35명의 대원으로 조직됐다. 여성의용소방대는 증평의용소방대와 상호협조 및 소방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수시로 관내의 군부대 장병들을 위문하고 정기적으로 양로원 및 고아원에 옷을 보냄은 물론, 관내 경로당에 소화기 보급운동을 하고 있다. 또한 1987년부터는 전대원 30명으로 풍물패를 조직해 불조심 캠페인 및 관내 각종 행사 때 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제2회 충청북도농악경연대회(보은군 개최)에서 감투상을 수상하고, 제4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충주시 개최)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활발한 의용봉공 활동의 결과로 초대 유은하 대장(재임기간 : 1979 - 1997)은 1995년 12월 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의용소방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제2대 연제순 대장(재임기간 : 1997 - 2003)은 행정자치부와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주관하는 제10회 의용소방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제3대 홍순옥 대장(재임기간 : 2003 - 현재)도 소방홍보 및 주민계도와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제4절

제4절 향토방위

1. 향토사단

우리 국군은 국민을 위한 육군으로서 군에 부여된 가장 큰 사명은 평소 최상의 전투력을 갖추어 유사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외에도 국가와 국민이 재해·재난 수습에 헌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이다. 그리고 군이 존재하는 목적은 평시 전쟁의 억제와 유사시에 전승하는 것이다. 현대전에서는 한쪽의 일방적 승리 혹은 패배란 있을 수 없으며, 쌍방의 패허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상시 전쟁억제가 더 중요시 된다. 평상시 전쟁억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미리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즉, 국방의 기본은 상황에 대비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짐으로써 전쟁발생을 억제하는 것이다.

향토사단은 지역방위와 동원임무를 담당하는 부대로서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별 동원센터를 운영해 예비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유사시 소요에 따라 부대를 창설해 전선에 투입한다.

현재 중평지역에는 육군 제37보병사단과 육군 제67보병사단, 그리고 육군 제1987부대(제13공수여단)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국민을 위한 군으로 주둔하고 있다.

1) 육군 제37보병사단

육군 제37보병사단은 6·25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던 1955년 5월 20일 강원도 양구에서 창설, 그 해 6월 22일 중평으로 이동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충청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완벽한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전투임무위주의 교육훈련과 합리적인 지휘관리체제 구축,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향토사단상을 구현하면서 충청북도 방위의 최선봉에서 부여된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다.

특히 37보병사단은 완벽한 상시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충북지역 안정 유지와 전장 6대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된 대비태세를 구축하는 한편, 지난 1967년 책임지역 내 연풍, 월악, 덕산, 봉양, 옥천일대 대간첩 작전에 참가해 적 사살 11명, 생포 1명의 혁혁한 전과를 올리면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군사적 요충지인 충청북도 절대방위의 소명을 완수해 왔다.

그리고 충북도민에게 신뢰받는 향토사단상 구현을 위해 2003년 12월에는 조류독감 확산방지에 연 2천 4백여명과 다수의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2004년 3월에는 폭설피해복구에 예비군을 포함해 연 4만 9천여명을, 2005년 4월에는 영동산불진화에 1천 2백여명을 지원했으며, 구제역 확산방지,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순회진료 등을 실시하면서 지역내 각종 문화행사지원, 주민초청행사, 국토대청결행사를 적극전개하고 있고, 특히 부대 내에 전문 정비사 자격을 갖고 있는 장병들로 향토지원단을 구성, 2005년 4월 10일 발대식을 가진 뒤, 지역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농기계 정비에 대한 위탁교육을 받고 정비에 나서 고장나거나 부속품이 없어 수리가 되지 않은 농기계를 말끔히 수리해 주는 한편 고장원인과 수리요령 등에 대해 교육도 병행실시했다.

이와 같이 37보병사단은 조국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 위기의 중심에서, 재해·재난시에는 구조의 최선봉에서, 국가적 행사시에는 시범 및 방호를 비롯한 제반행사를 뒷받침하면서 50년의 역사에 여섯번의 대통령 표창과 총 69회의 부대표창을 수상하는 저력을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전군 최강의 향토사단으로 성장, 발전돼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제37보병사단 마크

2) 육군 제67보병사단



제67보병사단 마크

육군 제67보병사단은 1976년 10월 1일 충북 증평에서 창설된 부대(육군 용진부대)로서 전투태세 완비, 실전적인 교육훈련, 합리적인 부대관리에 중점을 두고, 전 장병이 지휘관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돼 완벽한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이러한 용진부대 전장병은 유사시 ○○지역 방어작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동원지원 관리, 증편준비, 작계발전 등 강도 높은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한 임무수행 능력 숙달에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군을 실천하기 위해 태풍 및 폭설 등 각종 재해·재난 발생시 적극적인 대민 지원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역 내 불우·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의 군대로서 지역 발전에 적극 기여해 용진부대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이와 같이 육군 제67보병사단인 용진부대는 부여된 임무를 100% 완수한다는 신념아래 전장병이 혼연일치 단결해 노력한 결과 2003년도 육군 동원 및 군수분야 우수부대, 2군 사령부 교육훈련 및 부사관 활동 우수부대, 2004년도 2군 사령부 부사관 활동 우수부대로 선정돼 전군 제일의 최정예 동원사단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육군 제1979부대 마크

3) 육군 제1979부대

육군 제1979부대는 공수특전 전투부대로 1992년 6월에 증평지역으로 이동해 국군의 특전 업무를 수행하는 국군의 최정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향토예비군

1) 설립

향토예비군은 호국의 투사로서, 군경의 동지로서, 지역을 지키는 예비역으로서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범국민적인 자유방위의 역군으로서, 예비군은 동원체제의 확립으로 국가 유사시 현역군 부대의 확장을 위한 참여와 함께 적의 간첩침투와 파괴를 예방해 향토를 방위하는 것은 물론, 자주국방의 배양을 위해 선봉이 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이러한 향토예비군의 임무는 ① 전시 또는 사변 기타 이



향토예비군 증평군기동대 발대식

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
예의 대비, ②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를 소지한 자(무장공비)
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서의 적 또는 무장공비의 섬멸, ③
무장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서의 무장소요의 진압(경찰력만
으로 그 소요를 진압 또는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2호 및 제3호
의 지역안에 있는 중요시설과 무기고 및 병참선 등의 경비, ⑤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업무의 지원, ⑥ 대민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창설됐다.
향토예비군제도의 변천을 다음과 같다.

1961년 12월 27일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정 공포
1968년 2월 27일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정 공포
1968년 4월 1일 : 향토예비군 창설
1971년 1월 1일 : 경찰에서 담당하던 교육훈련을 군에서 전담 실시
1971년 7월 1일 : 예비군지휘 및 운영체제를 군에서 전담 실시
1982년 4월 1일 : 지역예비군중대장을 군무원으로 임용
1987년 5월 6일 : 예비군 명칭을 제1전투군과 지역전투군으로 변경
1988년 3월 1일 : 연한제 훈련 실시(훈련연령제에서 연차제로 변경)
1988년 12월 31일 : 예비군대원 재해 및 휴업보상제도 신설
1994년 1월 1일 : 예비군제도 개선 <용어 변경: 제1전투군/지역전투군 → 동원예비군
/향방예비군, 복무연령제(33세) → 복무연한제(군복무 종료후 8년)>
2001년 8월 10일 :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규칙 제정공포(부령 제529호)
2004년 1월 1일 : 예비군훈련 제도개선(동원훈련 면제대상조정; 8년 7, 8년차)



예비군 마크

2) 현 황

(1) 증평의 향토예비군은 현재 1개의 기동대와 증평읍대
와 도안면대로 구성돼 있다. 향토예비군증평군기동대는
2003년 9월 1일 창설돼 2003년 11월 13일에 증평군청 대회
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증평군 향토예비군의 체제를 갖추
게 됐다. 초대 기동대장으로는 박병선이 선임됐다.



도안면 예비군 면대 장비고

(2) 향토예비군 증평읍대의 변천과정은 아래와 같다.

1968년 4월 5일 : 증평읍 예비군 창설
1992년 9월 1일 : 증평읍대에서 증평, 장평 분동
1992년 9월 10일 : 증천 동대 발대
2002년 1월 2일 : 행정구역개편
2003년 9월 1일 : 증평군 승격(증평읍 예비군중대창설)

증평읍대의 역대 지휘관은 제1대 김낙기(1992.9.10 - 1998.6.30), 제2대(이주연)1998.7.1 - 1999.6.30), 제3대 정태희(1999.7.1 - 현재) 이다.

(3) 향토예비군 도안면대의 변천과정은 아래와 같다.

1968년 4월 8일 : 향토예비군 도안예비군중대 창설

1982년 4월 1일 : 도안중대를 면대로 개칭

1991년 2월 1일 : 도안면대를 동대로 개칭

2003년 8월 31일 : 도안동대를 면대로 개칭

도안면대의 역대 지휘관은 제1대 연상희(1968.6.8 - 1972.9.30), 제2대 송철의(1972.10.1 - 1975.6.30), 제3대 김홍식(1975.7.1 - 1977.10.31), 제4대 연규혁(1977.11.1 - 1983.3.15), 제5대 황경만(1983.7.1 - 1993.6.30), 제6대 문정규(1993.7.1 - 1998.12.31), 제7대 김영철(1999.1.1 - 현재) 이다.

3) 주요활동



도안면 화성리 향토예비군 호

예비군의 주요활동으로는, ① 당해지역 또는 직장의 방위와 그 대비, ② 동원된 소속 예비군 대원의 지휘통솔 및 포상 추천, ③ 소속대원의 보직부여 및 자원관리, ④ 예하 지휘관의 임명 또는 추천과 파견근무 요원의 지휘감독, ⑤ 훈련 참가자의 지휘감독, ⑥ 수임시 예비군 대원의 교육훈련, ⑦ 병무관서장의 업무협조 및 지원 등이 있다.

3. 재난관리 및 민방위

1) 현황



민방위 기본교육 소양강좌(2005)

각종의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체제를 효율적인 관리체제로 구축해 신속한 대처와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 현재 증평군은 1과장 3담당으로, 재난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 민방위담당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정·현원의 현황을 다음과 같다.

현 원(정 원)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계	9(11)	1(1)	3(3)	1(4)	(3)	4	
재난관리담당	4(5)	1(1)	1(1)	1(1)	(1)	2	
복구지원담당	2(3)		1(1)	1(1)	(1)	1	
민방위담당	3(3)		1(1)	1(1)	(1)	1	

재난관리담당의 주요업무는 ① 재난종합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수립 ② 재난 위험지역조사 ③ 재난대책본부 운영 ④ 재난위험 시설물 점검 및 시설물 안전 관리 이며, 복구지원담당의 주요업무는 ①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② 재난복구 지원 ③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 보고체제 구축 ④ 재난피해 원인 및 피해상황조사 분석이며, 민방위담당의 주요업무는 ① 민방위 교육 · 훈련 · 편성 ② 비상대책 업무 ③ 민방위시설, 장비 ④ 자율방범대 · 의용소방대 운영 등이다.

2) 주요업무계획

(1) 효율적인 재난 · 재해 관리체계 구축

완벽한 재난 · 재해 대비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재난 · 재해예방 및 사고의 신속한 대처와 수습체계 확립을 중점과제로 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시행한다.

재난 · 재해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하며, 유관기관과의 완벽한 공조체제를 유지한다. 그리고 재난 · 재해 도상훈련을 실시해 재난 · 재해 대처능력을 제고한다. 특히, 재해대책 중점기간인 여름철(5.15-10.15, 5개월간)과 겨울철(12.1-3.15, 3개월간)에는 재난 · 재해종합상황 관리 및 상황별 대처계획을 수립한다. 즉, 여름철 재해 사전정비(3월-5월), 설해대비 적사함설치(11월), 도로구역별 제설반 편성운영(12월-3월), 수방자재확보(PP마대의 5종) 등을 추진한다.



민방위훈련광경

(2) 재난대비 안전관리 대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안전문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주민 생활안전 보호를 중점과제로 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시행한다.

매월 4일(12회)에는 자치단체의 주관으로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 그리고 가정 · 학교 · 산업 · 직장 · 공

공시설 등의 합동점검과 자율점검 실시를 홍보해 시설물 방호계획 운영지도
를 강화한다. 또한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 즉, 상·하
반기(4월, 10월중)에 읍·면장이 추천한 마을을 현지답사해 농촌마을의 전
기·가스 등 노후화와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
기 위해 유관기관·단체·업체와 협조해 점검·수리반을 편성해 지원한다.

(3) 특정관리대상 안전시설 점검



민방위대원의 안전시설 점검
광경

중점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 일제조사 및 정
기점검 실시와 위험요인 발견 즉시 시정해 사고를
방지하는 것을 중점과제로 해 다음의 업무를 시행한
다.

상·하반기(4월, 10월경)에 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
기점검반(토목·건축·전기·가스·소방분야)을
편성해 신설된 건축물과 시설물 사전과약 및 위반여
부를 확인하고, 안전상 문제가 있는 기능적 위험요
인과 계속적 관리의 필요 건축물 등에 대해 재난위
험요인 점검과 추적관리를 시행한다.

(4) 민방위 내실화로 주민 안전망 강화

민방위 관리체제 강화 및 운영내실화로 비상사태 시 대처능력 향상과 효율
적인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으로 주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의 업무를 시
행한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보 및 유지관리로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한다. 또한 연2
회(상·하반기) 민방위대원을 일제정비하고, 민방위 기본교육(상·하반
기; 4~5월, 10~11월중)을 실시한다. 그리고 민방위의 날 훈련(비상소집훈련-연
1회, 민방공대피훈련-연2회, 방재훈련-연2회 등)을 내실화한다.

(5) 자율조직체 운영 활성화

의용소방대 관리 및 운영지원으로 각종 화재 및 재난재해를 예방해 지역안
정 체제를 구축한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으로 범죄를 예방해 지역의
치안질서를 유지해 지역안정을 도모한다.

증평군지편찬위원

위원장	유명호	증평군 군수
부위원장	김종만	증평군 부군수
	연만흠	증평군의회 의장
	최재옥	충청북도의회 의원
	최성균	증평문화원 원장
위원	연창흠	증평군기획감사실 실장
	노명숙	증평군복지문화과 과장
	송기민	전 증평문화원 원장
	성옥현	대한노인회증평지회 회장
	권성업	전바르게살기운동증평군협의회 회장
	김길자	한국예술총연합회증평지부 지부장
	송만자	증평군여성협의회 회장
	연창희	증평군리우회연합회 회장
	김녕숙	증평군여성단체후원회 회장
	이종일	증평군시민회 수석대표
	연경흠	전 괴산군의회 의원
	최건성	증평문화원 이사
	이종익	전 증평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장광원	전증평JC회 회장
	홍석원	증평군재향군인회 회장
	이상호	형석중학교 교장
	권태호	증평초등학교 교장
	김기한	평화통일자문위 위원
	조창환	전증평군생활체육협의회 회장
	김영호	증평군사회단체협의회 회장
간사	유병택	증평향토문화연구회 회장

증평군지집필위원

위원장	차용걸	역사(연혁 · 삼국시대)	충북대학교 역사교육학과교수
위원	우종윤	역사(선사 · 마한시대)	충북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정제규	역사(고려 · 조선시대) · 종교	청주공향문화재감정관
	한주성	자연환경 · 인문환경	충북대학교 지리교육학과교수
	이규근	성씨 · 인물	중원문화재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진덕	산업경제 · 관광	충북학연구소 연구원

	박 결 순	역 사(근 · 현대사)	독립기념관 수석 연구원
	정 기 범	교통 · 통신 · 도로	충청북도학예사(음성군)
	안 상 경	향토문화사(민속 · 세시풍속)	충북대학교 국문학과 강사
	노 병 식	문화재 및 문화유산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창 기	사회복지 · 보건 · 여성	청주과학대학 노인보건복지과교수
	연 화 준	행 정(치안 · 소방 · 향토방위)	극동대학교 법학과교수
	연 창 흙	일반행정 · 세무	증평군기획감사실 실장
	김 태 강	교 육	충북일보 논설위원
	유 병 택	사회단체	증평향토문화연구회 회장
	강 신 옥	언론 · 출판 · 정 치(선거 · 정당)	증평향토문화연구회 연구위원
간 사	라 경 준	마 을 · 지명유래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사

증평군지 편집 및 교정 교열 위원

위원장	최 성 균	증평문화원 원장
상임부위원장	유 병 택	증평향토문화연구회 회장
편집위원		
위 원	장 효 민	청주과학대학산업디자인과교수
	라 경 준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사
	강 신 옥	증평향토문화연구회 연구위원
	이 혁 훈	증평군기획감사실 공보계
	이 성 인	괴산증평신문 대표

교정교열

위 원	김 상 득	새충청일보 교열부 부장
	신 준 수	새충청일보 문화부 차장
사 무 장	이 세 규	증평문화원 사무국장
간 사	조 문 화	증평문화원 간사
	최 미 혜	증평문화의 집 간사

감수위원

차 용 결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교수 · 증원문화재연구원 원장
-------	-----------------------------

曾坪郡誌 上권 (전2권)

인쇄일 | 2005년 12월 10일

발행일 | 2005년 12월 30일

발행인 | 증평군수

발행처 | 증평군지편찬위원회

인쇄 | 디자인&인쇄전문회사 일광
tel · 043-221-2948

비매품 ISBN 89-955351-4-8 03810
ISBN 89-955352-5-8 (전2권)